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

P. D. 브람슨 지음

D. C. 브람슨 그림

허성훈 옮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One God One Message

By
P. D. Bramsen

Copyright (C) 2007, 2023 ROCK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Fourth Edition

ISBN 978-89-7531-973-0

Korean publication

www.rockintl.org

'Korean edition of One God One Message

© 2023 by ROCK International'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1035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7번길 16-6(정발산동)

전화 : (031) 914-2732, 팩스 : (031) 917-4520

이메일 : jundo79@daum.net. 홈페이지 : www.jundo.co.kr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6-6, Mugunghwa-ro 187beon-gil,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10358. KOREA

일러두기 :

한국어 번역본 성경은 개역 개정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 쿠란은 김용선 역주본(명문당출판사, 2015년 인쇄본)을 참고했습니다.

“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선지자 솔로몬
(잠언 25:25)





차레

차레 / 4
추천의 글 / 7
저자 서문 / 11

제1부 여행의 준비 장애물을 만나다

1. 진리를 사라 / 15
2. 장애물을 극복하다 / 29
3.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 / 47
4. 과학과 성경 / 62
5. 하나님의 서명 / 74
6. 일관성 있는 증거 / 87
7. 기초 / 99

제2부
여행
비밀을 발견하다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 108
9. 그분 같은 분은 없다 / 127
10. 특별한 피조물 / 145
11. 악의 유입 / 159
12. 죄와 사망의 법 / 171
13. 인자와 공의 / 181
14. 저주 / 189
15. 이중적 문제 / 198
16. 여자의 후손 / 213
17. 이분이 누구시기에? / 224
18.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 247
19. 희생의 법 / 257
20. 위대한 희생 / 268
21. 흘려진 더 귀한 피 / 280
22. 어린 양 / 292
23. 성경을 성취하다 / 306
24. 완전히 지불되다 / 317
25. 죽음을 이기다 / 329
26.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 / 343

제3부
여행의 끝
저주를 뒤바꾸다

- 27. 1단계: 하나님의 과거 프로그램 / 364
- 28. 2단계: 하나님의 현재 프로그램 / 389
- 29. 3단계: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 / 412
- 30. 천국 미리보기 / 433

끝맺는 말 / 449

미주 / 452

여행을 되돌아보며: 소그룹 교제를 위한 안내 / 501



추천의 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 - One God One Message**〉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매우 귀한 책이다. 이에 모든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의 저자인 P. D. Bramsen 선교사의 이 책 저작 동기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는 점이다.

첫째, 자기에게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목적을 주신 이가 이 책에 담은 내용을 주셨다고 믿고 저작했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의 무슬림 친구들, 특히 자기 세 자녀가 자란 세네갈의 무슬림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저술했기 때문이다.

셋째, 저자가 지난 수년간 전 세계 무슬림 친구들로부터 받은 수백 통의 이메일에 담겨 있는 그들의 주장들과 질문들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도의적 책임감에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넷째, 저자는 독자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만족할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상투적인 말만 하는 데서 신물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의문과 고민을 풀어주어야 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에서 저술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저자는 많은 사람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 없는데도 아무것이나 분별없이 받아들이는 인간의 연약성에 충격을 받고 저술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 - One God One Message〉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인 **성경을 살펴보는 순례의 길에 들어서**는 독자에게 주어진 평생 단 한 번의 기회일 수 있다. 이 순례를 하는 동안 독자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이며(제1부의 내용), 신비한 세계를 관통하게 될 것이고(제2부의 내용), 마침내 진리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제3부의 내용).

이 감화력이 있는 책을 모든 이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싶다.

세 번째 이유는, 본서는 모든 종교인, 즉 이슬람교인들, 유대교인들 및 거듭나지 아니한 기독교인들, 심지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생각하며 쓴 글이기에 **모든 분에게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불과 십여 시간 정도 투자할 뿐이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진지하게 묵상하며 읽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삼천여 년 전, 한 선지자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린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

네 번째 이유는, 저자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들과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들에 대한 권위 있는 답**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비상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술했기에 매우 유익한 책이다.

이에 모든 이에게 일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다.

주님의 종 박준형.



추천의 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세네갈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폴. D. 브람슨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세네갈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서 사람들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매우 힘들고 위험한 곳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무슬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그들을 모른 척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딤후 2:4)는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먼저는 무슬림들을 위한 책입니다**(글쓴이는,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꾸란을 읽거나 모스크에서 이맘(이슬람교 목회자)의 교육을 받은 무슬림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성경 말씀과 여러 가지 비유로 쉽게 대답해 주고 있으므로, 이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는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교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전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정중하게 복음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무슬림에 대해 생소하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책은 무슬림들의 믿음과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과 성경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 바르게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에 대한 이해와 선교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한 번 읽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번역 출판이 된 이 책이 이번에 “무슬림의 친구들 선교회(FOM 선교회)”에서 발행되어 한국 교회와 무슬림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슬림선교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와 책들이 많지 않은 한국 교계에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슬림들과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무슬림의 친구들 선교회 회장 박건신.



저자 서문

“당신이 행한 선행을 보면 당신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 당신이 전한 메시지를 생각하면 당신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라고 어느 마을의 노인이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제 친구와 그의 아내는 사하라 변방에 있는 이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관개 사업을 시작했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또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마을 노인의 말에 의하면, 제 친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네, 선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가야 마땅한 자격을 얻기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성경에 따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노인은 제 친구의 행위와 메시지를 옳게 판단한 것인가요? 혹은 절반 정도만 옳게 보았나요? 아니면, 완전히 틀렸나요? 혹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면, 이 책이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책이 될 것입니다.

장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 책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습니다.

집필 장소 :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의 사헬¹⁾ 지역

집필 상황 : 새벽 기도가 끝났습니다. 분홍과 주홍빛의 새벽빛이 가시 나무로 장식된 모래 지평선에 실루엣을 드리웁니다. 기온은 상쾌할 정도

로 시원하다가도 이내 바뀝니다.

저는 한 전원주택의 현관에 노트북 컴퓨터를 켜고 앉아있습니다. 키보드 위를 덮는 투명 플라스틱 커버가 공중에 떠다니는 사하라의 먼지로부터 노트북을 보호해 줍니다. 이따금 들리는 당나귀와 수탉의 울음소리를 제외하고 이 마을은 고요합니다. 지금 제게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이며,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생각은 단어가 되고 단어는 글이 됩니다.

이유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게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목적을 아는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제게 쓰라고 주신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세네갈에 있는 무슬림 친구들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글을 씁니다. 세네갈은 저희 부부가 자녀들을 키운 곳이자 성인으로서는 대부분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전 세계 무슬림들로부터 1,000개가 넘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이를 통해 전달된 그들의 생각과 의문들을 소홀히 다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므로 성경은 사실이다”라든지, “아무도 쿠란과 같은 책을 쓸 수 없어서 쿠란이 사실이다”라고 진부하게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순환 논리에 지쳐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또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보다는 다른 사상을 믿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용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여러분의 평생에 기억에 남을

만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즉,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세계를 유유히 여행하면서 그것을 기록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이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하고(제1부), 신비한 영역을 통과하며(제2부), 놀라운 파노라마와 영혼을 만족시키는 진리로 가득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제3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대상

이 여행은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교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 그리고 인본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도²⁾ 똑같이 환영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 한나절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나절이면 대략 한 번 정도 이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무엇을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성경 여행에 참가하도록 당신을 초대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여행이 소중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3,000년 전, 한 선지자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편 119:18).

우리에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걷는 순례자,
P. D. 브람슨.



제1부 여행의 준비

장애물을 만나다

1. 진리를 사라
2. 장애물을 극복하다
3.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
4. 과학과 성경
5. 하나님의 서명
6. 일관성 있는 증거
7. 기초



1

진리를 사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 선지자 솔로몬 (잠언 23:23)³⁾

수백만의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는 시장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네, 그 수백만의 사람들 속으로 말입니다.

만 개의 상점들과 간이점포들이 시야보다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열정적인 장사꾼들이 손님들을 향해 호객하고, 판매 구호를 외치고, 실랑이를 벌이고, 애걸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떤 이들은 부드럽게, 또 어떤 이들은 확성기를 사용하면서 제각기 당신이 이 시장에서 사고자 하는 물건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진리!

놀라지 마세요.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가 편찬한 백과사전을 보면, 전 세계에 1만 개의 종교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그런데 이 수치에는 이 종교들에 속하는 수천 개의 종파와 교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사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자신에 대한 진리와 인류를 위한 계획을 드러내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4,000년 전, 선지자 욥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욥기 28:12-13, 15, 18).

우리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삶에 지쳐 주저앉아 있어야만 할까요? 아니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중의 책



‘성경’(Bible)이라는 단어는 ‘책 중의 책’, 또는 ‘도서관’을 의미하는 헬라어 ‘Biblia’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이상, 아담, 노아, 및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후, 40여 명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1,500년에 걸쳐 자신의 메시지를 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신저들은 ‘선지자’ 또는 ‘사도’라 불렸습니다. ‘선지자’라는 용어는 문자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이 기록해서 한 권으로 묶어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서’,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말씀’ 등과 같은 용어들도 성경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토라’, ‘시편’, ‘복음서’ 등은 성경에서 특정 부분을 가리킵니다. 아랍어로는 이러한 책들을 ‘알키답 알무카다스’(al-Kitab-al-Muquddas)라고 부르는데, 이는 ‘거룩한 책’(성경)을 의미합니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성경은 세계의 다른 모든 책보다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성경은 2,4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1,940개의 번역이 진행중입니다.⁵⁾ 다른 어떤 책도 이에 견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인기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가장 멀리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책입니다. 수 세기에 걸쳐, 세계의 정부 지도자들은, 그들이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하나같이 이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불법이라 선언하며 또 그것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시민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⁶⁾ 어떤 나라는 이러한 정책을 오늘날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독교’ 국가는⁷⁾ 공립 학교나 기관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기까지 합니다.

고문을 당하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친구, ‘리차드’ 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분은 동유럽에 있는 한 공산주의 감옥에서 14년간 수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규칙적으로 수면 방해와 굶주림을 겪었고,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기도 했으며, 냉동실에 갇히기도 했고, 벌겍게 달아오른 부지깥이로 지짐을 당했으며, 몸에 칼자국이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몸에 난 깊고 추한 상처를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리차드 씨의 아내도 남편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포로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을 선고받았습니다.⁸⁾

무신론 정부에 대한 그들의 범죄는 무엇이였을까요?

그들은 다름 아닌 성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입니다.

추방을 당하다

제 친구, '알리'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오셨고 남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남인 알리를 그들 가운데 앉게 했습니다. 알리의 아버지는 그에게 격정적인 어조로 훈계의 말씀을 늘어놓으셨는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에게 수치를 가져다주었다! 너는 우리의 종교를 배신했어! 당장 집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네 얼굴을 절대 다시 보지 않을 거야!” 큰아버지도 한몫 거들었습니다. “그래, 내일까지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네 물건을 모조리 밖에 내다 버릴 줄 알아!”

그들은 왜 그렇게 화가 난 것일까요? 그것은 알리가 거의 1년간 성경을 읽었고, 그 후 성경을 믿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살아 있는 말씀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논란이 많은 책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 국가는 그 시민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있고, 부모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기까지 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수백만의 일신론자들은 무신론자들과 합심해서 오래전에 쓰인 이 책을 업신여기려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혼과 영을 찢러 쪼개고,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브리서 4:12).

이 책을 굳게 붙들다

제 아내와 저,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된 자녀들은 지난 25년의 세월을 대부분 아프리카 서부, 세네갈에서 보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도였습니다. ‘이슬람’은 ‘굴복’이나 ‘복종’을 의미하고, ‘무슬림’은 ‘복종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 무슬림들이 존경하는 책은 ‘쿠란’(Qur’an)입니다(‘쿠란’(Koran)으로도 쓸 수 있음). 제가 쓰고 있는 이 글은 세네갈과 전 세계의 무슬림 친구들 및 지인들과 개인적으로 나눴던 수천 번의 대화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과 쿠란을 함께 연구하긴 했어도, 본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성경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수년 전, 한 세네갈 친구와 저는 세네갈의 월로프 언어로 진행된 100편의 연대기 라디오 방송을 마쳤습니다.⁹⁾ 매번의 방송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메시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취자들은 제게 “왜 당신은 쿠란도 함께 가르치지 않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아이들이 34세가 되면 쿠란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도처에서 쿠란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 시편, 복음서 등에 포함된 이야기와 메시지는 누가 가르칠 수 있으며, 또 누가 기꺼이 가르치고자 하겠습니까? 당신도 아시다시피 쿠란은 이러한 성경의 책들이 “인도와 빛…그리고 훈계”(수라 5:46)¹⁰⁾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

다. 쿠란은 또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나타낸 사실에 대해 의문이 생기거든 이 책(성경)을 읽어 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수라 10:94).¹¹⁾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쿠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사람들이여! 너희가 주님이 네게 주신 율법(토라), 복음, 그리고 모든 계시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너희를 견고히 세울 기초가 없으리라”(수라 5:71).

30년 이상 성경을 읽어 왔고, 굳게 믿어 온 성경의 사람 중 하나로서, 저는 여러분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을 저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의 어떤 부분은 쿠란보다 2,000년 앞서 기록되었으며 다른 곳에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 그분의 이야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려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몇몇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그들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들을 믿는 이유는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정 기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 말을 지켰습니다. 또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당신은 그들이 과거에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수백 가지의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제공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만물의 창조주를 만날 수 있고 또 수천 년의 인류 역사의 과정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하신 일에 대해 들을 만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위대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변치 않는 분이실까요? 단 한 번도 스스로 모순된 적이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실까요? 혹, 그분은 우리를 속이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실까요?

그분의 이야기, 역사(His story)는 이 모든 질문뿐 아니라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 줍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최고의 드라마

사람들 모두 선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는 다시 한곳에 모여 우리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는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는 최고의 신비한 드라마입니다. 즉, 성경에는 사랑과 전쟁, 선악 및 갈등과 성공 등의 극적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물의 기원에서 미래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삶의 위대한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이고 만족스러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절정과 결론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세네갈에 있는 저희 집에서 그룹 성경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분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최고의 시나리오 작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이 여성은 성경의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작가 겸 주인공이 되시는 한 편의 드라마를 잘 보여주는지를 잠깐 맛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메시지

성경에는 그동안 들려진 이야기 중 가장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야기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는 그동안 전해진 메시지 중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수년간 수천 명의 무슬림과 성경의 메시지에 관해 토론하였습니다. 그중 다수는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이고 다른 이들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아는 사이입니다. 어떤 관계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토론한 내용 대부분을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메일 피드백

이 질문은 다양한 형태로 묶여서 제게 전달됩니다. 다음 이메일은 중동에서 온 것인데, 우리는 이 사람을 편의상 ‘아흐메드’라고 부르겠습니다.¹²⁾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저도 그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무함마드(그분께 평화가 있기를)¹³⁾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셨지만 그 이후로 기독교인들은 모두 무슬림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이 믿는 신약성경이 아니라 쿠란을 통해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치더라도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사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것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희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과 고통을 당하게 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하시고, 그들의 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죄인에 대한 이야기는 제게 너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슬람은 세상에 보내진 종교 중에 유일하고 완벽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종교요, 마지막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당신은 어떤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쿠란은 한 선지자에게 보낸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좋습니다. 쿠란의 말씀 구절 중 아무것과 유사하거나 가까운 구절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아랍어에 능통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게다가, 당신이 가진 성경의 원본에도 무함마드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제가 믿고 아는 바는 성경의 모든 책이 조작되었기에 현재의 성경은 대체로 가짜이며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신약성경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읽어 봤습니다. 그리고 쿠란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책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쿠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무함마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대 의견을 증명하실 수 있다면, 반론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원문 그대로)¹⁴⁾

살롬, 아흐메드 드림.

아흐메드의 도전과 견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옛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아흐메드가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문제들이 영원의 관점에서 중요한 다음의 질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선지자 욥은 이와 유사한 두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욥기 28:12).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욥기 9:2).

여행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서로 상충하는 수천의 대답들이 난무하여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러한 혼란에 또다시 저만의 생각을 가미시킬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 중의 책을 통해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여행하자고 당신을 초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성경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관찰하고 아흐메드와 다른 이들이 제기한 도전에 대한 선지자들의 반응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제1부 : 제1장-7장)이 끝난 뒤, 성경이 시작되는 세계 역사의 새벽이라 불리는 ‘창세기’로부터 우리의 여행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간’의 과정을 거쳐 영원으로 들어가는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제2부 및 제3부: 제8장-30장). 이 여행은 결국 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행의 선택사항

본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는 한 권으로 묶인 세 개의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2부’에서는 지금까지 들려진 이야기 중 최고의 이야기에 담긴 중심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3부’에서는 무대의 뒤편으로 가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여행객 대부분은 이 여행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단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절히 듣고 싶고 지체없이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제2부’로 바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든 여행을 다 마친 후, ‘제1부’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차분한 걸음으로 여행하길 원하신다면, 하루에 한 장씩 섭렵하는 식으로 한 달에 걸쳐 30개의 장을 천천히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30일에 걸친 라마단 기간 중 이 여행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쿠란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에, 당신은

확신하고 나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에는 강요가 없도다. 올바른 것은 잘못된 것과 뚜렷이 구별되나니”(쿠란, 수라 2:256). 또한, “오, 무슬림이여! 이 사실을 말해주어라! 곧, 우리는 알라를 믿으며,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및 그 민족들에게 주셨던 계시를 믿고, 또 모세와 예수가 받은 진리와 선지자들이 주께 받은 진리를 만나니, 우리는 그들을 서로 구별하지 않으며 오직 알라께만 복종하도다”(쿠란, 수라 2:136, 픽홀).⁵⁾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여행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조언을 드리 고자 합니다. 일단 여행을 시작하시면, 이 여행의 어느 부분도 그냥 건너뛰지 마십시오.

각각의 새로운 단계는 이전 단계 위에 세워집니다. 읽는 모든 것이 즉시 이해되지 않더라도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 읽어 가시면서 생 각해보세요. 이 여행 중 어떤 부분이 낯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 가다 보면 갈증을 해소하는 청량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될 것입 니다.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여행을 계속하십시오.

진리

‘인간은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끝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등, 인생의 중대한 의문들에 관해 세계의 수많은 사람은 아무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야.”라든가 “사람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야.”라는 식의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가를 깨닫기 위해 논리학의 박사과정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물’에 대해

자기주장을 펼치거나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자신의 진리를 인간에게 계시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이러한 생각에 동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직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올바른 선택

저희의 이웃 중에는 79세의 ‘무사’(Musa)라는 이름의 건강이 좋지 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2년 전, 그분은 제게 일주일에 3일을 자기 집에 방문해서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무사 씨는 평생 쿠란을 연구했음에도, 정작 쿠란이 모든 무슬림에게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엄숙히 권하고 있는¹⁶⁾ 경전들인 모세의 토라, 다윗의 시편, 및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에 대해서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성경의 핵심 이야기들을 탐구해 가던 중, 무사 씨는 말씀을 경청했고 어떻게 더러운 죄인들이 창조주와 심판자이신 분께 의롭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사 씨가 제게 “저는 각 단원을 마친 후에도 그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흘려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성경에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실망감이 역력해 보이는 자기 아내와 딸에게 “왜 아무도 여태껏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무사 씨의 이웃들이 그가 한 외국인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커지게 되자 이 연로한 어른은 제게 당분간 방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면서, “제가 진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가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큼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소문이 잠잠해질 때까지) 약 6주의 시간을 기다린 후, 제 아내와 저는 무사 씨 가족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깊이 생각했던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나오기 전, 그는 “중요한 것은 제가 죽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사 씨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¹⁷⁾라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4개월이 흐른 뒤, 이 사랑하는 친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돌이켜 볼 때마다, “무사 씨, 오늘 밤에 생을 마감하신다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시겠습니까?”라는 저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시죠?”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성경책을 움켜쥐고는, “제가 이것을 믿으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약속

저는 진리를 탐구하는 이 여행을 무사 씨와 같이 죽기 전에 올바른 선택을 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바치고자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게 도와주시며, 그분이 누구시고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확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13).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2

장애물을 극복하다

“알기 전에는, 무지가 당신을 죽이리라.”- 윌로프 족의 격언

약 3,000년 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세아 4:6)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비롯한 대다수는 성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습니다.

성경이 아주 오래전에 쓰인 것과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를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의 종교가 생겨남과 동시에, 성경을 무시하려는 수천 가지의 이유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이번 장과 다음 장에서 이러한 이유 중 10가지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여행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장애물들을 더 많이 만나고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10가지 ‘이유’

1. ‘신화’

세속화된 서구 및 유럽 국가의 많은 사람이 성경은 사람들을 감동시

키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화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한 데 엮은 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을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지 않았으면서도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 경’의 고전 추리소설, ‘셜록 홈즈의 유명한 사건들’에서 탐정의 동료, 왓슨 박사는 어느 특정 범죄 사건에 관해 홈즈에게 질문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추론할 수 있나?”

“난 아직 아무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네.”라고 홈즈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자료를 확보하기 전 이론을 만드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이지.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세워야 하는데, 자칫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론에 맞추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게 되거든.”¹⁸⁾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료도 없이 결론을 도출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세계관이 생활방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론에 맞추어 사실을 왜곡합니다.

2. ‘너무도 많은 해석들’

어떤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건 이것을 말하고 있어!”라고 하며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는 가정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생의 어떤 문제¹⁹⁾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결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관찰해야 합니다.

전설의 설록 흙즈도 왓슨에게, “자네는 보기는 해도 관찰하진 않아. 그 차이는 분명하지. 예를 들어, 자네는 홀에서 이 방까지 안내하는 계단을 자주 보았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얼마나 자주 보았나?” 흙즈 다시 물었습니다.

“글쎄, 수백 번은 봤을 거야.” 왓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계단은 모두 몇 개지?”

“몇 개냐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거 봐! 자네는 보기만 했지 관찰하지는 않았어! 바로 그 점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나는 17개의 계단이 있다는 것을 알아. 왜냐하면, 나는 보기도 하고 관찰도 했기 때문이지.”²⁰⁾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글귀들을 읽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말씀하는 바를 관찰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한 결과로, 사람들이 성경을 제각기 다양하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본다면,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길 원하는가?’, ‘나는 숨은 보배를 찾기 위해 기울이는 만큼의 열정과 주도면밀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솔로몬 왕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잠언 2:3-5)라고 기록했습니다.

3.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의 깃발을 앞세워 ‘신앙심이 없는 자들’을 살해했던 ‘십자군 원정’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종교재판은요?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사실, ‘기독교인’(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것에 대한 살아 있는 모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3-44).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부정직하고 술 취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놓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린도전서 6:9-11).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조각상 앞에 절하고 성모 마리아와 다른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자신이 속한 교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레위기 26:1)고 말씀하십니다.

조각상에 앞에 절하는 것이나, 사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위에 두는 것이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는 여러 형태의 우상숭배입니다. 많은 사람은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이 똑같은 종교라 생각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나 똑같지 않습니다.

‘기독교인’과 ‘개신교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마구간에 드나든다고 하여 그가 말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그저 교회 건물에 출입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위선자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위선자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성경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방종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것으로 드러난 설교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준다면 건강과 재산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기꾼들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드러내며,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디모데전서 6:5)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사리사욕을 도모하고 가식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가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마태복음 15:7-9).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5).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위선의 죄(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체하는 것)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위선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방해를 받아야 할까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에 방해를 받아야 할까요?

5. ‘인종주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특정 집단의 사람들을 다른 집단보다 더 편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거부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게 생각하는) 인종주의나 자기 민족 중심주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²¹⁾ 또 시리아의 군대장관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그의 나병을 고쳐 주신 이야기를 읽어보셨나요?²²⁾ 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선지자 요나에게 앗시리아(지금의 이라크)의 그 당시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길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²³⁾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

원하시는 이야기가 전개될 때, 페르시아(이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²⁴⁾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기피하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취급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의 메시지를 전하신 감동적인 이야기를 생각해보셨나요?²⁵⁾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종주의라는 재앙으로 몸살을 겪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에는 ‘사람’이라는 단 하나의 인종만 있을 뿐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도행전 17:24-27).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은 현대 과학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현대 과학은, “인간의 유전자 암호인, ‘게놈’은 전 세계적으로 99.99%가 일치한다. 나머지 0.1%는 눈의 색깔이나 질병에 대한 취약성 등과 같이 DNA가 만들어내는 개인적인 차이이다.”²⁶⁾ 라고 말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와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과 저를 개인적으로 돌보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길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출생에 관해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민족, 언어, 문화 및 인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6. '성경의 하나님은 살인을 허용하신다'는 생각

다음은 한 무신론자(자칭 세속적 인본주의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성경에는 “나 여호와와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며 큰 사랑과 진실을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대단한 자화자찬이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이 그분의 행동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2004년 12월에 동남아시아의 쓰나미로 거의 250만 명의 사람들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은 제게 그다지 사랑이 많은 분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소위 가나안 입성 시에, 성경의 신은 평화롭고 무고한 남녀, 아이들 심지어 아기들까지 살해하도록 허락하십니다...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제가 소위 ‘창조주’이신 분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제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혐오, 전쟁, 살인, 재앙, 가난, 배고픔, 질병, 고통, 슬픔, 비극 등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것들이 발생하지 못하게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손쉽게 그것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악을 멈추지 않으시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제가 악을 행할 때 왜 저를 즉시 저지하지 않으시나요?”라고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길 원하시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 자신을 심판하시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 인본주의 친구가 꽤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그리 간단하지

는 않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후,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죄의 지대한 영향에 직접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재앙을 허용하시거나, 심지어 그것을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원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람은 나무만 보지만, 하나님은 숲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수명이 다하기 전에’ 죽는 것을 ‘부당한’ 비극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의 시각에서 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잠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나라에서의 본행사를 준비하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²⁷⁾ 생명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생각해보세요. 이 태아가 자신의 제한된 세계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와 다른 태아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엄마 뱃속에 갇혀 있어야만 하나요? 아이들이 밖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는 이 어둡고 온통 물로 뒤덮인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것은 불공평해요! 일개 태아에 불과한 제가 창조주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태어나기 전의 아기가 이런 식으로 창조주께 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로마서 9:20).

2)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을 지탱하시는 분이로서 그것을 거두

어가실 권한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연속되는 재앙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와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던 선지자 욥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욥기 1:21-22)

우리는 이 여행을 함께 하면서, 기이하지만 지혜로운 하나님의 계획의 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²⁸⁾ 우리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또한 세상이 어찌하여 현재의 심각한 상태에 처하게 됐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3)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감히 그분께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허용하시지만, 그렇다고 악을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그분의 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공의는 무한합니다.²⁹⁾ “여호와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이사야 30:18).

만약 당신이 저의 이메일 친구처럼, ‘(당신의) 창조주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글을 계속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겸손하고 끈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신명기 29:29).

7. “하나님의 책에는 이리이러한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면, 음행, 근친상간, 대량학살, 사기, 우상숭배 및 그 같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역겨운 이야기들은 성경에 수록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에 대한 거부감을 정당화합니다. 성경의 영감과 계시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책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만 수록해야 한다고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이 역사의 틀 속에서 사람들에게 창조주를 소개하기 위한 책이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뿐 아니라 인간의 죄와 결점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기록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인간의 실패라는 어두운 배경 위에 자신의 영광, 순전하심, 공의, 자비, 및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권리가 하나님께 없을까요? 우리가 감히 전능자께 그분 자신과 메시지에 대해 이것은 계시하고 저것은 계시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 있을까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이사야 29:16).

성경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나 인정하지 않는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선한 일로 바꾸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감명 깊은 이야기(창세기 37:50)를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의 열 명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학대했으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

버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로 이러한 역경을 통해서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고, 그의 형제들과 이집트 사람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굶주림에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형들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킨 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세기 50:20).

8. ‘모순으로 가득하다’는 생각

많은 사람은 성경이 모순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 누군가가 한 말만 듣고 무턱대고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어떤 책을 여기저기 대략 훑어보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위대한 책을 단지 인쇄상의 오류나 본문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읽는 것이 합당한 태도일까요? 물론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한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어떤 웹사이트에서 복사해 온 ‘성경의 오류와 모순으로 오해되는 사례의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당신의 성경은 자체로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

-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고, 그러고 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창세기 1:3-5).

밤과 낮을 구분하는 태양은 넷째 날까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창세

기 1:14-19).

●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바로 그날 즉시 죽어야 했습니다(창세기 2:17). 그러나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창세기 5:5).

●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요한복음 3:17, 8:15, 12:4). 예수님은 심판하십니다(요한복음 5:22, 27-30, 9:39, 사도행전 10:42, 고린도후서 5:10). 기타 등등...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제가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제 머리로 생각해 본 뒤 받아들이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눈을 딱 감고 머리로 아무런 질문도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책에 그렇게도 많은 오류를 남기시는 것이 가능한지 자꾸만 스스로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원문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이사야 1:8)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 묻고 제 머리를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초대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모순’ 목록을 복사해서 붙이기를 하는 식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잠언 14:15)고 말했습니다.

이 이메일 친구가 제기한 ‘성경의 모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³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인생은 너무 짧고 영원은 너무도 길어서 우리 스스로 성경을 정직하게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맛있고 과즙이 풍부한 망고를 먹어 보셨다면, 누군가에게 그 맛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맛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당신에게 이러쿵저러쿵해준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맛보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편 34:8).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디모데후서 2:15) 사람이 되는 것은 자신의 영원에 속한 문제입니다. (모순이 있다고 말하는 단락 전체의) 문맥에 주의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판단하라고 명령합니다.³¹⁾ 이 성경 구절은 상호 모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책은 지식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려는 마음으로 타인의 동기나 행동을 판단(비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분별)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모순으로 생각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든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랄 때까지는 한 가지 모순이 해결되기 무섭게 또 다른 새로운 모순을 찾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³²⁾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책에 다가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책 별로 공부해보세요. 읽은 부분을 스스로 해석하는 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선지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그 자체로 최고의 주석서입니다.³³⁾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다니엘 2:22).

9. “나는 신약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생각

얼마 전, 저는 한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저는 신약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약성경만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새로 편집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문 그대로)

수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이메일을 보낸 분도 하나님의 책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는 말은 그것이 ‘편집되고 다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되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역사 속의 사건은 발생한 날짜를 통해 참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아브라함의 출생은 BC 200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뉴욕의 쌍둥이 빌딩의 붕괴는 AD 2001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³⁴⁾ 세계 역사는 크게 BC와 AD,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님의 책도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구약성경)과 새 언약(신약성경)이 있습니다. 언약(Testament)이란 두 계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이자, 법적 계약서 내지는 서약서를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³⁵⁾ 이제 성경의 이 두 부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여행하는 동안 이 두 부분이 가진 목적과 힘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제1부 :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성경은 (토라라고도 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누가복음 24:44)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넘도록 몇몇 선지자들에게 전달하신 이 글들은 아담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페르시아 제국 시대(BC 400년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에 개입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성경은 세상의 종말까지 이어진 시간의 경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수백 가지의 역사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들을 미리 선포합니다.³⁶⁾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BC)에 사람들과 세우신 언약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선택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장차 일어날 핵심적인 사건들을 예언함으로써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가리켰습니다. 옛 언약에는 이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 31:31).

제2부 : 신약성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복음서’(또는 ‘복된 소식’)을 의미하는 아람어 ‘인질’-Injil)이라고도 부릅니다. AD 1세기 동안 8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의해 쓰인 신약성경은 메시아께서 처음 세상에 오신 것을 기록합니다. 또한, 신약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영적 의미를 풀어주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그 모든 예언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예언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메시아의 초림(AD)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 성경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수백 가지의 핵심적인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성경은 메시아가 지상에 재림하실 날을 내다보고 예언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메시아께서는 “내가 올법이 나 (구약)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마태복음 5:17)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은 구약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성경에서 발전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책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우리로 듣고 이해하길 바라시는 그분의 메시지로 안내합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신 여성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새 시대에 맞게 편집하거나 교정할 수 없다”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될 수 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0. ‘변질되었다’는 생각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거나 믿지 못하게 하는 9가지 장애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슬림 친구들에게서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반론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흐메드의 이메일에 다음과 같이 이미 표출되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제가 믿고 아는 바는 성경의 모든 책이 조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성경의 대부분은 거짓이며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흐메드의 말이 옳은가요? 성경 원서는 변질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3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선지자
이사야 (이사야 40:8).

아래의 이메일들은 세계의 네 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을 요약
한 것으로서, 전 세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가진 생각을
잘 표현합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믿습니다. 다만 원본으로 된 것만 믿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당신이 들고 있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말씀에는 그 단어들이
원본과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성스러운 쿠란에
는 해가 지나도 말씀이 항상 불변합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당신의 성경은 변질된 문자로서, 당신의 병적 신앙에 끼워 맞추려

고 원문을 교정, 추가 및 재편집한 것입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저는 성경이 수 세기, 심지어 천년을 지내는 동안 변질되었고, 신약성경은 전체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바울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낸 완전히 사사로운 책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제게 성경을 인용하시는 것은 단순히 타자 치거나,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하는 식의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 모든 주장은 타당할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전에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성경을 유한한 인간이 변질시키고 조작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무슬림에 대한 개인적인 말

저는 존경하는 무슬림 독자에게 직접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시다시피 쿠란은 성경, 즉 토라(Tawret), 시편(Zabur), 및 복음서(Injil)가 우리의 ‘안내자와 빛’(수라 5:44-51)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쿠란은 또한 “너(무함마드)에게 우리(알라)가 진리의 성서(쿠란)을 보내노니 이는 그것보다 앞서 온 성서(성경)를 확증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이니라”(수라 5:48)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낸 사자는 우리가 영감을 준 인간일 뿐이니라.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성경)을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라”(수라 21:7)고 말합니다. 쿠란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사자들과 함께 보낸 이 책과 계시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불못에서 고통을 받으리라”(수라 40:70-72)고 경고합니다.

쿠란은 반복적으로 성경의 책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쿠란이 말하는 것입니다.³⁷⁾ 이러한 쿠란의 선언은 모든 면에서 무슬림들에게 심각한 딜레마를 초래하는데, 왜냐하면, 성경과 쿠란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개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무슬림들이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단정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결론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움을 준 질문들입니다.

주로 무슬림을 위한 질문

- 하나님이 자신의 성경을 보호하실 '능력'이 있을까요?
-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까요?
- 만약 당신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이 변질되었다고 믿는다면, 언제 변질되었나요?
 - 어디에서 변질되었나요?
 - 누가 변질시켰나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경했다고 믿는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었던 이 신성한 책을 왜 변경했을까요?³⁸⁾
 -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 왜 전능자께서는 인류를 위해 자신이 남기신 기록과 계시를 유한한 인간이 변질시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 만약 하나님께서 인간이 모세와 다윗과 같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책들을 변질시키도록 허락하신다면, 당신이 믿는 쿠란이 이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았음을 무슨 수로 확신할 수 있나요?

이 글을 쓰는 것은 질문으로 누군가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

이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것에는 영원한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 당신은 성경이 쿠란이 전해지기 전에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쿠란이 전해진 후에 변경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글을 계속 읽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읽기 전에, 당신은 자신의 대답을 쓰고 싶으실 겁니다.

쿠란이 기록되기 전인가요?

성경의 원문이 쿠란이 기록되기 전에 변질되었다고 대답하신다면, 쿠란은 왜 성경을 인류를 위한 속임수가 아니라 ‘안내자’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선언하고 있나요? 왜 쿠란은 “복음서의 사람들은 알라께서 복음서 안에 계시하신 바에 따라 판단할지어다.”(수라 5:46-47)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왜 “알라의 말씀은 변할 수 없도다.”(수라 10:64)라고 선언하고 있나요?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생각한다면, 왜 쿠란은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계시한 말씀에 의심이 생긴다면 네 앞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수라 10:94 Shakin)³⁹⁾고 하며, “네가 진리의 사람일진대 율법(토라)을 가져와 연구할지어다.”(수라 3:93)고 명령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혀로 이 책을 왜곡했다”(수라 3:78)는 정죄를 받았을지언정, 성경 자체는 변질되지 않고 온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쿠란이 기록된 후인가요?

반대로, 성경의 원문이 쿠란이 기록된 후에 변질되었다고 대답한다면, 오늘날 통용되는 성경이 쿠란보다 여러 세기를 앞선 고대 사본으로부터 번역됐다는 사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쿠란이 처음 낭독되기 전에 성경은 이미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보급되어 있었고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고트어, 에디오피아어, 아르메니아어⁴⁰⁾ 등의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도 유명하고 그렇게도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수십만 부로 인쇄되어 문명 세계 전역에 빠르게 보급된 책을 어떻게 한 집단의 사람들이 함부로 손댈 수 있었을까요? 무수한 번역본들과 원문의 모든 사본을 수집하고 나서, 오늘날 이러한 번역본들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일일이 수정하려 한다면 어떠할까요? 이 작업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명료합니다.

- 성경이 쿠란이 기록되기 ‘전에’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쿠란의 여러 구절들에 기술된 내용과 모순됩니다.⁴¹⁾
- 성경이 쿠란이 기록된 ‘후에’ 변질되었다는 주장은 수많은 고대의 원고가 뒷받침하고 있는 역사적이고 고고학적인 증거들과도 모순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또다시 새로운 의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많은 성경 필사본과 번역본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요? 성경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원본과 그 ‘후예들’

책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물건은 낡아지고 헤어집니다. 성경도 예외

가 아니므로, 원본(‘자필 원본’이라고도 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기록한 원본에서 복제되어 ‘내려온’ 수많은 고대 필사본은 전 세계 박물관과 대학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토라와 복음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저서, 내지는 훨씬 더 최근에 기록된 쿠란⁴²⁾ 등의 모든 문서의 원본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고대의 모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원본의 ‘후예들’만 남아있습니다.

세네갈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성경이 위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그리오’는 믿습니다. ‘그리오’란 자신의 가족, 종족, 및 마을의 족보와 구전의 역사를 암기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전 역사가입니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비교적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리오의 재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는 그리오의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정확성과 세부성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구전을 통해 사람 중에 진리를 보존하는 방법은 글로 써서 남기는 방법에 비해 정확성 면에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사람의 입으로 전달된 증언은 신뢰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록된 증거는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지혜의 행동일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한일서 5:9-10).



두루마리와 학사들



성경은 종이, 인쇄기술 및 컴퓨터가 개발되기 오래전에 쓰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원본 두루마리는 학사들의 손으로 복제되었습니다. 학사들은 법률 문서들을 읽고, 기록하고, 작성하고 복제할 수 있었던 고대의 저명한 문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 중 몇몇 사람들이 성경 문서를 복제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성경을 100% 정확하게 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사들은 성경 두루마리의 끝부분에 이 책에 사용된 단어의 총계를 표기했고, 또 어떤 단어가 정 중앙에 위치하는지 명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후에 다른 학사들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글자 수를 세어서 어느 한 단어도 빠뜨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⁴³⁾

이러한 그들의 극히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복사하다 보면 미미한 차이가 발견되곤 했습니다. 그것은 단어, 구, 또는 단락이 생략되거나 잘못 복제된 경우였습니다.⁴⁴⁾ 그러나 고대 필사본 중에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근본 진리가 변질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문건이든 신성한 문건이든, 고대문서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소한 복사 상의 실수는 학사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가 이 필사된 문서에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의도적으로 변질되지 않았음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역사적으로 쿠란은 ‘완벽한 사본’ 하나만 남기고 모두 불태워 버렸지만, 성경의 역사에는 그 누구도 성경 원본에 대한 ‘완벽한 사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⁴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메시지를 보존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경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것과 실제로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해 사본

최근까지 (BC 1,500년과 400년 사이에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구약성경의 사본은 AD 9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에 오랜 세월의 간격이 있으므로, 그리고 이 성경의 본문이 수 세기 동안 복사와 재복사를 거듭했기 때문에, 비평가들은 선지자들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⁴⁶⁾

그러던 중 사해의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 발견된 해 : 1947년
- 발견된 장소 : 사해 부근의 쿰란 동굴 유적
- 새 소식 : 베두인족의 한 양치기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던 중 한 동굴에서 여러 개의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기록된 수많은 두루마리 문서가 담겨있었습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225개 이상의 성경 필사본이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들이 BC 250년부터 AD 68년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필사본의 대부분은 2,000년도 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인가요!

이들 두루마리는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해인) AD 70년경 예세네파로 알려진 한 유대인 무리가 쿰란 여러 동굴에 감추어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개인 신상에 해를 입지라도 이 기록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되어야만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세계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동안 성경은 보존

되었습니다. 거의 1,900년 동안, 파피루스와 양피지 두루마리는 사해 지역의 건조한 기후 조건 아래에 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이는 문서를 보존하는 데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이 고대문서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것이 천년 후에 탄생한 더 최근의 필사본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변했다!”는 주장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회의론자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자와 문법에서의 근소한 차이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이 고대문서에는 현대의 성경과 같은 말씀과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성경이 손을 댄 흔적이 있거나 변경됐다는 견해에 관해 사해 두루마리 학자들이 내세우는 공식적인 의견은 무엇인가요?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로 보아 이러한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⁴⁷⁾

역사상 가장 잘 보존된 책



사해 사본 BC 250 - AD 68



이전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구약성경의 사본 AD 900



오늘날의 성경
변질되지 않음

신약성경만 봐도, 24,000개 이상의 고대 필사본이 있는데, 여기에는 헬라 원어로 기록된 5,300개 사본이 포함되며 AD 6세기 이전에 기록된 것도 230개나 됩니다. 이로 보아 신약성경이 역사상 가장 잘 문서화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BC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들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철학과 논리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적은 수의 필사본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가장 오래된 문서는 원본이 기록된 때부터 약 1,400년이 지난 AD 1,100년에 기록된 사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과 가르침이 진짜인지, 혹은 그대로 보존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수천 개의 신약성경 필사본 이외에도, 학자들은 AD 325년(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성된 신약 필사본의 기록 연대)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 아닌 문서에서도 신약성경이 수천 번이나 인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인용문은 아주 방대하여 이 문서들만 활용하여 재구성하여도 신약성경 전체를 꾸릴 수 있다고 합니다.⁴⁸⁾

이러한 증거는 신약성경이 고대문서 중에 가장 잘 보존된 문서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성경?

아마도 여러분은, “그런데 성경도 종류가 너무도 많은 거 같아요! 어느 번역이 진짜인가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대 성경 필사본과 그것의 다양한 번역본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필사본은 오래전, 쿠란이 있기 수 세기 전에 학자들

이 베껴 쓴 것입니다. 오늘날 인쇄된 성경은 이러한 고대 필사본으로부터 번역한 것입니다.⁴⁹⁾ 전체로든 부분적으로든, 성경은 원어(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에서 2,4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언어 중의 하나가 영어입니다.

성경은 ‘역본’(version)이라고 말하는 여러 가지 훌륭한 성경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각 영어 버전은 조금씩 다르게 읽히는데, 이는 어떤 글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마다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번역가마다 선택하는 단어들 다 다를 수 있지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면, 그 의미와 메시지는 동일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NKJV(New King James Version) 번역본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영어로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도 자주 인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절을 두 가지 버전으로 번역한 예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NKJV의 한글 직역: “또한,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얼굴을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마태복음 6:16)

- NIV의 한글 직역: “너희가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우울하게 보이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금식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충분히 받았느니라”(마태복음 6:16)

사용된 글귀는 다양하더라도 그 의미는 같습니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 조작했다는 주장을 가장 잘 반박하는 것은 아마도 세계 곳곳에 있는 모스크에서 온종일 울려 퍼지는 이 소리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Alla-hu Akbar! Allaaaaa-hu Akbar!”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십니다.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세대의 시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모든 세대를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지탱자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저자이시면서 보호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시편 119:89).

끊이지 않는 장애물들

이 시점에서 이 여행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모두 극복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로 가는 길에는 항상 장애물들이 잇달아 나타날 것입니다.⁵⁰⁾ 최근 저는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버전이 있지 않나요? 어느 것이 정확한 버전인가요? 세상에 종교가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종교가 없었다면 쌍둥이 빌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요? 기독교가 그 수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당신이 믿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죠? 왜인가요? 그 많은 설교자가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신화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했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책이 인간의 가장 어려운 질문들에 만족스러운 해답을 주긴 하지만, 사람이 죽음 이편에서 영원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왜'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기피하는 진짜 이유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여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타락한 마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소유주이신 분을 알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이유로 성경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영혼)을 평가할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자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시편 14:1-3).

인간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의 부패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인간의 부패한 마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전도서 7:29)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를 천성대로 내 버려 두면, 우리는 각기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우며 우리 부모들의 종교에 따라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한 여행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왜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책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태복음 13:9)⁵¹)라고 반복적으로 경고하신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2. 염려와 재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관심이 온통 현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마태복음 13:22)라는 말씀대로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평생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무시했던 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성경이 신뢰할 수 없는 책이라고 주장함으로 자기의 양심을 스스로 위로하려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시기 위해 이 사람으로 하여 낙원에 있는 선지자 아브라함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자는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으나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영원히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아브라함에게 다시 애원합니다. 누군가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어 아직 살아 있는 다섯

형제에게 보내서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 달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또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누가복음 16:27-31).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기록한 말씀이 그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사보다 그분의 진리를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보존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3. 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두려워해서 성경공부를 거부합니다.

저의 이웃 한 분이 제게 “제 가족들만 아니어도 성경을 읽어 봤을 겁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잠언 29:25)고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바로 그 선지자들의 글을 당신이 읽다가 그들에게 발각되면,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당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할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의 메시지를 무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4

과학과 성경

“그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 선지자 욥 (욥기 26:7).

몇 년 전, 저는 아내와 함께 땅속 깊은 동굴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여행가이드는 인상적인 암반층과 종유석과 석순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 한 방울로 시작되었습니다. 3억3천만 년 전, 얇은 내해가 이 지역을 덮쳤고 퇴적층을 형성하여 그것이 결국 석회암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그 가이드의 말은 마치 사람이 시작부터 그곳에 서서 관찰한 것처럼 너무도 과학적으로 들렸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동안 선지자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메아리쳤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욥기 38:4).

관광이 끝날 때 저는 안내를 도와준 가이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동굴이 수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지질학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그들도 잘 모릅니다.”라고 시인 하면서, “저도 교육받은 대로 여러분에게 말했을 뿐입니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참된 과학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지식’을 의미하는 라틴어 명사, ‘scientia’(사이언티아)에서 왔습니다.⁵²⁾ 라틴어의 동사 ‘scire’(사이어)는 ‘알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알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로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과학자가 ‘가설’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과감하게 붙일 수 있을진 몰라도, 그렇다고 그것이 과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970년대 중반, 파이살 왕의 주치의, 프랑스 의사 ‘모리스 뷔카유’는 ‘성경, 쿠란, 과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무슬림 전역의 서점과 모스크에 대대적으로 소개된 이 책은 성경이 현대 과학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뷔카유는 성경의 첫 장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인간의 변천 이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신화에서 번역됐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⁵³⁾ 다른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뷔카유는 진화론⁵⁴⁾을 참된 과학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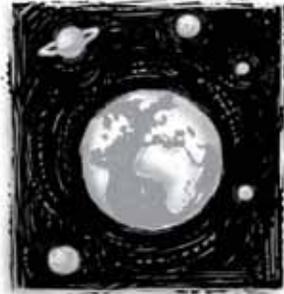
성경이 물리적인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과학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려 주시려고 자신의 책,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연구소에서 발견되거나 검증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삶의 모든 측면을 다루고 있어서,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자연 세계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다.

현대의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오래전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한 일곱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뒤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여행하면서, 성경에 있는 다른 놀라운 과학의 예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 둥근 지구

최신의 역사책들은 BC 500년의 그리스인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이론화시켰고…그리스 철학자들도 구형이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구가 구형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가르칩니다.⁵⁵⁾ 하지만 천년 이상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선지자 욥은 이미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인 수면에 (원형) 경계를 그으셨다”(욥기 26:7,10)고 선포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보다 4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형) 궁창을 해면에 두르신다.”(잠언 8:27)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BC 700년, 아직 그리스 철학자들이 태어나기 2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원형) 땅 위 궁창에 앉으신다.”(이사야 40:22)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circle)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sphere)나 ‘원형’(roundness)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먼저 말한 분은 누구인가요? 그리스인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구의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2. 물의 순환

또 욥의 책은 물의 순환을 묘사합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렛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욥기 36:27-29).

따라서 성경은 우선 수분이 수증기가 되고 구름 속에서 미세한 물방울로 응축된 다음, 상승 기류에 견딜 수 있을 만큼 큰 물방울로 뭉쳐져서 대기 중 떠 있게 된다는 ‘비의 순환’을 묘사합니다. 욥도 구름 속에 응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언급합니다.

“그는 물을 뿜뿜한 구름에 싸사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 26:8).⁵⁶⁾

3. 같은 혈통

3,500년 전, 선지자 모세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창세기 3:20)고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한 어머니로부터 출생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1987년까지 이 사실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연구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태반에서 추출한 미토콘드리아 DNA(어미로부터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 인간의 유전자 코드 부분)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마친 후, 오늘날 모든 인간이 같은 한 명의 여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⁵⁷⁾

그로부터 몇 년 후, 연구가들은 모든 인간이 같은 한 명의 남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⁵⁸⁾ 그들은 자기들이 연구를 위해 투자한 모든 노력과 비용이 성경의 정확성을 입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4. 생명의 피

모세는 또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레위기 17:11)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은 의학계가 거의 최근에 이해한 사실입니다. 19세기까지 의학계에서는 잠재적으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혈’ 기법을 실행했습니다.⁵⁹⁾

5. 늪어가는 지구

3천 년 전, 선지자 다윗은 이 땅이 언젠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시편 102:26)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현대 과학은 지구가 느려지고 있고, 자기장이 붕괴하고 있으며, 보호 오존층이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6. 해양학

다윗은 또한 “바닷길”(시편 88)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이 해류를 발견하고 문서화 하는데 자신의 생애를 바치도록 해군 장교, ‘매튜 F. 모리’(1806-1873년)에게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이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모리’는 그대로 실천했고 결국 “해양학의 아버지”로 명망을 떨치게 되었습니다.⁽⁶⁰⁾

7. 천문학

거의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고린도전서 15:41)라고 기록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모든 별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집된 정보와 빛의 스펙트럼 분석을 바탕으로 천문학자들은, “별들은 색상과 밝기에서도 매우 다르다. 어떤 별들은 태양처럼 노란색을 띠지만 다른 별들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빛난다.”⁽⁶¹⁾ 또는 “각각의 별들은 독특하다.”⁽⁶²⁾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울은 AD 1세기에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맹신인가?

이외에도 ‘성경 속의 과학’에 대하여 인용할 수 있는 예들이 많이 있지만, 이 7가지 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비록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 성경이 과학에 대해 말할 때마다 정확하고 참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것을 ‘맹신’으로 치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에 기초한 지성적인 믿음일까요?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일관성 있게 맞아떨어지고 있고, 심지어 성경이 우리가 완전히 설명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할 일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가당착에 빠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사도행전 1:3)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며, 하나님의 책에 대한 신뢰성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

우리는 앞 장에서 구약과 신약성경이 가장 잘 보존된 고대문서임을 증명하는 몇 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포함된 실제적인 정보는 어떻습니까? 그 정보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성경은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역사적인 인물, 장소, 또는 사건의 명칭을 나타내기 때문에 학자들과 회의론자들에게 그것의 정확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수천 번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사학, 지리학, 고고학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수 세기 동안, 많은 사람은 성경의 역사적인 정확성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 회의론자 중 하나는 세계의 위대한 고고학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미첼 램지 경’(1851-1939)이었습니다. 램지는 대학생으로서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은 점차 그의 생각을 바꾸어놓았고 30년간의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최고의 역사가이다. 사실에 대한 그의 진술은 단순히 신뢰할 만한 가치를 넘어서다...이 저자는 최고 역사가들의 대열에 올라

야 한다.”⁶³⁾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 두 성경책에는 수많은 역사적 인물과 사건 뿐 아니라 95개의 지리적인 위치(32개국, 54개의 도시, 9개의 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누가가 기록한 글과 고고학, 지리학, 및 성서 외의 역사가 밝혀낸 사실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지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할 뿐이었습니다. 누가의 글들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한 문장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문구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누가복음 3:1-2).

누가의 말은 옳았을까?

위의 한 문장에 나타난 많은 이름과 상세한 정보를 보면, 자연스럽게 “누가의 말이 정확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앞서 인용된 성경구절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네 명의 인물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가는 로마 황제 ‘디베료’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합니다.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이었을까요? 또 그들은 같은 시기에 통치하고 있었을까요? 1961년, (누가가 사도행전 12:19-24에서도 언급한) ‘가이사랴의 복원된 헤롯의 극장 지역에서 1미터 높이의 비석이 발견되

었는데, 거기에는 디베료가 황제였을 때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이었음을 확인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성경적 역사가였던 ‘요세푸스’(AD 37-101)도 이와 같은 사람들, 장소들, 및 사건들을 기록하였습니다.⁶⁴⁾

누가는 옳았습니다.

누가도 루사니아를 시리아의 한 지방, 아빌레네의 분봉 왕(공동 총독)으로 언급합니다. 다년간 학자들은 이 추정된 사실상의 오류를 이용해서 누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에게 알려진 루사니아는 그리스에 있는 칼키스 시의 지배자였고 그는 누가가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기 약 60년 전에(AD 27년경)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시리아 아빌레네의 분봉 왕 루사니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AD 14년과 29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명문(銘文)이 다메섹 인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봉 왕 루사니아’⁶⁵⁾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루사니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성전에서 공동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1990년 12월, 옛 예루살렘의 남부 접경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던 인부들은 가야바 가족의 무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즉시 이 현장에 소환되었습니다. 이 무덤에는 12개의 납골 단지(석회석 뼈 상자)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아름답게 장식된 납골 단지에는 ‘가야바의 아들 요셉’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의 정식 이름이었습니다.⁶⁶⁾ 이 상자 안에는 60세 남성의 유품이 있었는데, 이는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가야바의 것으로 거의 확실시되는 물건이었습니다.⁶⁷⁾

누가의 옳았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넬슨 글루엑’이라는 저명한 고고학자는 다음과 같이 관찰했습니다. “어떤 고고학적 발견 중 성경의 내용과 모순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진술이 사실임을 분명한 개요와 정확한 디테일로 확인해 주는 고고학적 조사결과가 많이 나타났다.”⁽⁶⁸⁾

세계의 종교가 숭배하는 다른 어떤 책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학적 발견은 몰몬교의 경전이 역사와 지리에 맞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⁶⁹⁾

휘튼 대학의 고고학과 학장인, 고고학자 ‘요셉 프리’는 자신의 저서 ‘고고학과 성서 역사’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필자는 창세기를 훑어가면서 50개의 각 장이 고고학적 발견으로 밝혀지거나 확인됐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다. 신구약성경의 나머지 장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⁷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

참된 고고학적 자료가 정확한 역사적 문서로서 성경의 신뢰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잘라 말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고고학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증명해 주진 못합니다. 또 인상적인 과학적 진술이 성경에서 발견되긴 하지만, 어느 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과학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성스러운 책이 과학적인 진술을 담고 있으므로 자기들의 경전이 야말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진리는 과학적인 발견으로 증명될 수 없고, 또 어떤 책이 과학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는 사탄도 과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게 될 성경 여행의 초반부에서, 우리는 예전에 하늘의 천사였으나 지금은 ‘사탄과 ‘마귀라고 불리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탄이 매우 영리하고 또 그가 인간에게 영감을 주어 감명 깊은 글들을 쓰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를 쓰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자연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영인, 사탄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습니다’(에스겔 28:3). 마귀는 거짓된 종교의 배후를 조종합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마귀’라는 용어 자체는 ‘고소자’ 또는 ‘중상자’를 의미합니다.

아랍 속담은 이러한 위험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조심하라! 어떤 거짓말쟁이는 진리를 말한다!”

시(詩)가 증명하지 못하는 것

어떤 종교는 그들의 책이 인간으로서는 쓸 수 없는 양식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들의 경전(經典)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합니다.⁷¹⁾

아흐메드가 보낸 이메일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쿠란은 한 선지자에게 보낸 기적 중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좋습니다. 쿠란의 말씀 구절 중 아무것과 유사하거나 가까운 구절을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아무리 높은 수준의 아랍어에 능통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쿠란의 위대함에 견줄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일 당신이 반대 입장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한번 해 보십시오.

아흐메드의 도전은 쿠란의 두 번째 수라(제 2장)에서 발췌한, “우리가 우리의 종(무함마드)에게 이따금 계시한 것에 대해 너희에게 의심이 생기거든 그것과 같은 쿠란의 수라(장)를 하나라도 만들지니…”(수라 2:23)라는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놓인 문제점은 그것이 옳음을 증명할 수도 없고 틀렸음을 증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술경시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제 그림을 전시하고 또 심사위원의 역할도 맡으면서 저를 우승자로 지목하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아무도 나처럼 그림을 그릴 수 없지요. 제가 세계 최고의 화가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제가 그린 그림과 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도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제 그림이 최고의 그림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이것으로 제가 세계 최고의 화가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잘못됐다고 증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아름다움이란 보는 자의 눈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음악적, 문학적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놀랍도록 아름다운 히브리어 시가와 경탄할 정도로 뛰어난 숫자적 패턴이 풍부합니다.⁷²⁾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그분의 말씀을 믿도록 기대하시는 것은 그러한 문학적 화려함 때문이 아닙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영감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답게 들리는 산문시가 있다고 해서 그 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능숙한 표절자이자 모방자인, 사탄도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와 '자랑하는 말'(크게 부풀린 말, 유다서 16절)에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교활한 말과 아침하는 말"(로마서 16:18)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특히, 이런 말들이 태초부터 알려진 창조주의 계획과 메시지에 반대될 때에는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과학도, 고고학도, 시도 어떤 책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이러한 증명은 좀 더 높은 법적 판단, 즉 더 강력하고 반론의 여지 없는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증거입니다.

5

하나님의 서명

“열방이…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 하나님 (이사야 43:9).

대부분의 법적 문서는 공식적인 서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인된 기록과 언약으로 선포되는 구약과 신약성경은 펜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고 불리는 완전히 차별화된 방법으로 서명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이사야 44:6-7, 45:21).



하나님의 논리를 오해하지 맙시다. 우리가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선포하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성취된 상세한 예언이 성경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 증거

시간 밖에 존재하는 분만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알리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때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 자기가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추측할 순 있어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미래의 어떤 사건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지금으로부터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간도, 천사도, 악령도, 사탄도 미래의 사건을 권위 있게 예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무당, 주술사, 점쟁이는 어떻습니까? 그들도 미래를 예견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째, 사탄이 ‘그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을 행하게 된’(디모데후서 2:26) 사람들에게 외계의 지식과 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수천 년간 인간의 역사를 관찰해 온 전문 모방자이자 심리학자인 사탄은 하나님의 ‘서명’을 위조하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셋째, 마귀가 어떤 사건이 나타날 방식을 예견하는 일에 상대적으로 능숙하긴 해도 미래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의 ‘예언’은 종종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그것은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는 한 젊은 여성에게 “너는 앞으로 수년 내에 결혼해서 참된 사랑을 찾게 될 것이야.”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높아 그러한 ‘예언’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모호한 예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적 예언의 세 가지 예인, 장소, 민족,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장소에 대한 예언

BC 600년경, 선지자 에스겔은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 '두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레바논 해안에 위치한 두로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바다의 여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절정의 위력을 과시하고 있을 즈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도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죄악과 교만으로 두로가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상세하게 선포하고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1. 여러 민족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에스겔 26:3).
2.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일 먼저 공격할 것이다(7절).
3. 두로의 성벽과 망대를 헐 것이다(4, 9절).
4. 두로의 백성은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11절).
5. 이 도시의 돌들과 재목과 흙이 다 물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12절).
6. 그것은 '티끌이 그 위에서 쓸려 맨 바위가 될 것이다'(4절).
7. 그것은 '바다 가운데에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5, 14절).
8. 위대한 도시, 두로는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14절).

세계 역사는 이 여덟 가지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1. 여러 민족이 두로로 쳐들어 왔습니다.
2. 첫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바벨론이었습니다.
3. 13년간의 포위 끝에(BC 585-572년), 느부갓네살은 본토 두로의 성벽과 망대를 무너뜨려 에스겔의 첫 번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4. 느부갓네살은 지중해로 약 1킬로 떨어진 두로의 피난 섬으로 도망

갈 수 없었던 거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5. 세계 역사는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은 첫째로 두로의 섬 지역을 정복했다. 그는 도시의 본토 지역을 멸망시켜 그 돌들을 사용해서 이 섬에 연결되는 길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⁷³⁾ 따라서 그는 ‘휩파된 도시에 채취한 돌들을 바다에 던짐’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 예언의 또 다른 부분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정복은 페니키아 제국의 영원한 멸망을 가져왔습니다.⁷⁴⁾
6. 이 도시는 티끌이 쓸려나가 ‘바위의 머리처럼’ 매끄러워졌습니다.
7. 그것은 ‘그물을 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8. 이후 몇 년 만에 두로를 재건하기 위한 큰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너지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두로’라 이름하는 현대적 도시가 있긴 하지만, 에스겔이 예언한 이 고대 페니키아의 도시는 다시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에는 돌로 포장된 도로의 사진과 함께 그 아래에 이러한 표제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페니키아인들의 두로 시는 이 도로를 닦은 돌들과 로마의 한 주요 도시를 떠받치던 기둥들 아래에 묻혀 있다. 조금만 파고 들어가 보면 잃어버린 페니키아인들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한 인간에 불과한 에스겔이 자신의 지혜로 ‘두로’라는 도시에 관해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 8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높은 확률이 필요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만 에스겔에게 이러한 정보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한 민족에 대한 예언

성경에는 이집트, 에디오피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러시아, 이스라

엘 등 수많은 민족과 나라에 대한 수백 가지의 정확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다음의 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이러한 예언을 조장하거나 정치적, 종교적 현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성경이 선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특정 민족에 관해 성취된 예언 중, 해석하기는 쉬우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BC 1920년경,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창 12:7)고 약속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같은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⁷⁶⁾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처음에는 ‘히브리인’으로 불렸고,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유대인’으로 불렸습니다.

수백 년 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흠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레위기 26:33).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 거리가 될 것이라…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신명기 28:37, 65).

구약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예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D 30년경, 선지자들의 말을 확증하시기 위해 나사렛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누가복음 19:41-44).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 자체에 대해 말씀하실 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누가복음 21:6)고 예언하셨습니다. 40년 후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D 37년에 출생한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자신의 눈으로 본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이 도시 주위에 독을 쌓았으며, 3년간 포위한 후 그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렸다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저도 자신의 군병들에게 이 위대한 성전을 남겨둘 것을 명령했지만, 격분한 로마 군병들은 그것에 불을 놓았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이 성전을 장식하고 있었던 금과 은은 모두 녹아서 돌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⁷⁷⁾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이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후 2,000년 동안, 방황하는 유대인들이 ‘살 곳이 없이 모든 민족에게 속담과 비방거리’가 됨에 따라 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역사가 목격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 어떠하든, 이 성경적 예언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모든 확률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구별된 하나의 민족으로 보존될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

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신명기 30:3)라고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아모스 9:14-15)고 예언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뉴스 네트워크는 이러한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일어난 일은 세계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은 ‘동화(同化)의 법칙’을 직접 거스릅니다. 이 법칙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정복될 때마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 중에 흩어진 생존자들은 불과 몇 세대 만에, 그들이 정착한 민족과 동화되곤 합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 통혼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들과 섞이고 그들을 흡수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⁷⁸⁾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다시피 많은 사람에게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최근 레바논에 있는 한 친구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유대 민족을 본토로 돌려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예언의 성취와 관련해서, 저는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함축된 의미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저의 대의(大義)에 어긋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논점을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한 민족으로 생존한 것과 회복된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

엘 정부의 정책들을 지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이 레바논 친구를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1948년, 그의 어머니의 가족과 이웃이 다른 많은 사람과 함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나라는 심한 국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논점은 바로 이렇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사건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대부분이 자기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고린도후서 3:15).

한민족으로서 그들은 장차 회개하고(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오랜 메시지를 믿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들어갈 것입니다.⁷⁹⁾

우리는 성경을 여행하는 거의 마지막 여정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어떻게 들어맞는지를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중동과 전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간직하신 축복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예레미야 29:11).

한 인물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수백 가지의 예언은 구약성경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해 문서는 이 성경이 메시아가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음을 확인해줍니다.

다. 이 예언 중 몇 가지 예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BC 1900년,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 :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보를 통해 세상에 오실 것이다**(창세기 12:2-3, 22:1-18. 성취 : 마태복음 1장).
- BC 700년, 이사야를 통한 예언 : **그는 생물학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없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이사야 7:14, 9:6. 성취 : 누가복음 1:26-35, 마태복음 1:18-25).
- BC 700년, 미가를 통한 예언 :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미가 5:2, 성취 : 누가복음 2:1-20, 마태복음 2:1-12).
- BC 700년, 호세아를 통한 예언 : **그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것이다**(호세아 11:1. 성취 : 마태복음 2:13-15).
- BC 400년, 말라기를 통한 예언 : **사자를 메시아에 앞서 보내실 것이다**(말라기 3:1, 이사야 40:3-11. 성취 : 누가복음 1:11-17, 마태복음 3:1-12).
- BC 700년, 이사야를 통한 예언 : **그는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들을 듣게 하며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이사야 35:5-6. 성취 : 누가복음 7:22, 마태복음 9장 등).
- BC 700년, 이사야를 통한 예언 : **그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실 것이다**(이사야 53:2-3, 시편 118:21-22. 성취 : 요한복음 1:11, 마가복음 6:3, 마태복음 21:42-46 등).
- BC 500년, 스가랴를 통한 예언 : **그는 밭을 사는데 사용될 은 30에 배신당하실 것이다**(스가랴 11:12-13. 성취 : 마태복음 26:14-16, 27:3-10).
- BC 700년, 이사야를 통한 예언 :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거절당하시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셔서 처형되실 것이다**(이사야 50:6, 53:1-12, 시편 2편, 22편, 스가랴 12:10. 성취 : 요한복음 1:11, 11:45-57, 마가복음 10:32-34, 마태복음 26-27장).

- BC 1000년, 다윗을 통한 예언 : **그분의 손과 발이 찢릴 것이며, 구경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분의 옷은 제비 뽑아 나누어질 것이다**(시편 22:16, 8, 18. 성취 : 누가복음 23:33-37, 24:39), (십자가형이 국가의 공식 처형의 한 형태로 고안되기 전에 이 예언이 선포되었음을 기억하세요).
- BC 700년, 이사야를 통한 예언 : **그는 최악의 범죄자들과 같이 죽었지만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이사야 53:8-9. 성취 : 마태복음 27:57-60).
- BC 1000년, 다윗을 통한 예언 : **메시아의 몸은 무덤에서 썩음을 당치 않고 죽음을 이길 것이다**(시편 16:9-11, 마태복음 16:21-23, 17:22-23, 20:17-19 등도 참조). 성취 :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2장).

확률의 법칙으로 따져보면, 그 어떤 사람도 이렇게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예언을 스스로 성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위의 목록에 따라 성경을 펴서 구약성경의 예언이 신약성경에 성취된 기록을 낱낱이 찾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예언적인 상징과 모형

수백 개의 예언과 더불어 수백 개의 상징과 모형(예표, 그림, 그림자, 원형 및 예시라고도 함)이 구약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각각의 시각 교육자료를 통해 그분 자신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세상에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행하는 동안 이러한 많은 상징과 모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상징은 ‘희생양인데, 이것은 본서의 19-26장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의 ‘모형’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성막’

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성막과 거기에 달린 부속품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받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시각적 교육자료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와 나사렛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비교 연구는 성경에 나타난 ‘원형’(prefiguration)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 사이에는 100가지도 넘는 유사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생애를 사용하셔서 1,700년 후에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를 그려냈습니다.⁸⁰⁾

이러한 모형과 예언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언의 목적

메시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9).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또 그것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메신저와 메시지를 입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 위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이사야 46:1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성경 여행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시작되는데, 이 책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 이 책은 세계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입증할 수 없는 과거와 예견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성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해가 뜰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간 우리의 태양계는 완벽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구는 한 번도 자전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태양은 언제나 아침에 떠서 저녁에 집니다. 성경의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전

어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에도 성취된 예언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책에 수록되어 성취된 예언 중 가장 확실한 서너 가지의 예를 들어보라고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 그들이 이 요청에 순순히 응하려 하지는 않겠지만, 혹 그렇게 한다면 우선 예견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예언들이 기록되었는지 검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세계의 역사와 비교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러한 예언은 기껏해야 수가 얼마 되지도 않고 내용도 모호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모든 종교와 사람이 만들어 낸 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하시는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이사야 41:21-24).

다수의 상세한 예언들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성경만이 유일하고 독보적인 예언서입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기록하심으로 자신의 메시지가 참임을 인류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성취된 예언은 ‘그분의 서명’입니다.



6

일관성 있는 증거

“물의 상태를 알고 싶다면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 - 중국 속담.

이런 상상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무더운 날, 당신이 강변을 거닐고 있을 때 수영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물이 당신이 수영하기에 적합한지 의문을 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빠르지 않을까? 물이 너무 차지 않을까? 또는 물의 상태는 수영하기에 알맞을까?”라고 말합니다.

중국 속담은 “그것을 물고기에게 묻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왜 그 강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당신에게 말해 줄 처지가 못 될까요? (물고기가 당신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이 물고기는 물속이라는 자기의 생존 범위를 벗어난 외부 환경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의 상태에 대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되고 어두컴컴한 수중 세계가 그들이 아는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정보는 인간의 제한되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의 바깥에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또는 숨결),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알 수 있을까요? 앞 장에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기록된 후에 이미 성취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성경 곳곳에 심어놓으심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두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이 100% 정확하게 먼 미래를 반복적으로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에 대한 신뢰성을 확립하시는 또 다른 방법은 그것을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선지자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증인 한 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신명기 19: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법정에 증인 한 명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한 진술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려면 그 전에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증인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실 때, “증인 한 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자신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사도행전 14:15-17).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고립된 종족들도 ‘창조’라는 외적 증거(창조주

가 만드신 만물을 눈으로 보는 것)와 ‘양심’이라는 내적 증거(옳고 그름 및 영원에 대한 선천적인 감각)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간의 빛, 즉 약간의 진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핑계할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십니다.⁸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창조주께서는 그분과 그분의 진리를 부지런히 알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더 많은 빛을 비취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속되는 증인

하나님은 증인을 두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 100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최초 인간들의 ‘구두 증언’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초기 천년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초의 증인’,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들었을 수 있었기에 만물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다.⁸²⁾ 처음 인류의 수명은 오늘날의 평균 수명보다 약 11배나 길었는데, 후에 창조주께서는 이 수명을 “칠십, 혹은 강건하면 팔십”(시편 90:10)으로 재조정하셨습니다.

BC 1920년경, 하나님은 한 노인을 선발하셨고, 후에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여러 민족에게 그분 자신과 인류를 향한 자신의 계획에 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는 도구가 되는 한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성경을 주시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이 선택받은 민족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BC 1490년경,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분의 대변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기록된 증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감을 주어 그분의 책의 첫 번째 부분인, '토라'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미래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기록된 문서'의 형태로 남기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모세의 마음에 그가 써야 할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으로 행해진 놀라운 '기적'을 통해 여러 민족에게 그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장래에 일어날 일도 계시하셔서 모세로 하여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공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집이 센 종교 회의론자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⁸³⁾

모세는 1,5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러 선지자 중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⁸⁴⁾ 이 선지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다른 세대에 살았을지라도 그들이 기록한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은 인물들과 그 외 30여 명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구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과 예언의 성취,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메시아의 기원, 생애, 말씀, 사역, 죽음 및 부활 등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각각의 복음서(아랍어로 '인질'(Injil)이라고도 함)를 기록

하여, 세상에 네 개의 서로 다른 증거들을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어부), 야고보, 유다(예수님의 이복 형제), 및 바울(학자이자 전직 테러리스트)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뜻을 영광스럽고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일관성 있는 증언

성경 전체로 봐서, 하나님은 1,500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40여명의 저자들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셨습니다. 이 증인 중 대다수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이 쓴 모든 것들은 서로 잘 들어맞아서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와 메시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이라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을 제외하고, 누가 감히 이와 같이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21).

수 세기에 걸쳐, 많은 사람은 신약성경의 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를 불신하려 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글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쓴 글들을 진지하게 다루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베드로후서 3:15-16).

사도 바울이 쓴 글은 모두 선지자들이 쓴 것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만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행 26:22,27)라고 증언했습니다.

일관성이 있는가, 없는가?

한 증인의 신뢰성을 검증할 때, 그 사람의 증언에 포함된 진리의 양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신뢰성이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네 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은(이들은 모두 자동차 한 대에 타고 함께 등교합니다) 수업을 빼먹고 싶은 유혹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선생님께 그들이 결석한 것은 그들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선생님은 야단을 치시지 않고 웃으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어제 쪽지시험을 치지 못했겠구나.” 하시고는 한 마디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지금 시험을 보면 되겠네! 어서 자리에 앉아 연필과 종이를 꺼내 봐. 자! 첫 번째 문제는…펑크 난 타이어는 어느 쪽인가요?”⁸⁵⁾

이 한 가지 질문에 학생들은 서로 일치하는 답을 쓰지 못했고,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이 네 학생의 모순된 증언과는 달리, 하나님의 증거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많은 증인과 저자들을 사용하심으로 그분 자신과 그분의 계획을 완벽하고 일관성 있게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모순된 종교와 철학이라는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을 우리에게 제공하셨고 또 그것을 보존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베드로후서 1:19-2:3).

거짓 선지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을”⁸⁶⁾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경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메시지가 “거짓말하는 영”(열왕기상 22:22)의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단 한 명의 참된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던 때를 묘사합니다. 단 7,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충절을 지켰으나, 다른 수백 만의 사람들은 자신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믿는 편을 선택했습니다.⁸⁷⁾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중 하나인, 미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미가 3:5).

이것은 역사의 패턴이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태복음 7:13-17).

수 세기에 걸쳐, 셀 수 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백 명, 내지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이들은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짓 선지자를 맹목적으로 따라 ‘멸망’에 이르는 ‘많은 사람’의 대열에 끼지 않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체(sifter)’로 그 사람의 가르침을 걸러 보시기 바랍니다.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그보다 앞서 이미 입증된 선지자의 글들과 항상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음 세 가지의 사례 연구를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참 선지자들이었나요, 거짓 선지자들이었나요?

사례 1 : 땅에 묻힌 한 “메시아”

역사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 중에 자칭 선지자와 자칭 메시아라 하는 부류가 많이 있었습니다.⁸⁸⁾ 그중 한 사람은 ‘아부 이사’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부 이사’는 7세기 후반에 살았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부 이사는 그들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고 그가

비록 문맹이었음에도 책을 썼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부 이사는 추종자들에게 매일 7번 기도하도록 가르쳤고 신의 보호를 약속하며 그를 따라 전쟁에 나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아부는 전쟁 중에 죽어서 땅에 묻혔고 부활하지 못했으며, 그의 추종자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부 이사의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마태복음 24:24-25).

사례 2 : 자살한 한 “선지자”

‘짐 존스’는 ‘인민사원’(The People’s Temple)이라는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초, 존스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정치 및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다수의 대중을 동원하는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존스는 자신을 ‘선지자’로 칭했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짐 존스는 천 명이 넘는 추종자들에게 자기를 따라 남미의 ‘가이아나’에 있는 ‘존스타운’으로 가자고 설득했습니다. 이 새 공동체에서, ‘선지자 짐’은 그의 제자들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존스는 양의 털을 쓴 배고픈 이리에 불과했습니다. 1978년 11월 18일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존스는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청산가리를 먹고 자살할 것을 명령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독약을 마셔야 했다. 아이들은 약물 주사를 통해

죽임을 당했다. 마침내, 존스타운에서는 914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존스 자신의 시신도 포함되어 있었다.^{*)89)}

사례 3 : 검증되지 않은 또 다른 “성경”

조셉 스미스는 1805년 남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과 미신 속에서 자란 그는 젊은 나이에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로나이’라는 광명의 천사를 통해 일련의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나는 나를 압도하는 어떤 힘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 힘이 내게 놀라운 영향을 미치며 내 혀가 얼어붙어 나는 전혀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는 짙은 어두움에 휩싸였고 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태양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의 기둥이 내 머리 위에 나타나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나에게 쏟아졌다.”^{*)90)} 스미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새로운 성경인, ‘몰몬경’을 계시하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이긴 하지만 자신의 새 책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근에 주신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는 사람들에게 기도문을 낭독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하며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은 이기적이고 관능적인 삶을 누리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계시’는 다른 모든 증인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증인 세 명이 있다고 주장함). 이 책이 성경, 역사, 및 고고학^{*)91)}에 어긋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백만의 사람들은 여전히 ‘몰몬교’라는 종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한 몰몬 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매일 수백 명의 사람을 ‘몰몬교도’(후기 성도교회라고도 함)로 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몰몬교도들은 진지하

고 친절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지자 조셉’의 메시지를 성경의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과 비교해 본다면, 이 둘 사이에 매우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자칭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의 모순되고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에 건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검증된 메시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로마서 1:25) 혼탁한 세상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잡다한 거짓으로부터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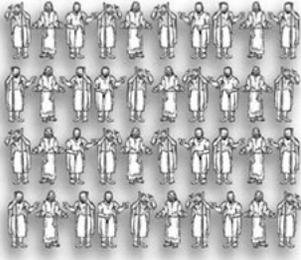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시고 확증하신 한 가지 방법은 그것을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선지자에게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한계 밖에 존재하시는 ‘저자’만이 이러한 계시에 대한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40명의 사람들’은 15세기에 걸쳐 하나님의 일관되고 확증된 메시지를 성경에 기록한 메신저들을 나타냅니다.

‘홀로 있는 이 사람’은 이후에 상충되고 확증되지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나타난 메신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앞서 몇 장에 걸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증거들이 설득력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확증은 단순히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는 무한히 높은 곳에 계시며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시는 분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의 영광스럽고 완벽하게 균형 잡힌 속성을 보여줍니다.



또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며 그들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인격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마귀나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메시지를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무턱대고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데살로니가전서 5:21).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나…” (마태복음 7:24).

산상수훈에서 나사렛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태복음 7:24-27).

비바람에 견디는 집과 무너지는 집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기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집을 이리저리 흠어지는 모래 위에 짓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의 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믿기를 바라시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석과 같이 견고한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이 기초는 토라(율법서, 모세오경, 또는 ‘타우렛’이라고도 알려짐)입니다.

시작의 책

모세의 토라는 성경의 처음 5권의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책은 ‘창세기’(Genesis)라고 부르며, ‘기원’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생명, 인간, 결혼, 가족, 사회, 민족, 언어 등의 기원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는 생명의 가장 위대한 신비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왜 우리는 이곳에 존재하는가?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고난을 겪는가? 완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받으실 수 있는가?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뒤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전개되긴 하지만, 창조주께서 그분의 해답에 대한 기초를 놓으신 곳은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은 뒤따라오는 모든 책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에는 수천 년에 걸쳐 일어난 수백 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한 데 모아져 지금까지 들려진 이야기 중에 최고의 이야기인 ‘한 가지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알려진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인 ‘한 가지 주된 메시지’를 심어놓으신 곳도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이야기 속에는 많은 클라이맥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행할 때 복음서에 이르러 한 가지 중요한 클라이맥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놀라운 클라이맥스는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책은 ‘요한계시록’이라 불리는 책이며, ‘감추인 것을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계획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창세기는 1,189개에 달하는 성경 전체의 장 가운데 5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⁹²⁾ 성경 전체를 쉬지 않고 통독하는 데는 대략 밤낮 3일이 꼬박 걸릴 것입니다.

앞으로의 성경 여정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훑고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중에 특히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다수의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이야기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성경의 처음 4개의 장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 부분에 있는 말씀이 성경 다른 곳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위대한 진리들을 풀어주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처음 몇 개의 장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읽어줄 때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야기의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이곳저곳 한 줄이나 두 줄만 읽고는 바로 결말 부분으로 뛰어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은 독자가 시작 부분을 쉽게 건너뛰곤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비밀로 남겨진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의 책의 첫 페이지를 가볍게 넘겨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사람들 대부분이 “죄인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는 제게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립니다”(이 책의 1장에서)라고 한 아흐메드의 말에 동의한다는 사실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을 잘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나머지 이야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처음 몇 개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놀랍게도 나머지 장들도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⁹³⁾

모판

하나의 밑알을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는 않으나 이 단순해 보이는 씨앗에는 곡식이 가득한 성숙한 한 포기의 밑을 만들기 위한 복잡한 코드와 잠재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마가복음 4:28).

하나님은 곡식, 열매, 및 채소가 즉시 익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한꺼번에 다 드러나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자라는 식물을 통해 인간의 몸에 음식을 공급하시고자 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진리를 통해 인간의 영혼에게 영적 양식을 공급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이사야 28:10).

창세기는 하나님이 진리의 씨앗들을 가지런히 심으신 비옥한 모판과 같습니다. 이 진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세상에 생명과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아(胚芽)

현대의 과학기술 덕분에 한때 비밀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배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경이로운 일입니다! 엄마의 자궁 속의 수정란은 8주 안에 땅콩 크기의 아기로 발육해서 눈, 귀, 코, 입, 팔, 다리, 손, 발 등이 완성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아기의 고유한

지문도 있습니다. 아직 형태가 완성된 것은 아닐지라도 신체의 모든 부분을 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창조주께서 그분 자신과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근본 진리를 창세기에서 배아의 형태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요한계시록 10:7)은 완성된 성경의 나머지 책들 속에서 자라고 성숙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목적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비밀로 남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기**”(골로새서 1:26)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비밀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퍼즐 조각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조각 그림 맞추기’와 같습니다.

어떤 퍼즐 조각들은 서로 확실하게 들어맞지만, 다른 퍼즐들은 그리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내와 끈기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비로소 혼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조화로운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저는 레바논에서 출세를 열망하는 한 기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보낸 이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저는 궁극적인 진리에 관해 증거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저의 조언대로 실천했으며, 이것은 그가 이후에 보낸 이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저는 신약성경을 아랍어로 읽었고 구약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그냥 이곳저곳을 부분적으로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졌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제가 이러한 성경 읽기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아시나요? (성경의 메시지)에 대한 보다 깊이 존경심입니다. 즉, 그것을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능력으로 보게 됐다는 점입니다...그 사람 자체를 실제로 바꾸지 않더라도...저는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그는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저는 제가 오래전에 마땅히 내디द्या 했던 걸음을 이제야 내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어 봤어요.'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저의 그 많은 의문이 이 책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버렸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분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메시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행하게 될 때, 역사의 큰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음으로써, 우리는 다른 ‘퍼즐 조각들’도 어디에 들어맞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연애편지

한 젊은 여인을 사랑한 군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가 그 남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리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 군인은 먼 곳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에게 한 번도 편지를 쓰지 않은 데 비해, 그는 성실하게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그가 복귀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가 그토록 사랑한 여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를 만나게 되어 반가운 듯이 행동하였지만, 그 남자는 그녀의 방구석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된 상자로 보고는 그녀의 진심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저기에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그의 편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신 일련의 편지와 같습니다. 그 글을 통해, 천지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서는 자신을 당신에게 소개하시고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며 어떻게 하면 당신이 그분의 영원한 집에서 영광스럽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이 2,7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편지’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1-3, 9).

- 사랑하는 너의 창조주로부터

당신에게 보내진 그분의 편지를 열어 보셨나요? 또 읽어보셨나요?
그분께 답장을 쓰셨나요?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 여행

비밀을 발견하다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9. 그분 같은 분은 없다
10. 특별한 피조물
11. 악의 유입
12. 죄와 사망의 법
13. 인자와 공의
14. 저주
15. 이중적 문제
16. 여자의 후손
17. 이분이 누구시기에?
18.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9. 희생의 법
20. 위대한 희생
21. 흘러진 더 귀한 피
22. 어린 양
23. 성경을 성취하다
24. 완전히 지불되다
25. 죽음을 이기다
26.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여행은 하나님의 책이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적이 드문 해변을 거닐면서 모래 위에 새로 난 발자국을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생긴 이러한 자취가 저절로 생겨났을 리가 없습니다. 바람과 파도로 인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누군가가 이 발자국을 남겼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발자국이 새겨진 모래와 그 발자국을 남긴 인간도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창조주를 떠나서 창조를 설명하려고 인간힘을 쓰는 동안, 결국 인간은 많은 정교한 이론들을 만들어냈고, 어떤 이들은 수십 억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원인들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시작’의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답해

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느냐?’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19-20).

이 논리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설계는 설계자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발자국, 자동차, 컴퓨터 등과 같이 인간이 만든 것들이 설계자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발, 세포, 별자리 등과 같은 창조의 메커니즘도 그러합니다. 육안으로 관찰하든지, 현미경 또는 망원경으로 관찰하든지, 우주의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는 복잡성과 난해한 질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을 필요로 합니다.

발자국이 발자국을 만든 사람을 필요로 하듯이 우주도 우주의 창조주를 필요로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편 19:1).

그렇다면 누가 이 우주의 창조주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이 자신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⁹⁴⁾

영원하신 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죠? 기억이 나지 않네요.”라고

냉소적으로 질문하는 이메일 친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의 창조주가 다른 그 누구나 그 무엇과도 같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편 90:2).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 모두 똑같습니다.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요한계시록 4:8).

그분은 끝이 없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느”(이사야 57:15)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치 않으십니다. “주는 한결같이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 하리이다”(시편 102:27).

더 크신 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십니다. 영원하신 분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시간, 공간 및 물질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 높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만 있다면 마침내 우주의 천장과 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은 그 상상 속의 천장 반대편에도 끝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들 가운데는 창조주께서 드러내신 사실을 믿어야만 이해될 수 진리가 있습니다.

일관성 있고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와 지식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6, 3).

현대의 과학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을 확증합니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물질은 보이지 않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자들은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이 전자들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데, 또다시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더 작은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쿼크는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인류는 아주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만 여태껏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은 너무도 적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과학이 결코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섯 번째 감각인 ‘**믿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위대한 주제와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욥기 33:12).

그렇다면 이 크신 분이 자신에 대해 또 무엇을 계시하셨을까요?

무한하신 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 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예레미야 32:17).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을 초월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위에 계시고 그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주께서 내가 앓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시편 139:2).

창조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시편 147:5).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편 139:7).

이 무한하신 분은 저와 함께 계시는 바로 이 순간에 당신과도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순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영이신 분

이 무한하신 분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한 번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보이지 않으시고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영이십니다. 그분은 비록 몸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스스로를 나타낼 능력과 자유를 가지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대면하여”(출애굽기 33:11), 독특하고 가시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여러 가지 사례를 기록합니다.

최고의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받고 예배를 받으실 목적으로 그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3-24).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분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는 “모든 영의 아버지”(히브리서 12:9)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⁹⁵⁾ ‘천사’라고 불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능력 있고 아름다운 영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만드셔서 자신의 하늘 처소에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천사란 말은 ‘메신저’나 ‘중’을 의미합니다. 영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존재들로 구성된 나라를 세울 뜻을 두셨던 하나님은, 이러한 영들이 영원토록 그분을 알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즐거워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요한계시록 5:11).

처음부터 하나님은 천사들이 번식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수대로 많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들은 창조주가 가지신 어떤 속성들을 공유하긴 했어도 절대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높은 수준의 지성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감정과 의지, 그리고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천사들은 그들을 만드신 분처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⁹⁶⁾

창조된 영적 존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 홀로 창조되지 않으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광대하신 영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

“성령도 한 분이시나…주도 한 분이시요…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萬有) 위에 계시고…”(에베소서 4:4-6).

“만유 위에 계신” 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지만, 우주 안에는 그분이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시편 103:19).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묵상할 때, 그를 만드신 창조주께 다음의 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열왕기상 8:27).

성경은 세 가지 서로 다른 ‘하늘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중 두 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대기권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파란 하늘입니다.

둘째, ‘우주권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성과 별들을 두신 검은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들의 하늘’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눈부신 공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의 하늘 처소이자 천사들의 영역으로서, ‘가장 높은 하늘’, ‘셋째 하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처소’, ‘낙원’, 그리고 단순히 ‘하늘나라’라고 불립니다.⁹⁷⁾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어, 곧 그가 거하시 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만을 굽어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살피시는 이로다”(시편 33:13-15).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절, “태초에 **하나님이**...”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단언합니다.

신약과 구약성경은 둘 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이시니”(신명기 6:4),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로마서 3:30)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과 경쟁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한 신념을 ‘유일신론’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신론은 ‘다신론’(많은 신과 여신들을 믿는 신념) 및 ‘범신론’(신은 만물이고 만물은 신이라는 신념)과 반대 됩니다. 다신론자들과 범신론자들은 창조주와 그분의 피조물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성품을 지니신 인격 체이심을 부인합니다.

복합적이신 분

“태초에 **하나님**”은 ‘기본적인’ 진리이지만 그렇다고 그저 ‘단순한’

진리는 아닙니다.

무한하신 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합적이십니다. 그분의 하나 됨은 다차원의 하나 됨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 히브리어는 남성 복수 명사, ‘엘로힘’(Elo-him)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에는 단수(하나), 양수(단둘), 및 복수(셋 이상) 명사형이 있습니다. ‘엘로힘’은 문법적으로 복수이지만 단수의 의미를 지닙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복합적이시고 능력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경의 첫 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복수 명사)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단수 동사의 활용).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세기 1:1-3).

따라서 하나님의 책이 시작되는 서두 부분은 그분이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늘에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비둘기가 자기의 둥지 위를 맴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새로 태어난 세상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영’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루아흐’(ruach)인데, 해석하면 ‘영’, ‘숨결’, 또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에너지를 주시는 하나님 본체의 임재입니다.

“주의 영(루아크)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시라”(시편 104:30).

그런 다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시편 33:6).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영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소통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은 소통하십니다. 창조가 있기도 전, 소통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한복음 1:1-2).

‘말씀’이라는 이 용어는 ‘생각의 표현’을 의미하는 헬라어 ‘로고스’(Logos)에서 왔습니다.⁹⁸⁾ 성경에서 ‘로고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생각’만으로 세상이 존재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일시에 만물이 존재해서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생각을 ‘표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께서는 6일에 걸쳐 세상이 순차적으로 존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과연 6일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양적인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7일로 구성된 한 주⁹⁹⁾(week)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사랑할 수도 예배할 수 없기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창조주께서 직접 기록하신 창조에 대한 묘사를 함께 보고, 듣고 배워 보도록 합시다.

첫째 날 : 빛과 시간 - 하나님은 기록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창세기 1:3-5).

첫째 날에 하나님은 창조의 무대에 빛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시간을 창조하셔서 지구가 낮과 밤을 규정하는 천문학적 시계인, 24시간을 주기로 자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이 될 때까지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한때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창조의 기록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태양이 존재하기 이전, 그리고 태양의 존재와는 무관하게 빛이 존재하게 된 사실에는 의견을 같이합니다.¹⁰⁰⁾

지구에 ‘빛의 전달체인 태양을 창조하시기(넷째 날) 전, ‘빛’을 제공하십시오(첫째 날) 창조주께서는 자신이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빛의 근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여행하면서 빛의 근원이신 분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야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등불과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요한계시록 22:5)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빛은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과학에서 빛은 ‘절대적’입니다. 그것은 초당 30만 킬로미터(18만 6천 마일)를 이동합니다.

물리학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 $E=mc^2$ ’(에너지는 질량과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음) 공식을 발견했을 때, 놀랍고 무서운 원자핵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빛은 그것이 처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냄새나는 쓰레기 더미 위에 비칠 수 있지만, 빛 자체는 순수합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의 놀라운 광채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같은 종류 중 하나’, ‘분리됨’, 또는 ‘다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늘에서 그분의 빛나는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은 계속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이사야 6:3)라고 외칩니다. 거룩은 성경에서 세 그룹의 천사들이 강조하며 선포한 하나님의 유일한 속성입니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느라”(디모데전서 6:16)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순결하고 의로운 존재들만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요한일서 1:5-6).

창조의 첫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선포합니다.

둘째 날 : 공기와 물 -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창세기 1:6-8).

창조의 둘째 날은 모든 살아 있는 생물체들이 의존하게 될 두 가지 요소인, 공기와 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큰 아치 모양의 창공을 말하는데, 이곳은 구름과 대기가 존재하고 별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대기 중에 산소, 질소, 수증기, 이산화탄소, 오존 등의 가스가 완벽한 균형에 맞춰 구성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공기의 혼합을 변화시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대기 중 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수증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이 무겁고 섬세한 혼합물을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데 어떠한 지혜와 능력이 요구될까요?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시편 33:9).

창조의 다른 모든 날과 같이, 둘째 날도 창조주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셋째 날 : 바다, 땅, 식물들 -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9-12).

셋째 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며 말씀으로 모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분은 지구에 딱 알맞은 양의 물을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물을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¹⁰¹⁾

하나님은 각 식물과 나무에 씨가 맺히고 “각기 종류대로” 야채나 과일이 생겨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먹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땅을 지으시고…사람이 거주하게”(이사야 45:18)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우리의 태양계에서 독특한 행성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도록 설계된 유일한 행성입니다.

식물에게서 우리가 얻는 유익을 생각해 보세요. 이를테면, 필수 산소, 영양을 공급하는 야채, 맛있는 과일, 실 수 있는 그늘, 유용한 목재, 필요한 약재, 다양한 색깔과 향기가 있는 꽃, 아름다운 조경 등, 이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먹거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바나나, 콩, 쌀과 같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먹어야 할 음식을 단지 몇 가지만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중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음식과 사료에 사용되는 식물의 종류가 2백만 가지나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이 ‘좋았더라’고 일곱 번이나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전히 좋았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디모데전서 6:17).

셋째 날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넷째 날 : 천체의 빛 -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오”(창세기 1:14-16).

넷째 날은 질서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분은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시느”(예레미야 31:35) 분이십니다. 밤이 되면, 하늘을 수놓는 규칙적인 별자리가 땅과 바다 위를 다니는 여행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낮이 되면, 해가 규칙적으로 뜨고 저서 날짜와 연도를 충실하게 구분해서 알려줍니다. 또 달은 월별과 조수를 조절합니다.

태양과 별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달린 행성인 달도 그것을 만드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지속적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달을 “궁창의 확실한 증인”(시편 89:37)이라 부르십니다.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서 바라봐도 달은 지속적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있고 절대 그 뒤를 보이지 않습니다.¹⁰²⁾ 달은 시계의 추와 같이 정확하게 차고 기웁니다. 달을 만드신 분이 신실하심과 같이, 달도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수 없고, 자신의 법을 무시하실 수 없습니다.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디모데후서 2:13, 히 6:18).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하시거나 자신의 말씀을 번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위대함’의 개념이 아닙니다.

변덕스러움이란 그분의 성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은 신실함입니다. 행성들과 별들이 일정한 질서로 운행되는 것과 같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야고보서 1:17).

창조의 넷째 날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증거합니다.

다섯째 날 : 물고기와 새들 -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각종 생물들을 창조하셔서 바다와 하늘에 서식하게 하였고, 그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하셨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에게는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공중의 새들에게는 깃털과 가벼운 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20-21).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번성하다’는 말은 ‘가득차다’, 또는 ‘꽉 들어차다’를 의미합니다. 미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연못의 물 한 방울에는 수백만 개의 살아 있는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많은 미생물은 그보다 큰 동물들만큼이나 복잡하고 합니다. 믿을 수 없이 다양한 해양의 생물군 중에서 가장 큰 생물인,

흰 긴수염고래는 바다에 떠다니는 극히 작은 동식물인 플랑크톤만 먹고 삽니다.

해양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기적들을 한데 모은, 하나의 거대한 집합체입니다.

하늘을 나는 각종 놀라운 새도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기 종류대로”라고 한 말도 눈여겨보세요. 이러한 구문은 창세기 1장에서 10번이나 반복되면서 각종 생물의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주인께서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번식하라고 명령 하셨습니다. 인간의 진화론은 이 변할 수 없는 자연법칙을 거스릅니다. 각종 생물에게 ‘변이’, ‘돌연변이’, ‘적응’ 등의 현상이 생길 수는 있어도,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정하신 구별의 한계를 넘어 ‘진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화석의 기록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생명’이라 부르는 이 고유한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것을 유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요한복음 1:3-4).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생물들의 풍성함은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섯째 날 : 육지 동물과 인간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섯째 날이 시작될 때, 창조주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매우 흥미로운 포유류, 파충류와 곤충류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25).

하나님은 크고 작은 그 모든 동물을 만드시면서 각각 자연계에 살고 그것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직관을 주셨고 그들 각각으로 자신의 형상

에 따라 새끼를 낳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왕국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어떤 죄악이나 유혈사태도 아직 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동물들은 야채 식단을 먹고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창세기 1:30)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피조물이 피조물을 잡아먹는 먹이사슬이 없었습니다. 적대감과 두려움을 알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물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 옆에서 풀을 뜯고, 고양이와 새끼 서로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세상은 완전히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신 후, 이제 그분의 걸작품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영원한 사랑의 나라에서 그분께 드러진 존재가 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창조주께 ‘사랑’이란 무언가를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랑은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8).

여섯째 날,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는 그분이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만들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요, 또 대상이 될 사람들을 위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 1:26).

잠깐! 여기서 잠시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9

그분 같은 분은 없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 선지자 모세 (신명기 10:17).

경고 : 성경 여행의 다음 단계인 이번 단계는 여행자들을 ‘안전지대’ 밖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생각은 많아지고 마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 앞에 놓인 나머지 과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믿음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제 곧 시험을 받게 됩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동물의 왕국을 창조하신 후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속성과 형상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방법에 대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그분은 “우리가...만들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분은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을 ‘우리들’, ‘우리의’, ‘우리’ 등으로 표현하실까요?¹⁰³⁾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들’, ‘우리의’, ‘우리’라는 표현이 한 왕이 자신을 ‘우리’라고 부를 때와 같이 ‘왕권의 복수형’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엄을 가지고 계시지만, 히브리어 문법은 이러한 설명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본문에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없고 사람이 천사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명확하게 읽고 문법을 면밀히 살펴보므로 얻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복수형이면서 단수형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수형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단수형 :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창세기 1:26-27)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와 단수로 묘사하신 것은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항상 어떤 분이셨는지’와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되심의 복잡성과 중요성은 많은 사람이 ‘하나 됨’을 미신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무한하신 그분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시편 90:2).

하나님의 복합적인 하나되심

하나님의 책은 이러한 말들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엘로힘 - 남성 복수 명사)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단수 동사의 활용)…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¹⁰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시편 33:6).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복합적인 속성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은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요한복음 1:1-3).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말씀은 하나님의 내적 생각의 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과 하나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말씀과 구분된 신격)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말씀과 하나되심)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인칭 대명사, ‘그가’ (He, 주격)와 ‘그로’ (Him, 목적격)가 ‘말씀’을 가리킬 때 사용된 사실을 관찰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한 구별된 인격체로 묘사하는 것과 같이, 그분의 영에 대해서도 인격체로 묘사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께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30).

“그의 입김으로 (그가) 하늘을 맑게 하시고”(욥기 26:13).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시편 139:7).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요한복음 14:26).

(말씀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과 같이, (말씀의 명령을 수행하신) 성령님은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대부분의 일신론자는 다윗 왕의 많은 기도문 중에서 발췌한 이러한 기도에 주저 없이 아멘할 것입니다.

“그러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사무엘하 7:22).

그러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니 그분과 같은 이 없도다!”라고 쉽게 단언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복수이면서 단수로 계시하신 사실은 쉽게 거부합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한다면, 전능자께서 자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복잡적이신 분으로 드러내시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권고하십니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사편 50:21).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정통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쉐마’로 알려진 기도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데, 그것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드**”인데 “주 우리의 하나님, 주는 **한 분**이십니다”를 의미합니다. 이 기도문을 토라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훼)는 **오직 유일 한 여호와**이시니”(신명기 6:4)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 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카드’(echad)입니다. 이 단어는 종종 포도송이와 같은 화합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에카드’는 장군과 그의 병사들을 가리키는 ‘한 부대’로 번역됩니다.¹⁰⁵ 다음 장에서 이 단어는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에카드’, 즉 “**한 몸**”(창세기 2:24)이 될 때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히브리어가 사용된 다른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 됨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용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수형의 하나 됨을 암시하고 단언하는 많은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¹⁰⁶ 그중 한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부터…내가 거기 있었노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이사야 48:16).

“주 여호와”는 누구인가요?

“그의 영”은 누구인가요?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나”와 “주 여호와께서” “그의 영”과 함께 보내

신 “나”는 누구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함께 성경을 여행하면서 분명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삼위일체’

‘Unity’(연합)라는 영어 단어는 ‘하나’를 의미하는 라틴어, ‘unus’(유누스)에서 왔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영원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거부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셋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종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간은 ‘높이, 길이, 너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는 ‘아버지’ 이면서 ‘아들’ 이고 ‘남편’ 일 수 있습니다.

태양 또한 삼위일체입니다. 지구를 비추는 태양은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천체’를 태양이라 부르고, 그 ‘빛’도 태양이며, 그 ‘열’도 태양이라 부릅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셋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은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태양의 하나 됨과 ‘삼위일체’ 사이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의 빛과 열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태양이 하나이듯이 하나님도 하나이십니다.

물론, 이 땅의 모든 비유는 유일하신 한 하나님의 복합성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태양과 달리, 그분은 사랑이시고 인격적이며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의 진리가 창조 속에 담겨있음을 인정하고, 우리 대부분은 창조주가 자신

의 창조보다 뛰어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유들은 우리로 삼위일체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히브리서 3:3-4).

하나님의 창조가 복합적인 연합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 자신도 복합적인 연합체라는 사실이 그리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가 모든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그것을 만드신 분을 설명하기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고 바다보다 넓으니라”(욥기 11:7-9).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자세히 살펴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원에 속한 가장 놀라운 성품들 중 하나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8).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실제적인 방법으로 표현되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애정입니다.¹⁰⁷⁾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이 사랑스러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요한일서 3:1).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

히 “저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해야 말이 됩니다.

사랑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특별한 존재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그분이 천사들과 사람들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는 자족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물들과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관계의 문맥 속에서만 의미있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과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와 말씀하셨을까요?** 그분은 누군가가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느” 모든 것을 그분 자신 안에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말하고, 듣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의 일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또 다른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말씀은 관계의 문맥 속에서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누구와 관계를 누리고 계셨나요?**

그 대답은 하나님의 복합적인 연합에 내재하여 있습니다.

관계적인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부터 그

분 안에 계신, 인격체이신 말씀(성자)과 인격체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만족스럽고 친밀한 사랑과 소통의 관계를 향유하고 계셨습니다.

한 겹씩 벗겨내다

복수성과 인격성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한 이메일 친구는 다음과 같이 답장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하나님은 자신이 유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로 연합되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굳이 그분의 위격을 층층이 벗겨내서 따로따로 인식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한하신 창조주에 대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자신에 대해 드러내신 부분만큼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분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 대해 드러내신 사실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그분에 관한 진리를 ‘한 겹씩 벗겨낼 때’ 성경에서 그분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인격적이고 알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인격체이신 ‘말씀’ 과 ‘성령’ 과 하나로 연합해 계십니다.

무한히 위대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성부, 그분의 아들을 ‘성자’, 그분

의 영을 ‘성령’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세
분의 구별된 인격체가 존재합니다.

이 진리를 한 겹씩 ‘벗겨내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라고도 불리고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한복음 1:1, 18, 3:18).

세네갈 사람들은 때로 “아스타그페룰라!” 라고 중얼거림으로 ‘하나님
의 아들’이라는 용어에 반응하곤 합니다. 이 아랍식 대응방식은 “이런
신성모독의 말을 중얼거리는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길 바라네!”(신성
모독이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음)라는 의미를 전달
합니다. 저는 가끔 그들의 격언 중 하나인, “목동의 입을 때리기 전에
그가 무엇 때문에 휘파람을 부는지 알아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서 그들
에게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빙그레 웃고,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
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 관해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가리키는 구절들이 백 개도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용어를 자의적으로 해석
하듯이, 이 구절 중 어떤 것도 ‘여러 하나님’이 계신다거나, 하나님이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
은 신성모독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음을

보여줍니다.¹⁰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고(思考)로 생각하도록 이끄십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이사야 55:9).

오래전, 한 유명한 세네갈인 사업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네갈 국영신문은 이 남자가 고용한 2,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마치 ‘그의 자식들 같았고’ 또 그들이 그를 ‘세네갈이 낳은 위대한 아들’로 칭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¹⁰⁹⁾ 그런데 이 말이 세네갈 국가가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세네갈 국민들은 이러한 칭호를 사용해서 존경하는 한 시민을 높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네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쿠란과 아랍인들이 ‘여행 중인 여행객’을 ‘길의 아들’(ibn al-sabil, 수라 2:177, 215)이라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체이신 말씀’을 ‘그분의 아들’이라 부르실 때, 우리도 그분이 의미하시는 바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께서 강조하시는 칭호와 용어를 모독하지 않길 바랍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히브리서 1:1-3).

하나님은 그분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말씀’ 이심을 이해하길 원하십니다. 아랍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들의 칭호는 성경과 쿠란에서 모두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인 ‘칼리맛 알라’(Kali-mat Allah)로 번역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여행의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신 아들’과 하나가 되신 것처럼 ‘그분의 성령’과도 하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의 창조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영감을 주는 일에 관여하셨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베드로후서 1:21)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영은 어느 한 선지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영’(히브리서 9:14)이십니다.¹¹⁰⁾

성령은 ‘진리의 영’(요한복음 14:17)으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친밀하고 경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보혜사’(요한복음 14:16)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하나

님이나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에 대해서는 후에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¹¹¹⁾

지금까지의 성경 여행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너무도 단순하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가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단순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단순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아니라. 여호와 의 말이니라”(이사야 55:9).

영원히 하나되심

성경은 분명합니다. 영원을 통틀어 아버지, 아들, 성령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때는 한순간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¹¹²⁾ 하나님은 항상 하나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문맥에서, 성경은 ‘아버지’를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으로, ‘아들’을 ‘땅’에서 말씀하신 분으로, ‘성령’을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드러냅니다.¹¹³⁾ 각각 그 역할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여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또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의 문맥 속에서만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항상 완벽한 사랑과 연합이라는 상호적인 관계를 누려 오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우리는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됩니다. 성경은 또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요한복음 5:20, 14:31, 갈라디아서 5:22).

남편과 아내의 하나 됨이나 아버지, 어머니, 아들의 결속과 같이 최고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경이로운 하나 됨과 사랑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과 원형과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8).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씀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분은 당신과 저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원히 누리도록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설명하진 못할지라도 그분은 단순히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6일간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관찰한 바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수학적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첫째 날 :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 + 둘째 날 :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 + 셋째 날 : 하나님은 선하시다.
- + 넷째 날 :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 + 다섯째 날 :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 + 여섯째 날 :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러한 성품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쉽게 믿으면서도, 이러

한 성품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신 분을 믿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을 넣을 때, 저는 우체국이 이 편지를 잘 전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주인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우리는 얼마나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한일서 5:9-10).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편 9:10).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하나님’이나 ‘엘로힘’ (히브리어) 또는 ‘알라’ (아랍어)¹¹⁴, ‘알라하’ (아랍어), ‘디우’ (프랑스어), ‘디오스’ (스페인어), 또는 ‘고트’ (독일어) 내지는 그들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어떤 일반적인 용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하나님(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일까요? 이것은 제가 제 이름을 ‘사람’ 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저는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에게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을 한 인격체로 부르도록 초대하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중력이나 바람과 같은, 알 수 없는 어떤 에너지 원이나 인기 있는 SF영화 시리즈에 그려지는 ‘초능력’ 같은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바라시는 궁극적인 인격 체이십니다.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그려내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일 뿐 아니라 논리적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우주적 에너지 덩어리가 아니며,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그러합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신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이름은 제일 먼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창세기 2:4).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신 이름을 눈여겨보셨나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the LORD)입니다.

적어도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을 어느 한 특정 언어로 부르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어느 방향에서 있든 모국어를 사용해서 마음의 언어로 그분께 기도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주된 개인적인 이름, “여호와”는 히브리어에서 4개의 자음으로 표기되는데, 바로 ‘YHWH’입니다. 이것은 모음이 첨가될 때, ‘야훼’(YaHWeH) 또는 ‘여호와’(YeHoWaH)로 발음됩니다. 이 이름은 히브리어 동사 ‘이다’에서 파생되었으며 문자적으로 ‘나는 -이다’(I AM), 또는 ‘그분은 -이다’(HE IS)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분’ 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의 개인

적인 이름은 구약성경에서 6,500번 이상 사용되었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신교였던 이집트에서 자란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여쭙었을 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출애굽기 3:14).

인격적인 존재만 ‘나는 - 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궁극적인 인격체이심을 사람들이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그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분은 **자족**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기 위해 공기, 물, 음식, 수면, 주저지 및 기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그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각하고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I AM), 여호와(the LORD)이십니다(주 : 영어 성경에서 여호와(LORD)라는 이름이 4개의 대문자로만 등장할 때, 그것은 히브리 원어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분’을 의미하는 ‘야훼’(YHWH)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을 정의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정의하십니다.

수백 가지의 이름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호와는 수백 가지의 이름과 성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각 성호는 우리가 그분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다음과 같이 불리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생명의 주, 가장 높으신 분, 참 빛,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재판장, 공급하시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우리의 평화이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주,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현재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 같은 이가 없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이해하진 못할지라도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신 말씀은 이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10

특별한 피조물

앞선 두 개의 장에서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창세기 1:27).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창조의 면류관이 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6-27).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첫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았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남자와 여자에게 자신과 의미 있는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특징들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성’으로 복을 주시면서, 중요한 질문들을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창조주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감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셔서 기쁨과 동정과 같은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들에게 ‘의지’를 주셨는데, 여기에는 영원한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이 포함됩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고 몸짓하고 노래하면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놀라운 창조성을 발휘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한 영혼’을 맡기셔서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영원히 예배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인류를 동물의 세계와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랑이신”(요한일서 4:8)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

창세기의 첫 장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간결한 역사를 기술하는 반면, 2장은 보다 상세하게, 특히 인간의 창조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7).

여호와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첫 사람은

흙으로 만들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생물학자들도, “어떤 면에서 인간의 육체는 그리 대단하지 않다. 그것을 구성하는 20여 종의 아주 흔한 원소는 지구의 흙 속에 모두 함유되어 있다.”¹¹⁵⁾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흔하디흔한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긴 해도, 그것은 각각이 고유한 역할을 하는 무려 75조(75,000,000,000,000)개의 살아 있는 세포가 서로 하나로 연결된 장인의 기적적인 걸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하나의 세포는 매우 작아서 고성능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을 정도이지만, 수백만 개의 살아 움직이는 부분들로 꼭 차 있습니다. 각 세포에는 2미터(6ft.) 길이의 미세하게 꼬아진 DNA 가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DNA는 한 사람의 기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유전 암호입니다.

유명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자 ‘빌 게이츠’는 “인간의 DNA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지만,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소프트웨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발전되었다.”고 말했습니다.¹¹⁶⁾ 인간의 몸속에는 2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세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피와 같은 액체를 만들어내고 다른 것들은 부드러운 조직과 기관을 생성하며 또 다른 것들은 한데 뭉쳐져 딱딱한 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세포는 몸의 각 부분을 서로 연결해주는 반면, 다른 것들은 소화계 및 생식계와 같이 신체의 기능들을 조직합니다.¹¹⁷⁾

당신의 몸의 구조와 움직이는 부위를 생각해보세요. 골격은 206개의 뼈가 인대, 힘줄, 근육, 피부, 체모 등으로 연결되어 덮여 있고, 동맥, 정맥, 및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는 순환계는 생명의 재료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장, 위장, 간, 신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신경계는 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라 부르는 성실한 펌프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눈,

귀, 코, 입, 혀와 함께 성대, 미뢰(味蕾-맛봉오리), 치아도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과 발도 유용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 당신에게 엄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엄지 없이 빗자루나 망치를 쥐어 보세요! 아, 그리고 손톱도 깨나 유용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윗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편 139:14).

영과 혼

인간의 몸이 경이롭긴 하지만 인간을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동물, 새, 물고기 등도 놀라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은 ‘인간의 혼’과 ‘영원한 영’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첫 남자와 여자를 특별한 존재로 구별하는 것은 영과 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창세기 2:7)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들어 주신 몸은 아담의 영원한 영과 혼을 담기 위해 필요한 집이나 장막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몸을 주셔서 그 주변 세상을 인지할 수 있게 하였고, 혼을 주셔서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고,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몸은 혼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고, 혼은 영의 지배를, 또 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¹¹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한복음 4:24).

창조된 목적

훌륭한 장인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과 온몸”(데살로니가전서 5:23)이 서로 연결된 일종의 삼중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들로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이제 사람이 그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의 기쁨과 찬송이 되도록 사는 것은 그가 가진 가장 고상한 특권일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 니라”(이사야 43:7, 21).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창조주의 목적은 첫 인간이 영원히 그분을 알고 누리고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과 저를 향한 그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마가복음 12:30).

완벽한 환경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이라고 하는 호화로운 동산을 계획하고 가꾸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창세기 2:8-10).

에덴동산은 현재 ‘이라크’¹¹⁹⁾ 땅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훌륭한

경관, 아름다운 소리,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 찬, 기쁨이 끊이지 않는 거대한 정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강물이 흘러 이 땅을 적시고, 달콤한 과일나무가 강둑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다양한 종류의 과일들을 맛보고,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들을 만끽하고, 또 높이 솟은 나무와 무성한 목초지를 감상할 수 있었으며, 짐승과 새, 그리고 곤충들을 관찰하고, 신비로운 삼림지대를 탐험하며, 금과 각종 보석을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디모데전서 6:17)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특별한 나무들을 심어놓으셨는데, 바로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에덴은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집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누릴 수 있게 하셨지만, 모든 즐거움 중에 가장 큰 것은 인간이 창조주와의 교제를 통해 얻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습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만족시키는 일

이 동산이 마련되자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거기서 살고 싶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그러기에 또한 사람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해명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창세기 2:15).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새집에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이 동산을 “경작해야” 했습니다. 단, 땀과 고생과 피로가 뒤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몸을 찌를 가시도 없었고, 뽑아낼 잡초도 없었습니다.

둘째, 그에게는 “그 동산을 지키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지킨다”는 표현이 어떤 악의적이고 위험한 요소가 우주에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곧이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규칙

인간이 인격체이고 꼭두각시가 아니므로, 하나님도 아담에게 한 가지 간단한 규칙을 주셔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 2:16-17).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기 전에 이 명령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우두머리로 세우셨고 그에게 이 한 가지 규칙을 지키도록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최초의 여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자는 얼마나 특별한 피조물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세기 2:18, 21-25).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빚어내는 최초의 수술을 시행하신 후, 그녀를 아담에게 넘겨주셔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사하신,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동반자이자 ‘배필’인 그녀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작고하신 성서 학자, ‘매튜 헨리’는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부터 만들어졌다. 그를 주관하도록 머리에서부터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에게 밟히도록 다리에서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지어졌고, 그의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¹²⁰⁾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여호와와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하나 됨을 영원히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분명한 질서와 구별된 역할을 지정하시긴 했지만, 그 가치와 중요도에서는 그들이 서로 동등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많은 사회에서 여자는 재산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축하하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보다 가족에게 더 많은 보호와 관심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회는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각각 부여하신 구별된 역할과 책임을 무시하곤 합니다. 두 극단 모두 여성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결혼

최초의 결혼식에서 누가 주례를 맡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례자이셨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그녀를 남자에게 이 끌어 오셨다.”고 말합니다. 애초부터 창조주는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라고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하나’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에카드’(echad)로서 하나 됨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섬기며, 완벽한 조화 속에 함께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고 섬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라셨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오늘날 세상에서 사람들 대부분은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청사진을 무시하고 있으며, 부부 관계가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더 놀라게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께서 태초부터 한 남자와 그의 아내에게 의도하신 사랑과 충절의 관계, 이타적이며 서로 아껴주는 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한 창조주의 계획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한 부부의 결속이 훨씬 더 친밀하고 더 놀라우며 성장하는 영적인 관계를 잘 보여주도록 계획하셨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계를 그분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도록 초대하십니다.

결혼의 저자가 결혼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셨나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부부간 부끄러움 없이 목적과 몸이 합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영원토록 그분과 영적인 하나 됨을 부끄럼 없이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통치권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에게 주신 후, 그분은 그들에게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3:8)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곳에서 그들은 영광스럽고 본래 모습 그대로인 하나님의 창조물을 굽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창세기 1:28-29).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¹²¹⁾ 및 그들의 자손들에게 자기의 피조물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인간 ‘최초의 부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통치’라는 말은 ‘권위’와 ‘통제’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자손들은 이 땅을 누리고 돌보고 지혜롭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되 남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창조주는 피조물들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셨습니다. 태초에 이 땅은 무엇이든지 사람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에 협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다음 끼니를 어디서 해결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뻗어 그저 셀 수 없이 다양한 과목 중에서 아무거나 맛있는 과일을 따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단단한 토양, 잡초, 가시, 아픔, 죽음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의 모든 영역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통치권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창조주께 복종하는 한, 모든 피조물은 인간에게 복종했을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과 친밀하고 다정한 교제 가운데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감성과 지성)을 주시고 또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지)의 자유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참된 사랑과 충절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권자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선택에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무 사람도 필요로 하시지 않지만, 그분은 매우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알아주고 사랑해 주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만드신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교를 나누길 소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속성의 일부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의 노예일 뿐,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물론, 종이 주인을 위해 자원해서 봉사하듯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

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종이 아니라 아들”(갈라디아서 4:7)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요한복음 8:35). 하나님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소위 ‘신인동형론’에 입각해서 자신의 소원을 표현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린도후서 6:18).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이미 지를 한 차원 더 끌어 올리셔서 사람들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의 연합과 깊이를 신랑이 그의 사랑하는 신부를 향해 품는 사랑과 비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호세아 2:16, 19-20).

이 땅에서 두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관계를 머릿속에 떠올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관계는 이 땅에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최선의 관계보다 한없이 더 놀라운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즐거움과 명성을 누리며,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도, 결코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공허를 채울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공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채우시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시편 107:9).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즐거워하십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교제를 누리 오셨고 또 영원히 누리실 것입니다.

-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통틀어 사랑의 교제는 항상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아들, 영원한 성령 사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성자가 성부에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요한복음 17:24)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 **천사들과.** 그분은 천사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히브리서 1:6).
- **사람들과.** 하나님은 사람들이 언젠가 심지어 천사들이 누렸던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를 그분과 맺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대”(시 8:3-5).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인간에게는 시험이 필요했습니다.

일곱째 날 : 창조를 마치시다

창조의 이야기는 한 가지 중요한 정보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세기 1:31, 2:1-2).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 마쳐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기뻐할 시간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것은 피곤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야훼(I AM)께서는 결코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안식하신(일을 쉬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족해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는 완전하신 창조주와의 친밀한 사귀를 누리는 특권을 가졌던 완전한 두 사람이 살았던 완벽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최초의 만물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피곤한 세상은 완벽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죄악과 부도덕함, 슬픔과 고통, 가난과 배고픔, 증오와 폭력, 그리고 질병과 죽음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세상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이야기입니다.



11

악의 유입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 다윗 왕 (시편 103:2, 20-22).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천사’라 불리는 수많은 영물을 창조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즐거움과 찬송을 위해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누리고 영원히 찬미하도록 계획된 “**그분의 천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주로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동물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나, 그분의 뜻을 행하는 일,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의무를 부여하셨습니다.

광채가 나는 자

가장 많은 능력과 특권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는,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광채가 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¹²²⁾ 이 탁월

한 천사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던”(에스겔 28:12)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세한 내용을 다 드러내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악과 불완전함이 이 훌륭한 천사를 통해 최초로 우주에 들어오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시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네가 마음에 이르기를…‘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에스겔 28:15, 17, 이사야 14:13-14).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종하는 대신 5번이나 “내가 -하리라!”(I will)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길” 원했습니다.

이 천사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에 눈이 멀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렸고, 자신에게 속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천사가 홀로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대신, 자기를 찬양해주길 원했습니다.

루시퍼는 또한 하늘의 천사 중 삼분의 일을 설득하여, 자기와 힘을 합쳐서 반란을 일으키자고 했습니다.¹²³⁾ 따라서 이 ‘광채가 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뒤엎고, 하늘의 보좌에 앉을 음모를 꾸미던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우주에 들어왔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줍니다.

- “죄는 불법이라”(요한일서 3:4).

- “모든 불의가 죄로되”(요한일서 5:17).
-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야고보서 4:17).
- 죄가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로마서 7:8).
-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로마서 3:23).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결과 흠이 없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한 의’라는 과녁의 한복판을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뜻을 완벽하게 따라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달리 정리해서 말하자면, 죄는 천사든 인간이든 한 영원한 존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대신, 자기를 높이고 “자기 길로”(이사야 53:6) 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채,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루시퍼와 그에게 동조한 천사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의지하는 대신, 교만한 마음을 먹었고 자기 길로 갔습니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잠언 16:5).

‘미워하신다’는 말은 강력한 단어로 ‘역겨움의 대상’, ‘가증스러운 행위’, ‘오염’, 또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죄를 그분의 임재 속에 들이는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돼지의 시체를 집 안에 들였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구역질 나는 일일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독약 한 방울이 떨어진 차를 마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단 한 가지 죄도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집에 썩은 시체를 두거나 차에 독약 한 방울을 넣는 것을 견디지 못할까요? 그러한 행위는 우리의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하박국 1:12-13).

사탄, 귀신들, 그리고 지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분의 권위를 침해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비롯하여 그의 반역에 가담하기로 선택한 천사들을 가장 높은 하늘의 처소에서부터 추방하셨습니다. 루시퍼의 이름은 ‘대적’을 의미하는 ‘사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또한 ‘참소하는 자’를 의미하는 ‘마귀’라고도 불립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악령 혹은 귀신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아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 앞에서 뺨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을 대적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귀신들이 예정된 어느 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마태복음 25:41) 던져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영원한 불”은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속성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격리시킬 실재하는 장소입니다.

사탄과 합세해서 반역에 가담한 자들을 처벌하는 장소를 묘사하기 위해 헬라어 신약성경에 사용된 단어 중 하나는 보통 ‘지옥’(hell)으로 번역되는 ‘게헨나’(gehenna)입니다.¹²⁴⁾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불타는 쓰레기 더미’를 의미합니다.

저의 아내와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세네갈의 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저분한 곳에 사람들이 쓰레기와 폐기물을 버리는 쓰레기 폐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민들이 악취 나는 쓰레기 더미를 태우는

바람에 이 쓰레기 더미는 종종 검은 연기를 피우곤 했습니다.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이 불에 던져졌습니다.

지옥은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 현재 감금된 하나님의 ‘쓰레기 폐기장’입니다. 언젠가 사탄과 그의 귀신들과 또 지옥에 감금된 자들은 ‘불과 유향이 타는 못’이라 불리는 최후 심판의 장소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¹²⁵⁾ 죄는 하나님의 우주를 영원히 오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

마귀와 그의 귀신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아직 불못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베소서 2:2)이라고 지칭합니다.

사탄이 능력이 있긴 하지만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였고 당시에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마귀는 여호와와 견줄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창조된 목적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고린도후서 4:3-4).

사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하나님과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 사탄이 절대 이기지 못할 전쟁이지만,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도 그중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창조됐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망치려는 계락을 꾸몄습니다. 물론,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시편 44:21)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이 세운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셨으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한 가지 규칙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주를 사랑하고 찬양하며 순종할지, 또는 그렇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참된 사랑은 강요할 수 없고, 또 프로그램처럼 미리 조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요 왕이신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분이 사람에게 영원한 결과를 선택할 책임을 부여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남자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앞에 시험을 두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창세기 2:16-17).

하나님의 단순한 명령에 주목해 보세요. 아담은 한 나무를 제외하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풍성한 나무들로부터 맛있는 열매를 자유롭게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도를 넘어 침범하다’(trespass)는 말로서 죄에 대한 또 다른 용어입니다.

루시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주의 주인께 대한 반역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 최초의 인간은 비록 완전하긴 했어도 온전히 성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한 가지 법칙에 따라, 인간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몸과 혼과 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가 창조주의 거룩과 사랑의 속성을 반영하는 특권을 누리도록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를 영광스러운 동산에 두셨고 그의 삶이 순수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온갖 은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에게 사랑스러운 아내를 주셨고, 창조된 세상을 감독하고 돌보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며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뱀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에 와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과 원대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하와와 아담이 금지된 나무 곁으로 다가왔을 때, 사탄은 뱀이라는 절묘한 형태로 가장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성경이 사탄을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피는 자라”(요한계시록 12:9)고 알려주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뱀이 사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계획을 가졌듯이 사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세기 3:1).

사탄은 남자보다는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건넨 첫 마디를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참으로…하시더냐?”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하나님의 지혜와 권위에 의문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뱀은 자신(루시퍼)이 그랬던 것처럼, 감히 창조주께 도전하도록 그녀를 충동질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마귀는 진리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야말로 자기에 게 망신을 주고, 자신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탄의 거짓을 몰아냅니다.

사탄은 또한 하와로 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자극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은, 마치 그들의 관대하신 창조주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주시면서도, 그들로 궁극적인 선은 취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세기 3:2-5).

마귀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을 의심하길 원했을 뿐 아니라, 설령 그녀가 이 금지된 열매를 맛보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실제로는 사형을 시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그녀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조차 의심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7).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사탄의 기본적인 방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부인합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심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창조주는 그분이 자신에 대해 선포하신 내용과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분이며, 그러기에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매우 종교적인 마귀

마귀는 종교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에 만 개도 넘는 종교가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말함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척하는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전능자 사칭하길 좋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취해서

자신의 거짓말과 섞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그는 능숙한 혼합주의자, 모방자, 표절자, 및 위조자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기괴한 종교계에도 진리의 흔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종교는 믿음 직해 보입니다. 아랍의 격언을 다시 언급해 봅시다. “주의하라! 어떤 거짓말쟁이들은 진리를 말한다!”

사탄은 세계 최초로 위조된 종교를 만들기 위해,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는 말에서, 사탄은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로채길 원하는 사탄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네가 선악을 알 것이다.”라고 말했다 때, 그 말이 사실이긴 했어도 그는 이러한 지식과 함께 따라오는 쓰라림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여호와’(LORD)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God)이라는 일반적인 용어만을 사용했음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계시는 알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는 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좋아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대! 귀신들도 믿고 떠나라”(야고보서 2:19).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떨 줄 아는 일신 교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다루게 될 여러 장에 걸쳐 충격적일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는 알고는 있지만, 오! 그들은 얼마나 그분을 싫어하는지요! 그들은 당신이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선택

아담과 하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대적의 말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 승리의 공식은 분명했습니다. ‘창조주의 지혜를 신뢰하라.’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저 하나님의 영감 있고 무오한 말씀을 인용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을 거야! 이상.”이라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위에 굳게 섰었다더라면, 미혹하는 자는 달아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세기 3:6).

여자는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남자도 그것을 따 먹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사랑하시는 창조주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원수에게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이 금지된 영역으로 침입한 것입니다.

아담이 이 금지된 열매를 맛보자,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세기 3:7-8).

무엇이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방문하러 오셨을 때 그들이 기뻐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이 사람들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보시는 그들의 창조주로부터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은 그들의 몸을 나뭇잎으로 가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12

죄와 사망의 법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사렛 예수 (요한복음 8:34).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에게 불순종했습니다. 사탄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녀들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던 분과 더 이상 함께 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기쁨과 확신의 감정은 두려움과 타락과 수치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창세기 3:8).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죄로 오염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하나님을 피해 숨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얻은 양심은 그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지각을 주었는데, 이것은 거룩한 사람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순수하지 못했고, 그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정녕 죽었습니다.

꺾여진 가지

어느 날, 제가 한 모스크 근처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몇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당시, 대화의 물줄기는 죄와 사망이라는 주제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의 가지 하나를 꺾고는 그들에게 “이 가지는 죽어 있나요, 아니면 살아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죽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보세요! 잎이 아직 푸르잖아요?”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는 “그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분리되어 있기에 사실은 죽어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성경에 따라 ‘죽음’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몸이 땅에 묻히기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만약 그가 금지된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종교의식을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을 베풀고 모스크나 교회에 참석하라고 말씀하셨나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죠.”라고 대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금지된 열매를 따 먹고 난 후, 바로 그날 엎드려 죽었나요?”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이 열매를 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거기서부터 저는 계속해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좀 더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께 불순종하려는 인간의 선택이 초래한 세 가지 차원의 분리입니다.

죄로 야기된 삼중적 분리

1. 영적인 죽음 :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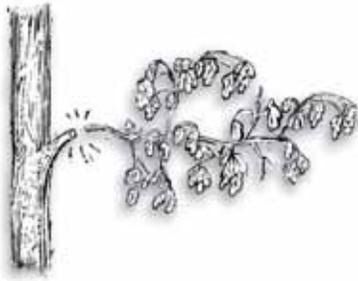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께 범죄한 날,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 나온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과 누렸던 친밀한 관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은 이와 같게 영적으로 죽은 ‘가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아...”(고린도전서 15:22).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아담의 후손이라고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신생아가 순수하고 죄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합니다.

잘려나간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서 분리된 결과로, 가지의 어느 부분이 죽었나요? 끝에 있는 잔가지를 포함해서 모든 가지가 다 죽었습니다. 이 잔가지들과 잎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 잠깐만요! 가지가 나무에서부터



꺾여 나간 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범한 잘못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순 없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분리되어 떨어져 나간 ‘가지’의 일부이고,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든 숲든 간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서 나게 될 모든 인류를 오염시킨 셈입니다.

제가 현재 이 글을 쓰고 있는 마을은 여기에서 몇 킬로 떨어진 세네갈 강에서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긴 하지만,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물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에는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우물에서 길어온 모든 양동이의 물은 다 소금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물도 깨끗한 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사람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조차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는 이유입니다. 죄는 그들 본성의 일부입니다. 선하고 친절할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하지만, 이기적이고 상처를 주는 행동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왜 우리가 본능적으로 죄를 범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시편 51:5).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여, 나면서부터 걸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시편 58:3).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시편 14:3).

세네갈의 월로프인들에게는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유명한 속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쥐는 땅을 파지 않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물든 아담은 죄를 짓지 않는 자손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속담에는, “전염병은 그것을 발생시킨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말이 비극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유전되는 선천적 결손증이나 전염병과 같이, 아담의 죄성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퍼졌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마서 5:12).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첫 구절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마지막 구절에 주목해 보세요. 우리 각자는 선천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하는 죄에 대해 아담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¹²⁾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이사야 59:2).

인간이라는 가지 전체는 창조주에게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에베소서 2:1).

2. 육체적인 죽음 : 사람의 영과 혼이 그의 몸에서부터 분리됨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을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꺾여진 가지에 난 잎이 즉시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의 몸도 그들이 범죄한 날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육체는 죽음이라는 적의 침입을 받았으며, 그들은 이 적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자손들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엄습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습니다. 아랍의 한 속담에는 “죽음은 빠른 낙타를 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

3. 영원한 죽음 :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됨

살아 있는 가지는 잎과 꽃과 열매를 맺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죽은 가지는 모아서 불살라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도록 설계된 특권도 상실했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도록 설계된 사람은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 불순종했습니다. 그 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시는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들의 몸이 죽자마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쓰레기 더미’에 영원히 격리되는 공포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나타난다고 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또한 ‘영원한 형벌’이라고도 불립니다.¹⁷⁾ 언젠가는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임시적 연옥’의 개념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부당하고 불합리해 보인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죄의 무게, 및 영원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수성과 죄의 오염성에 대해서는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영원의 개념에 관해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시간’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 지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영원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수십억 년을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원은 몇 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사람이 일단 이 도망갈 수 없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엄격한 논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결말을 맞이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3장에서) 그는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원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요한계시록 21:27).

이 점에 있어서 절대 타협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법칙에 따라 잘린 가지가 죽고 시들 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에 따라 죄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원한 분리’라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와 부끄러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으려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하심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의 임재에 대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순간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벌거벗은 것 때문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벌거벗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 하나님을 의식했고, “부끄러워하지 않았 습니다”(창세기 2:25). 이제 그들은 부자연스러운 자의식을 갖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반대편에 서게 됐습니다. 그들은 이제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밝고 순수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등이 켜지면 재빨리 기어들어 숨어버리는 바퀴벌레와 같이 그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 함이요”(요한복음 3:19-20)라고 한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발각되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 완벽한 동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들을 공포로 채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동산에 오셔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누가복 음 19:10)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창세기 3:9-11).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으셨던 처음 질문에 주목해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다정하면서도 마음을 꿰뚫어 보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아담이 죄로 인해 자기와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자기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된 사실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근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느껴 나무 사이에 숨었으며,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었고, 그분의 의로우시고 전지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죽음을 사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7)고 알려주셨을 때, 그것은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께 반역한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악당들’이 죽고 ‘선량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영화를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당들’에 대해 연민을 느끼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들이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아담의 모든 자손은 ‘악당들’이라는 것은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시편 14:3).

공의에 대한 창조주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책은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로마서 8:2)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는 모든 자는 마땅히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지키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죄의 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은 의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되었고, 죄와 사망이라는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이, 그들은 즉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관계가 죽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시들어가는 가지와 같이, **육체적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였습니다.

모든 것 중에 최악의 사실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죽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에스겔 18:20).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5).

하나님이 이 엄중한 현실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시는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입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집행될 것입니다.

13

인자와 공의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책은 이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수기 23:19).

매일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무한히 완벽하신 분은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디모데후서 2:13).

얼마 전, 저는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당신은 알라(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알라의 손이 자신의 법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용서를 구하는 자기의 종들을 용서하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금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왜 그분은 자신의 자비에 이러한 제약을 두시는 거죠?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러한 법을 만드신다고 해도, 그분은 전능하시니 즉시 그것을 파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궁극적인 능력을 소유한 알라(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분이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를 지옥 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지만, 그분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종들이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그들을 용서하시고자 할 것입니다. 알라께서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홀로 심판대에 서야만 할 때 우리 각자에게 자비를 베푸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선 장에서 생각해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람이 제기한 논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우리의 창조주께서 자신이 세우신 법을 자유롭게 무시하시고, 자신의 거룩한 성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실까요?

공의가 없는 인자

한 법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재판관은 재판석에 앉아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은행 강도와 잔인한 살인의 혐의가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법정은 증인들로 가득합니다. 살해된 희생자의 아내와 가족이 그 범죄가 일어난 은행의 직원들과 함께 출석했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보도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는 어떤 선고를 받게 될까? 사형일까? 아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될까?

법정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서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피고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이

성실하게 자선을 베풀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목주를 손가락으로 돌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더군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접대를 잘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나그네에게 음식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지만, 당신의 선행이 당신의 악행보다 많아 그쪽으로 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합니다. 당신은 사면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나가셔도 됩니다.”

재판관은 판결봉을 두들깁니다.

충격에 놀란 한숨 소리와 성난 군중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법정 가득 메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시나리오는 들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그에게 불리한 증거를 각각 양쪽 접시에 담아 비교해 보는 양팔 저울이 법정에서 상징적으로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그의 혐의가 인정되면 마땅히 적절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범죄자가 ‘선행’을 했는지 아닌지는 판결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악행을 무마시키는 선행’이라는 이 ‘제도’가 인간 세계의 법정에서 결코 사용될 수 없다면, 이러한 불공정한 과정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늘의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재판관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중 하나는 ‘**의로우신 재판관**’(디모데후서 4:8)입니다. 4,000년 전, 선지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창세기 18:25)라고 여쭙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시려고 공의를 절대로 제쳐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의로운 보좌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의 위엄을 깎아내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시편 89:14).

제 이메일 친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궁극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법을 무시하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자신이 심판하는 죄인들보다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인간에게 심오하고 선천적인 정의감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이와 같은 정의감을 가지고 계신다는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려 한다면, 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요! 우리는 모두 악을 벌하지 않는 재판관은 전혀 ‘위대할’ 게 없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예레미야애가 3:23-24).

이 선지자가 “주의 예측불가하심이 크시도소이다!”나 “주의 변덕스러움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보세요. 그와 같이 변덕스러운 신에게 우리는 어떤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을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습관적으로 부르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은 또한 “미쁘시고 의로우신”(요한일서 1:9) 분임을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균형 잡힌 속성

새가 날 수 있으려면, 어느 쪽 날개가 가장 중요할까요,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분명, 새가 날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합니다. 새가 한쪽 날개로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새의 속성, 중력 법칙, 및 기체역학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공의를 지키지 않으시면서 자비를 나타내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속성과 죄와 사망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는 항상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시편 101:1).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던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미상, 인자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마땅히 받을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호와께서 공의를 제쳐두지 않으시면서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인자를 나타내는 방안을 강구하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인자와 공의’를 노래한 이유입니다.

죄 사함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의 범죄가 충분한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그냥 잊을게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람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선택을 할 수 있을진 몰라도 무한히 거룩하신 재판관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기에 네 죄도 심판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또 그분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반드시 격리시키고 처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어떻게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인자를 베푸실 수 있을까요?

공의 없는 인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므로 아담과 하와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길 원하셨고, 영원한 불못에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후서 3:9).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처벌하셔야 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하박국 1:13).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인을 처벌하시지 않고도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까요? 죄의 오염은 어떻게 제거되며 완전한 정결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욥기 9:2)고 말한 선지자 욥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있을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와 같이, 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도 의로우심”(로마서 3:26)을 나타내시려고 ‘의로우신 재판관’이 행하신 일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굳게 세우면서 당신에게 인자를 베풀기 위해 행하신 일을 알고 계시나요?

그 해답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행은 계속됩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의 범죄한 조상들과 그들의 재판관이 되신 창조주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세기 3:9-13).

여호와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하셨을까요? 한 부모가 불순종한 자녀가 행한 일을 알면서도 그에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죄와 불법을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각각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 타인을 비난하려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뱀이 저를 꾀었어요!’ 그들은 인간이었고 로봇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 각각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 말고는 누구도

탓할 수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 13-15).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의 계획을 따르는 대신,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기 욕심”을 따랐습니다.

하와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고 속았습니다.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아담의 경우, 그는 의도적으로 창조주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디모데전서 2:14).

의도적이든 속은 것이든 모두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선언한 것은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의와 생명의 나라에서 죄와 사망의 영역으로 인도한 책임을 하와가 아니라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의 머리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만, 특권이 큰 만큼 책임도 컸습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 모두를 오염시켰지만, 우리가 선택한 죄에 대해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로마서 14:12).



14

저주

숨김과 변명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길을 선택했지만, 그 길의 결과를 선택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의로우신 재판관이 인간의 죄가 초래한 일련의 저주와 결과들을 선고하실 때 잠잠했습니다.

뱀

주님은 우선 ‘뱀’의 운명을 선고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세기 3:14-15).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인 이 뱀은 누구였나요? 창조주께서 한낱 파충류에게 화를 내신 걸까요?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단계의 메시지가 있는데, 특히 비유와 예언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명확한 ‘표면적 의미’가 있고, 또 그보다 덜 명확한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위의 선고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뱀에게 임한 저주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 지속적인 예시

우선, 여호와께서는 뱀을 저주하심(뱀에게 심판을 선고하심)으로 인류의 눈앞에 계속해서 보이는 실물교훈을 두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는 데 사용한 파충류는 이후로 지면에 미끄러지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뱀은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분명 뱀은 다른 파충류들처럼 다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비단뱀과 보아뱀 같은 어떤 종의 뱀들은 앞다리 뼈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¹²⁸⁾

죄는 범죄한 피조물이든 무고한 피조물들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지 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는”(로마서 8:22) 것은 죄 때문입니다. 무고한 동물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인간의 선택을 ‘타락’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 사탄의 임박한 운명

성경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베드로후서 1:20)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뱀’에 대한 저주의 후반부에 선고하신 말씀은 성경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록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세기 3:15).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뱀은 누구였나요? 성경은 그를 “땅에 째힌”(이사야 14:12) 교만한 천사라고 밝힙니다. 그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꺾는 자”(요한계시록 12:9)입니다.¹²⁹⁾

이 뱀은 다름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어울리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자의 운명을 선고하셨습니다.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는 ‘원한(화목할 수 없는 적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성취될 것입니다.

두 ‘후손들’

두 ‘후손들’에서 두 후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뱀의 후손’은 사탄과 같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사탄의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한복음 8:44).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유일한 개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사람의 후손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발표하신 이 선언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시게 될 메시아를 가리키는 첫 번째 예언이었습니다. ‘메시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택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백성들의 인도자로 하나님께 선택될 때마다 선지자와 같이 공인된 사람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가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¹³⁰⁾

그러나, 메시아는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를 것입니다. 그분은 유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실 것입니다. 역사상 딱 맞는 시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실”(히브리서 2:14-15)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던 날,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다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예언은 아담과 하와와 그들의 후대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최초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중에 세세히 발전시킬 수많은 근본 진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¹³¹⁾

저주

여호와께서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해 신중하게 예언하신 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몇 가지 실제적인 결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결과들은 흔히 ‘저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 3:16-19).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창조주께 대하여 반역을 선택함으로써,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이 생기는 기쁨은 이제 고난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곡식, 과일, 및 채소를 자연적으로 산출하는 대신, 저주를 받아 오히려 잡초, 가시, 및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쉼과 누림은 고생과 수고로 대체되었습니다. 더 불행한 일은 덧없는 인생이 ‘죽음’이라는 폭군의 그림자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죽음은 정상적인가?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곤란, 고난, 상실, 깨어진 관계, 질병, 노화 및 죽음 등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이 지구에서 만물이 왜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많은 지성인은 인간의 가련한 상태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죄의 유입과 효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¹³²⁾

세네갈 사람들은 때때로 (주로 장례식에서), “하나님은 삶을 창조하기 전에 죽음을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철학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논리적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해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고린도전서 15:26)이라고 묘사한 성경 말씀에도 위배합니다.

악, 슬픔, 곤란, 고난, 및 죽음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것들은 암세포가 건강한 사람의 신체에 정상적인 요소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자연스러운 요소가 아니라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온 요소들입니다.

달콤한 향내를 풍기는 장미꽃에 난 가시와, 곡식을 수확하는 데 요구되는 고생, 사랑스러운 어린아이에게서 보여지는 고집스러움,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학대하는 것, 출산의 경이에 수반되는 고통, 신체의 면역체계를 파괴하는 질병, 노령의 잔혹함, 그리고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혹독한 현실 등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서로 싸우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사람은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물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의와 평화가 온 땅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최초의 조상이 죄와 사망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인류가 더럽혀지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영향을 받다

“하지만 그것은 불공평합니다!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라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율로프의 격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그것을 발생시킨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삶은 더 이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한 가지 죄의 결과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로마서 8:22).

모든 만물이 죄의 저주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창조주께서 태초부터 과감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계 기술자가 시계 속에 시곗바늘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해서 시간에 맞춰 바늘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주의 창조주께서도 세상에 사탄, 죄, 및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상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목적’뿐 아니라, 죄의 저주를 뒤집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슬픔, 고통, 및 죽음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존재하지 않았었고 그것이 끝날 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죄와 그로 인한 저주는 폐지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다시 저주가 없으며”(요한계시록 21:4, 2:3).

우리의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뒤 한 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습니다. 이것은 죄와 부끄러움을 덮으려는 인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자기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창세기 3:21).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히셨습니다. 이를 위해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양이나, 혹은 적절한 동물 한 쌍을 선택하시고 잡으신 뒤 ‘가죽옷’을 만드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

님께서서는 이를 통해 그들에게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거룩한 성품이 어떠하신지, 또 부끄러울 만큼 부적합한 죄인들일지라도 어떻게 그분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특별한 옷을 만들어 주심으로 자기에게 반역한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호의’ 말입니다.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영원한 형벌).
‘인자’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형벌을 면함).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짐승을 죽이심으로 그들이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길 바라셨습니다(시편 86:15, 시편 7:9). 죄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답고 천진난만한 동물에게서 솟구쳐 나오는 피를 보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생생한 실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날 죽었어야 했던 만 무고한 동물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피의 제사를 시행하셨습니다. 이후 그 뒤를 이어 수백만의 제사가 드러질 것입니다.

또한, 짐승의 가죽옷을 그들에게 선물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직접 ‘입혀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도 주목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지만 그들의 노력은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분만이 그들을 그들의 죄와 부끄러움에서부터 구원하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이 쫓겨나다

창세기 3장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하나님의 하늘 보좌 주위에서 시중드는 특별한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3:22-24).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뜻을 앞세운 후 천상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난 것과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행동함으로 지상의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생명 나무’(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혼동하지 않기 위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여행의 끝부분에 가서 천상의 낙원에 있는 이 특별한 나무에 대해 또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생명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거부했고 영원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즐거운 교제가 죄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심각한 문제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5

이중적 문제

‘탈옥수, 38년 도주 끝에 다시 체포되다.’

2006년 5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1968년 캘리포니아 감옥에서 강도 죄로 수감 중이다가 탈옥한 스미스씨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는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어머니의 결혼 전의 성(姓)을 도용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며 살다가, 결국은 미국 중부의 숲이 우거진 지역에 설치된 이동식 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당국에게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크릭 카운티 보안 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땅을 내려다본 뒤 고개를 들고는 ‘네, 접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찾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¹³³⁾

스미스 씨가 집요한 법의 그물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는 그 누구도 의로우신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분의 드넓은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범법자는 누구일까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요한일서 3:4).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한 법에 불순종한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들의 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형사상 범법자입니다.

신기루를 쫓는 낙관론자들

얼마 전, 한 이웃이 제게 “저는 낙관론자예요. 저는 제가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낙관론과 ‘자기 노력’이 심판 날에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의 죽음의 계곡(지상에서 가장 무더운 사막 중 하나)을 여행하는 동안, 멀리서 빛나는 호수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호수’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또 그러한 ‘호수’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신기루였습니다.

신기루는 온도와 밀도가 다른 공기층을 통해 굴절되는 광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호수들은 실재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로마서 5:6).

메마른 사막에서 길을 잃고 자신이 마실 물마저 바닥에 쏟아버린 한 남자와 같이, 인간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일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요 나...”(사무엘하 14:14).

길을 잃은 사람은 자신이 본 것을 생명의 오아시스라고 간절히 믿고 싶을 테지만, 이 ‘오아시스’는 더욱더 지독한 폭염으로 바뀔 뿐입니다. 이 절망적이고 탈수증세를 보이는 남자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신기루 속을 터벅터벅 걸어가다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죄인의 낙관론, 성실성, 및 종교적인 자기 노력이 이와 같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

오늘날,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기에게 옳아 보이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종교의식과 몸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낭독하고 특정 음식을 삼가며 헌금을 하고 촛불을 밝히고 염주를 돌리고 주문을 반복하며 그들이 선행이라고 믿는 바를 행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데 집중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거룩하고 정의롭다고 믿는 명분을 위해 순교를 당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쯤이면 그들이 신기루를 좇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아에 대한 정확한 시각

월로프 속담에는 “진리는 매우 고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소 불편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엄중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 그분께 정직하도록 권고하십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마치 저와 제 아내의 지인 중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한 이웃과 같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적절한 의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현실을 부정하면서, 막연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녀는 몇 주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자기들이 충분히 선하다고 믿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가복음 2:17).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모스크, 및 회당에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선한지, 혹은 그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 될 거라고 가르치고만 있습니다. 그들은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의와 죄의 엄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모스크의 입구에는 이러한 메시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환영하며 아무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입구에 그와 다른 메시지를 게시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느니라”(요한계시록 21:27).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로마서 3:23)**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그의 공로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결이라는 완벽한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절대적인 순결과 놀라운 영광에 대한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웃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하였더라”(이사야 6:1-5).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찬란한 영광이 너무 커서 완벽하게 순결한 천사들도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크게 압도되어 그분의 임재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분의 보좌 주위를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칩니다.

왜 사람들 대부분이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불타는 순결함을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는 경건한 선지자였지만 주님의 거룩한 광채를 보았을 때 자신의 더러움과 불결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는 자기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과 비교할 때 절망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후에 이사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이사야 53:6, 64:6)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무리 많은 정결 의식이나 자기 노

력을 다한다 해도 여호와 앞에서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¹³⁴⁾ 기록하신 창조주의 판단에 따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습니다”.

선지자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라?...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잣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욥기 9:2, 30-31)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더러운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잣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예레미야 2:22).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각은 자아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부정확한 생각은 우리로 우리 자신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더럽고 질병으로 오염된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깨끗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비교할 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훈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 중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신실함을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교훈 받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고린도전서 10:6).

토라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수 세기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와 그분의 성품에 대해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어떻게든 그분께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도 자신만만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출애굽기 19:8)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조건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로부터 분리된 것이 단 한 가지 죄 때문이었음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기 위해 10가지 면에서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권능과 영광중에 시내산에 내려오신 장면을 묘사하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10가지 계명을 큰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레와 번개와 뽁뽁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출애굽기 19:16).

십계명

1.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여호와를 제외한 어떤 것을 숭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매일 매 순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¹³⁵⁾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비단 어떤 형상에 절하거나 어떤 물체를 숭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이 법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3.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은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곱째 날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공경하길 요구하셨습니다.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온전한 순종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죄가 됩니다. 한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무례를 범하거나 심지어 불손한 태도를 가지기만 해도 그것은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6.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요한일서 3:15)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는 살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며 항상 이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7. “간음하지 말라.” 이 법은 몸을 부도덕하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 속에 일어나는 부정한 욕망을 말합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8).

8. “도둑질하지 말라.” 내가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취하거나 세금 또는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이나 고용주에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도둑질입니다.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완전한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10.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아무 소유라도 탐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유죄!

여호와께서 이 십계명을 발표하신 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출애굽기 20:18).

그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실천하셨나요?

모든 십계명에서 100%(당신이 출생한 순간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주 7일, 하루 24시간 동안의 완벽한 순종을 의미함)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또 저와 같이, 이 시험에 불합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10).

본서의 첫 장에서, 우리는 성경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척당하는 책임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그토록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자존심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요한계시록 3:17)라고 말해주며,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전도서 7:20)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로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의도된 것도 아닙니다.

왜 십계명인가?

그러면 이 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 없다면, 그분은 왜 굳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인류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문명이든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결여된 문명은 무정부 상태에 빠지거나 독재자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사회에는 법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로마서 3:19-20).

십계명의 세 가지 기능

1. 하나님의 법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을 잠잠케 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십계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도 너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는 심판 받을 범법자이다. 그러니 자랑을 멈추라!”¹³⁶⁾

2.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방사선 촬영으로 부러진 뼈나 충치를 발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충분히 선하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죄인에게 십계명이란 더러운 얼굴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더러운 것을 보여줄 뿐, 그것을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드러내지만, 그것을 제거할 순 없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세네갈에 있는 한 가톨릭 중학교의 수학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법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충격적인 계시였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우리에게 거룩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또 우리가 선행이나 기도나 금식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안내합니다.

병원에 있는 엑스레이 기사가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그 부러진 뼈를 교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안내하는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실”(갈라디아서 3:13) 수 있는 유일한 ‘의사’에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잠시 후 그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¹³⁷⁾

살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당신을 구출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겠습니까? 당신이 죄의 치명적인 형벌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데 오직 하나님만 그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이 삶의 어떤 영역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죄악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논할 때는 정확히 그 반대말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를 도우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유명한 아프리카의 속담에는, “통나무가 물속에 아무리 오래 잠겨있어도 결코 악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신의 더러운 본성을 바꿀 수 없고,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더럽혀진 죄인

아담을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셨

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 순종했다라면, 그들은 영원히 살면서 그분과 놀라운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죄인으로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무화과나무 앞으로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셨고, 그분의 인자와 공의의 단편을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분의 임재로부터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되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 한 그들은 영원히 추방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창조주와 재판관이신 분 앞에서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길래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죄로 충분했습니다. 그들 편에서 이전에 아무리 많은 ‘선행’이나 그에 따른 ‘자기 노력’이 있었을지라도 이 한 가지 죄로 인한 결과를 무마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더 이상 ‘선’한 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물이 담긴 잔에 청산가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격이었습니다. 독이 섞인 물 한 잔에 맑은 물을 더 붓는다고 해서 그 독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무마시킬 수 없습니다. 혹 선행이 죄를 제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죄악 된 본성에 더 부을 수 있는 ‘맑은 물’, 즉 진정으로 의로운 행실이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최선의 노력일지라 더러워졌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영혼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고,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오염된 조상에게서 났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판결을 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시편 14:2-3).

우리의 이중적 문제

1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영국 감옥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감방의 문이 열리고 간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힘내!” 간수가 소리쳤습니다. “여왕님이 자네를 사면해 주셨어!” 그런데 놀랍게도 죄수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봐, 힘내라니까!” 간수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는 한 서류를 치켜들었습니다. “여기 사면장이 있어. 여왕님이 자네를 사면해 주셨다니깐!”

이에, 죄수는 상의를 들어 올리고는 흥측해 보이는 종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암에 걸렸습니다. 아마 며칠이나 몇 주 내에 죽을 거예요. 여왕님이 혹 이것도 제거해 주신다면 모를까, 사면 따위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사면’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이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와 같습니다. 날 때부터 그리고 선택에 따라 죄인이 된 우리에게서 이중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함과 동시에 그분의 거룩한 임재 속에 살 수 있도록 의롭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이중적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죄** : 우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면이** 필요합니다.

- **부끄러움** :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덧입혀주실 수 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중적 치료책을 요구합니다. 이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16

여자의 후손

어느 춥고 안개 낀 밤, 두 명의 어린아이들이 깊고 미끄러운 구렁이에 빠졌습니다. 둘 다 상처를 입었고 당황했으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곤경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구렁이 밖에서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 죽음이 곧 엄습해 올 것입니다. 밖에 있던 세 사람이 살려달라는 필사적인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중 하나가 로프를 가지고 어두운 구렁이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위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은 날, 그들은 이 두 아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빠진 죄의 구렁이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은 죄에 빠진 인류의 바깥, 즉 위에서부터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인간의 상태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 세기에 걸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예외 없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저주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의 저주와 결과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구덩이로부터 건져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죄 없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고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날, 그 첫 번째 단서를 제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뱀’(사탄)에게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15).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최종적으로 사탄을 깨뜨리며 악을 제거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한 남자아이를 통해 이루어질 일임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타날 수백 개의 예언 중 첫 번째 예언이었고, 그 각각의 예언은 이 구원자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의 역사적 순간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리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인가?

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을까요? 왜 그분은 남자에게서가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셨을까요?”(갈 4:4).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죄인들의 구세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아담의 죄악된 인류에게 찾아오실 때 죄악의 구덩이 밖에서부터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최초의 예언을 발표하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함)이라 하리라”(이사야 7:14).

구세주는 남자와 육체적 관계가 전혀 없었던 한 젊은 여자의 태를 통해 인간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지 않고 죄에 빠진 아담의 후손들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잠깐만요! 여자도 죄인인데요. 메시아만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어머니의 죄성에 오염되지 않았을까요?”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두 페이지에 걸쳐, 이 기적적인 개념에 대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죄 없는 아들을 처녀의 몸을 통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약간 덜 분명한 요소들에 대해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는 어떻게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퍼진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죄로 더럽혀지지 않으신 분

우리가 제13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인류를 죄와 사망이라는 사탄의 나라로 인도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와는 속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아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¹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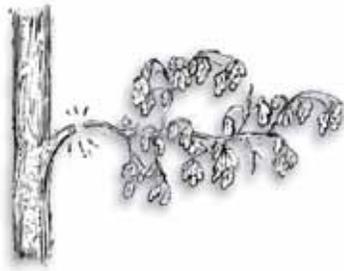
히브리어로, ‘아담’은 문자적으로 ‘붉은 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창세기 3:19)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최초의 여자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창세기 3:20)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고 “여자의 후손”(창세기 3:15)을 통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메시아가 혈과 육을 가지셨을지라도 그분은 죄로 오염된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로 더럽혀지지 않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는 한 아이의 성이 그 어머니의 ‘씨’(난자)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씨’(정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태 속의 아기가 잉태될 때로부터 어머니의 순환계와 구별된 순환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학은 우리에게 “태반에는 배아에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면서도 어머니의 피와는 분리시키는 독특한 장벽이 형성되어 있다”고 말해줍니다.¹³⁹⁾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일에 대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꺾여진 가지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나무에서 분리되어 죽은 가지와 같이, 인류의 가족은 영적으로 죽었고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잘려나갔습니다. 죄인들의 구주는 영적으로 죽었고 죄로 더럽혀진 아담의 가족 가운데 사셨지만, 그분의 기원은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참 포도나무”(요한복음 15:1)요,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셨습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그분의 몸에 여드름, 멍, 굵힌 자국 등이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격적으로 온전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죄 없는 본성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히브리서 7:26)이셨습니다.

죄 없는 메시아가 **둘째** 사람과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둘째 사람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나.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45-47).

‘첫 사람’이 모든 인류를 더러움과 죽음이 지배하는 사탄의 어두움의 나라로 인도했듯이, ‘**둘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의와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류가 죄로 물들게 되던 그 날, 여호와께서는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세상에 오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 완전히 깨뜨릴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 약속된 구주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미가 5:2, 4-5).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¹⁴⁰⁾ 마을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그의 근본이 **상고(上击)**와 영원에 있다”는 구주의 ‘**선재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영원에서부터 시간 속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신 분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잉태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선포한 선지자들은, 또한 그분이 오실 것을 알리는 한 선구자가 그분 앞서 나타날 것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인자)이라는 호칭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앉은뱅이를 걷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실 것입니다. 또 조롱을 당하시고 침 뱉음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자의 무덤에 묻히시지만, 그분의 시체는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침내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시며, 자신의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¹⁴¹⁾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이 선지자들이 작성한 이러한 프로필을 가졌을까요?

이분이 바로 역사를 둘로 나누신 분이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다

수 세기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및 솔로몬의 계보를 통해 구주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아랍어 : ‘인질’(Injil))은 이러

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다음에 이어진 말씀은 “다윗 왕은 솔로몬을 낳으니라.”를 포함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마태복음 1:1-2, 16)로 끝나는 긴 계보입니다. ‘그리스도’(Christ)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택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메시아’(Messiah)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¹⁴²⁾ 이러한 계보는 다윗 왕의 보좌에 오르는 합법적인 권리를 문서화하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자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실행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로마서 1:2-3)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가복음 1장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방문하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사가랴의 임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브리엘이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경건한 젊은 여인을 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누가복음 1:26-37).

죄인들의 구주

몇 달이 지나,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외도한 것으로 오해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정된 결혼을 취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마태복음 1:19-21).

창세기 1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¹⁴³⁾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 초자연적으로 잉태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JESUS)라는 이름은 헬라어 ‘예수스’(IESOUS)를 영어로 음역

한 것인데, 이 말은 히브리어 ‘예호수아’(YEHOSHUA) 또는 축약형 ‘예수아’(YESHUA)에서 온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태복음 1:22-25).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다

하나님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 처음 계시하셨던 계획을 마침내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제 곧 태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페이지 앞에서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에 관한 미가의 예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서 수일 길 떨어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었을까요? 문제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을 움직이셔서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누가복음 2:1-7).

예언된 메시아는 안락하고 웅대한 왕궁을 통해 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비천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축을 먹이는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분께 다가올 수 있도록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천사의 선포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누가복음 2:8-14).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 중대한 밤이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첫아들을 낳아…”(누가복음 2:7).¹⁴⁴⁾

여자의 후손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일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¹⁴⁵⁾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축하했을 뿐 아니라, 밤하늘에 특이한 별을 두심으로 이 기쁨의 사건을 축하했습니다. 동방의 천문학자이자 부유한 박사들이 이 별을 관찰했고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표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저명한 박사들은 머나먼 페르시아에서부터 길고 험난한 여행을

마친 후, 마침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사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¹⁴⁶⁾



아기 속에 계신 분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천사들이 알렸으며, 목자들이 방문했고, 큰 별이 경축했으며, 또 동방 박사들이 경배했고, 마구간에 태어나 여물통에 누인 이 남자 아기는 누구였나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한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이 자그마한 아기 속에 계신 분은 **여호와**였습니다!



17

이분이 누구시기에?

“뛰는 가젤은 굴을 파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 - 월로프의 속담

‘가젤’(작은 영양)이 가젤의 특성을 가진 새끼만을 낳듯이, 죄인들도 죄악의 본성을 지닌 자손들을 낳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반복되는 죄악의 악순환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악된 사람들

미국의 영화산업을 생각해보십시오. 매년 헐리우드는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작하고 수출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남녀 할 것 없이 이기심, 부도덕함, 변태성, 추잡한 말, 폭력성, 복수 및 속임 등의 죄악상을 보여줍니다. 왜 시나리오 작가들은 죄악의 특성들을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포함할까요? 왜 의롭고 친절하고 이타적이며 용서할 줄 알고 정직한 ‘주인공’을 그려내는 영화는 만들지 않을까요? 그것은 인류가 죄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훌륭한 인품이 남아있다 해도, 그것조차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염은 헐리우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미묘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

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랍계 출신이라면, 수 세기 동안 전해 내려 오는 전통적 인물들 가운데 ‘주하’라는 한 인물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하와 그의 나귀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 영리한 인물에 관해 수백 가지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그의 말과 행동은 재치와 유머, 그리고 대개는 자기중심적 태도, 모욕적인 정신, 부정한 생각, 복수, 속임, 및 약속을 어김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상의 인물들조차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하의 이야기에서 발췌한 한 가지 간단한 예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주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는 말합니다. “네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지? 네가 약속한 대로 돈을 좀 빌리러 왔어.”

주하가 그에게 말합니다. “응, 근데 난 아무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약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¹⁴⁷⁾

우리 자신을 소설 속의 주하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킬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하’와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¹⁴⁸⁾ 자신이 말한 모든 약속을 지키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속이거나 모욕하지도 위협하거나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베드로전서 2:22-23).

죄가 없으신 분

예수님의 생애는 죄로 오염된 세상의 문화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

다. 그분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습니 다**”(히브리서 4:15). 그분은 어떤 불순한 생각도 마음에 품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떤 불친절한 말도 입에 담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복 형제, 자매들과 나사렛의 비천한 가정에서 자라실 때,¹⁴⁹⁾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안팎으로 자연스럽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악된 본성은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요한일서 3:5).

30세 때,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¹⁵⁰⁾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 것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탄이 ‘첫 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한 것 같이, 이제 온전한 사람이신 ‘둘째 사람’, 예수님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누가복음 4:1-4).

사탄이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마귀는 단지(‘자기의’ 영역을 침입해 온) 이 죄 없는

사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1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메시아께서 이 한 가지 죄를 범하셨더라면, 그분은 저주를 받은 아담의 자손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큰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빛을 갠아줄 자격이 없는 것과 같이, 죄인은 다른 죄인이 범한 죄의 값을 대신 갠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인자)¹⁵¹⁾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빛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완전히 지나쳐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과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죄를 범하시도록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셔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¹⁵²⁾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누가복음 4:5-8).

마치 하나님이 아담에게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신 것 마냥, 이제 사탄은 아담이 그를 따르기로 했을 때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통치권을 다시 예수님에게 제안하고 있었습니다.¹⁵³⁾

아담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탄에게 복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에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데리고 다닐 열두 명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여인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해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누가복음 8:1-3).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똑같이 존중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당대의 유대와 로마 문화를 초월하는 존엄성과 친절함으로 여자들을 대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무한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셨지만, 아무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다그치거나 그분을 믿고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따르는 데 요구되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꺼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핵심 질문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마태복음 22:42).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된 구주가 '땅의 다윗의 자손'이자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이시라는 다윗의 예언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¹⁵⁴⁾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3-17).

머지않아 우리는 모두 이와 똑같은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신가요?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

많은 서양인에게 '예수'는 단지 저주의 말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훌륭한 도덕 교사일 뿐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조차 피하면서 그분을 단지 '그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힌두교는 예수님을 그들의 여러 잡신 중 하나가 신적인 '자기 현현'(self-embodiment)을 한 것으로 여깁니다.

제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긴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 이메일 친구는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습니다...우리는 예수가 단지 선지자일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가 되살아나면,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 편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이 일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우리의 이 매력적인 종교를 믿어 참 빛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이메일 친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과 같이 되시거나 인간처럼 보이신 적이 없었다고 믿습니다...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성모독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 쿠란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반영합니다.

쿠란이 말하는 것

쿠란은 예수님이 “선지자에 불과하다”(수라 4:171-173, 5:75, 2:136)고 반복해서 진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들이 숭배하는 이 책은 또한,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선지자 중에 유일하다고 전하면서, 그분을 “마리아의 아들 예수”(Isa ibn Maryam: 수라 19:34)라고 부릅니다. 쿠란은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죄라고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¹⁵⁵⁾ 또 쿠란은 예수님을 생명을 창조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유일한 선지자로 나타냅니다.¹⁵⁶⁾ 그리고 쿠란이 ‘알 마시’(메시아), ‘루 알라’(하나님의 영/혼), 및 ‘칼리맛 알라’(하나님의 말씀)라는 높은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¹⁵⁷⁾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이러한 쿠란의 증거를 살펴볼 때, 쿠란이 예수님을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묘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 언급된 칭호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하는 쿠란의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알라가 보낸 사자에 불과하며, 알라가 마리아에게 전한 알라의 말씀이자, 알라에게서 온 영이니라. 그러므로 알라와 그의 사자들을 믿으며 ‘셋’이라 말하지 말지어다. **멈출 지어다! 그것이 네게 나오니라! 알라는 한 분이시라. 그의 한 없이 크신 위엄을 생각할진대, 어찌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오!**”(수라 4:171, 픽홀).

세네갈에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뿐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확신 있게 단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아이디어 역시 쿠란이 선포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리아에게 커다란 거짓 혐의를 자랑하며 이르되 ‘우리가 알라의 사자,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죽였노라.’ 하나 **실상은 그들이 그를 죽이지도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지도 않았더라.** 무릇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더니 이를 달리 생각하는 자들은 확실한 지식이 없으므로 의심이 가득하였으되 추측을 따를 뿐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확실히 죽이지는 아니하였음이라. 오직 알라께서 그를 자기에게로 올리셨으니, 알라의 권능과 지혜를 찬양할지어다”(수라 4: 156-158).

성경이 말하는 것

쿠란이 기록되기 수 세기 전, 구약과 신약성경을 기록한 40여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메시아와 그의 사명에 대해 서로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칭호에 관해, 3년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0-31).

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3, 14).

수년 전, 한 무슬림 친구가 제게, “쿠란은 예수님에게 ‘칼리맛 알라’(Kalimat Allah)와 ‘루 알라’(Ruh Allah)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신성모독이자 ‘시르크’(Shirk: 아랍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죄¹⁵⁸⁾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홀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라 하산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요한복음 10:30-33).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루시퍼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일, 즉 하나님께만 속한 유일하고 높은 위치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말한 셈입니다.

신격화가 아닌 성육신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사람은 하나님이 될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것’을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가 태어나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2, 6).¹⁵⁹⁾

이사야는 또한 오실 메시아에 관해 이러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이사야 40:9).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신격화’(deification)가 아니라, ‘성육신’(incarnation,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지만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이 되셨다’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문서로, 그리고 몸소 인간으로

당신이 누군가를 잘 알고자 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 당신의 의사소통 수단을 편지쓰기로 국한한다.
- 아니면, 일정 기간 편지를 주고받은 뒤, 그 사람을 직접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성경만큼 놀라운 사실은, 한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거하셨으며 그들의 후손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사소통 수단을 문서로 국한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태초부터 그분은 우리와 ‘직접 몸으로’ 소통하고자 하셨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로 파피루스 두루마리와 동물의 가죽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자신을 나타낼 것을 약속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을 입으신’ 그분의 말씀(Word)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히브리서 10:5).¹⁶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디모데전서 3:16).

하나님의 위엄을 격하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계획을 반복해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한 없이 크신 위엄과는 거리가 멉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육신의 개념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도,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엄을 격하시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재정립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계획에 꼭 필요한 요소 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경험한 것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친밀감을 느끼곤 합니다. 위로와 도움을 주기에 가장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비슷한 고난과 슬픔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는 ‘최고의 위로자’이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서 2:14, 18, 4:15).

태초부터 하나님은 유한하고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즉, 손톱에 때가 끼고, 배고프고, 상처를 입으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똑같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계획을 거부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바라는, 신실하시고 사랑하시는 창조주로 계시하시는 것을 받

아들이기는커녕, 그분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분으로 치부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하기 위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 오길 주저하는 사람에게서 아무런 ‘영광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창조주는 자신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떨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의 설계요 그분의 즐거움이었습니다.¹⁶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8:9).

영원하신 말씀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바로 당신과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광과 위엄이 “충만하신” 만물의 창조주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난하게 되셔서” 돈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용서, 의, 영생, 사랑, 기쁨, 평안, 및 거룩한 소원 등과 같은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함을 정의하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의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대함’에 대한 그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정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가복음 10:42-45).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신을 가장 낮추며 다른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는 자입니다.¹⁶²⁾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바람과 파도의 주인

어느 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마태복음 8:24-27).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이기에?”

분명 예수님은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함과 배고픔과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일어나셔서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즉시 그 사나운 바람은 멈추었고, 일렁이는 바다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1,000년 전,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시편 89:8-9).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장면도 있습니다.¹⁶³⁾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마가복음 6:51).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기 위해 파도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로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 선지자 욥은 하나님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찌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욥기 9:8).

이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이 점들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그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요한복음 1:10).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어느 날 자기에게 적대적인 종교인 무리에게 말씀하시던 중, 친히 이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I AM)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요한복음 8:12, 51-53, 56-59).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1,9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보다 앞서서 존재하심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의 개인적인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I AM)라고 칭하셨습니다.¹⁶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했고 돌을 들어 그분에게 던지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 될 만한 분이심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4:10)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분께 경배했던 10가지 이상의 사례를 기록합니다.

어느 날, “한 나병환자가 나아와 절하며¹⁶⁵⁾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마태복음 8:2-3).

예수님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이 나병환자를 꾸짖으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단순히 그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도마라 이름하는 한 제자가 그분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꾸짖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되도다”(요한복음 20:28-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선택은 당신의 몫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 각자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 대해 자기 모순적 견해를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만일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 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영원하신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보다 못한 분’으로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¹⁶⁶⁾

한때는 회의론자였고 20세기의 위대한 지식인들 가운데 하나인, C. S. 루이스는 예수님에 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종종 그분에 관해 ‘저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라고 내뱉는 참으로 어리석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막고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해서 위대한 도덕 선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로 말하자면, 그분은 미치광이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지옥의 악마’일 것입니다. 당신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미친 사람이나 혹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지 말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바보로 취급하며, 입을 다물게 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침을 뱉을 수도 있으며, 그분을 악마로 보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주님과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를 한낱 ‘인류의 위대한 선생’ 정도로 보는 건방지고 터무니 없는 생각은 하지 마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셨고, 또 그럴 의사도 없으셨습니다.”¹⁶⁷⁾

“밝히 말씀하소서”

종종 어떤 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그같이 말하도록 강요했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요한복음 10:9, 24-25, 30-33).

왜 유대교 군중들이 그분을 돌로 치려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주장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선언할 때,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카드**”[주 우리의 하나님, 주는 **하나**(세 분이 하나되심)이십니다]를 의미함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¹⁶⁸⁾ 이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분을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과시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돌아다니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온전한 겸손과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었고, 그분 자신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영광이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신분에서 스스로를 낮추어, **사람의 아들(인자)**이 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겸손하지만 강력한 방법으로 전달하고자 하셨습니다.

한 번은, 한 부유한 청년이 예수님께로 와서 ‘**선한** 선생이여!’ 하며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누가복음 18:19)고

물으셨습니다.¹⁶⁹⁾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격화된 예수님께서는 그가 지식의 퍼즐 조각을 잘 맞추어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길 바라십니다.¹⁷⁰⁾

행동으로 말씀을 뒷받침하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은 타락하고 죄의 저주를 받은 피조물의 모든 요소에 대한 그분의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적은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셨고, 폭풍을 잔잔하게 하셨으며, 악령들을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말씀이나 신체접촉을 통해,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여호와의 팔’이었습니다.¹⁷¹⁾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한없이 크신 위엄은 그분의 온몸을 통해 비쳤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그분의 말씀을 입증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말씀이 사실임을 어떻게 증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주 예수님께서 나흘 전에 죽은 한 사람, 나사로의 무덤가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시체는 동굴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죽은 자의 누이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오라비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누이는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4-25)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요한복음 11:43-46, 53, 12:10-11).¹⁷²⁾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강박한지요!

강박한 마음

예수님의 말씀과 날로 더해가는 그분의 인기를 시기하여, 유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열심을 내어 푹푹 뭉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잠잠케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라도 다 찾아서 예수님을 고소하여 사형에 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을 어떻게 고소할 수 있었습니까?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종교 지도자들이)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종교적인 당파)이 나가서 곧 헤롯당(정치적인 당파)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큰 무리가 따르며…나아 오는지라…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 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마가복음 3:1-11).

귀신의 통찰

귀신들은 이 치료자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며 그분을 합당한 칭호로 불렀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은 모두 예수님의 과거 이력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그들은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사탄을 따라 반역에 가담하기로 선택한 후 그분의 의로우신 진노 가운데 하늘에서 내쫓기던 날을 회상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¹⁷³⁾ 그리고 지금 그분은 바로 이곳에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 글이 벽에 씌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인, 사탄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죄의 저주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친히 그들의 영역으로 침입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여 그분을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몇 손님들에게 말하고 난 뒤, 그중 한 사람은 “와! 놀랍습니다! 이 귀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께 대해 더 많은 존경심을 가졌군요!”라고 말했습니다.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18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에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사도행전 15:18).

시간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죄가 인간 세계를 오염시킨 바로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하셨으나, 일종의 암호화된 방식으로 알려셨습니다. 성경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그 비밀’(요한계시록 10:7)이라 부릅니다.

오늘날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사람들 대부분에게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아닌 이유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기”(골로새서 1:26) 때문입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큰 특권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베드로전서 1:10-12).

하나님은 왜 자신의 계획을 암호화하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그분이 계획하신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타락한 인류에게 즉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분은 자신의 메시지를 비밀 속에 꾀꾀 싸매어 두셨을까요?”라고 묻곤 합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시지만, 그분은 자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왜 인간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암호화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펼쳐 보이기로 선택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5장과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심으로 수많은 **확증의** 예언과 상징들뿐 아니라 다수의 확증하는 증인들을 사람에게 주셔서 다음 세대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부지런히 찾아내는 데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드러내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잠언 25:2). 도둑이 경찰관을 찾을 수 없듯이, 많은 사람은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¹⁷⁴⁾

셋째,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암호화하셔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알지 못하게 **감추려** 하셨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린도전서 2:7-8).

사탄과 그의 편에 섰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합적인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것을 이해했다라면, 그들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계락을 꾸미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속량(救贖)!

하나님은 완고하고 법을 어기는 아담의 자손들을 영원한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시려고 죄 없으신 구세주를 ‘여자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합당한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갈라디아서 4:4-5).

‘속량하다’(redeem)는 말은 필요한 값을 치르고 ‘되시는 것’(buy back)을 의미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소년으로 자라면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저는 제 강아지를 먹이고 돌보고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 개는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강아지에게는 한 가지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따금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이웃의 집에 뛰어 들어가곤 했던 것이지요. 그래도 그때마다 항상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날이 올 때까지 말입니다.

그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왔지만 제 강아지는 저를 반기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아직도 그 개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다음 날, 저의 아버지는 제게 지역 동물보호소에 전화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일정 기간 보관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안락사를 당하곤 했습니다.

저는 동물보호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거기에는 제가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들개 포획인’이 제 개를 주운 것입니다. 제 개는 스스로를 구출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군가가 구출하러 오지 않았다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보호소로 갔습니다. 제 개를 돌려받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 있는 한 직원이 제가 개를 돌려받고자 한다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를 풀어 거리에 돌아다니게 한 것이 불법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요구된 몸값을 지불했고 개는 풀려났습니다. 이 끔찍한 우리에서 벗어나 자기를 돌봐준 주인에게로 돌아오려 할 때, 제 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속량’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개를 되찾던 저의 소년시절의 경험은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희미한 개념을 보여줍니다. 반역하고 정죄를 받은 죄인으로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필요한 짓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치를 수 있었던 값보다 더 큰 값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그러나 하나님은…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시편 49:7-8, 15).

그러면 우리를 속량하는 값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암호화한 최초의 예언을 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세기 3:15).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속성에 맞는 방법으로 사탄과 죄를 다루시기 위한 비밀스럽고 체계적인 계획을 발표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그를 물리 칠 실 구원자 메시아를 인류에게 보내실 것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 예언은 또한 사탄이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메시아)는 너(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사탄)는 그(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까요? ‘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상처를 주다, 또는 깨부수다’를 의미합니다. 이 최초의 예언에 따르면, 사탄과 메시아는 둘 다 ‘부수어질’ 것이지만, 두 상처 중 오직 하나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일 것입니다. 부수어진 머리는 치명적이지만, 부수어진 발꿈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구원자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상처를 입을’ 것이지만 최종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러한 메시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내 수족을 찢았나이다”(시편 22:16).

다윗은 또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의 시체는 무덤에서 썩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약속된 구원자는 사망을 이기실 분이었습니다.

“주께서…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나라”(시편 16:10).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고난, 죽음, 부활의 목적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이사야 53:5, 10).¹⁷⁵⁾

비록 사탄이 사람들을 충동시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게 고통을 주고 그를 죽이게 할 것이지만, 모든 일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계획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최후의 결과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지혜와 경고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천년 전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메시아)를 대적하며…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사편 2:1-2, 4-6, 10-12).

세네갈에서는 레슬링이 전통적인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은 바위와 씨름해서는 안 된다.”

계란이 왜 바위와 씨름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계란은 이 경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것은 “헛된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¹⁷⁰⁾

세네갈에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나무꾼은 정자나무를 고의로 베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건조한 지역에 속한 이 메마른 지역에는, 대부분 마을의 한복판에 큰 나무 그늘이 있습니다. 이 ‘정자나무’는 한낮의 강한 열기를 피할 피난처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사람들은 쉴 수 있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나무꾼이 이 ‘정자나무’를 자르기 시작한다면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크게 분노하면서 벌목을 즉각 중단하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자르려는 나무꾼과 같습니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편 2:10, 12).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소경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 몇 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시의 종교 및 영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커녕 사형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 자들은 자기들이 실제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완고하고 어찌할 수 없는 아담의 자손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로, 메시아의 손과 발이 못에 찢리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마태복음 16:21-23).

베드로의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메시아는 결혼한 사람을 총각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한 유명한 논객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이 논객과 같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그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굴복하지 않고, 약속된 세계 정부를 즉시 세우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세상의 최고 통치자로 세우시기로 한 계획을 제대로 알고 있긴 했지만, 메시아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통과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됐고, “선지자들이…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베드로전서 1:10-11)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¹⁷⁷⁾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그것을 내다보시고 계획하셨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이메일이 제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서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당신은 너무 눈이 먼 것 아닌가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한계가 있으시고 너무도 약하시므로 자기 아들이 인간들에게 수치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셨다고 말하는 격입니다. 한계를 가진 존재는 약한 것이며 따라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라 부를 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과 견줄 만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라후 악바르’(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십니다)!!

예전의 베드로와 같이, 이 이메일 친구는 메시아가 왜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계획이 필요했을까요? 제 이메일 친구가 옳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사탄을 그냥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을 용서한다고 선언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도 왜 똑같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조주와 말씀이신 예수님은 왜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계획에 메시아의 고난과 피 흘림과 죽음을 포함시키셨을까요? 우리의 여행의 다음 단계에서 그 해답이 제시됩니다.

19

희생의 법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 하나님 여호와(레 17:11)

인류 최초의 가족사는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선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모든 인류가 함께 쫓겨났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자손은 원수가 지배하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태어난 죄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창세기 4:1).

‘가인’은 ‘언음’을 뜻합니다. 첫 출산의 고통과 경이 가운데,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가인이 그들을 무서운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구원자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된 구세주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실 것이라는 하와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메시아가 ‘여자에게서 나게 될 것’이라는 그녀의 믿음 역시 옳았지만, 만약 자기 남편의 후손이 약속된 구원자일 것으로 생각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는 금방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사랑스러운 어린 장자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인은 ‘자연스럽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모나 사탄처럼 교만과 자기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인은 약속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원이 필요한 어쩔 수 없는, 다른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인간의 상태에 관해 좀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창세기 4:2).

아담과 하와는 그 둘째 아들에게 ‘헛됨’ 또는 ‘공허’를 의미하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아무리 애쓰든 그들은 의로운 자녀를 낳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약속된 구세주는 죄로 오염된 아담의 계보를 통해 올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닮은 또 다른 죄인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여호와께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엄중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및 그들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창조주의 거룩과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불순종하기로 했을 때, 그들은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기를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닮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담은…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자녀들을 낳았으며”(창세기 5:3-4).

월로프의 속담에는 “뛰는 가젤은 굴을 파는 새끼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악된 부모가 의로운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마서 5:12).

죄인들이 경배하다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창세기 4:2-4).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그들 주변과 그들 속에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러 나아오길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요한복음 4:24).

분명, 이 아이들은, 한때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들의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분의 조건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제정하신 방법으로 그분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세기 4:3-5).

아무리 잘 구성된 이야기도 모든 세부 내용을 한꺼번에 다 알려주진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인과 아벨이 한 ‘행동’을 묘사합니다.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 다른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경배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부지런히 경작한 과일과 야채 중 가장 품질이 우수한 것만을 가져왔습니다. 아벨은 순전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것을 잡고 그 시체를 돌이나 흙으로 만든 단순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습니다.¹⁷⁸⁾

겉으로 봤을 때, 아벨의 피의 제물은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가인의 농작물의 제물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창세기 4:4-5).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믿음과 어린 양

성경은 우리에게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바를 가인과 아벨에게 먼저 나타내셨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아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

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히브리서 11:4, 6).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분의 계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기 노력’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최초로 짐승을 희생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와 수치를 덮어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무고한 짐승들을 죽임으로써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영생이니라”(로마서 6:23)는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훗날, 가인과 아벨은 이에 대해 똑같은 교훈을 받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사람, 아벨만 그것을 믿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처음 난 건강한 어린 양을 겸손하고 순종적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벨이 어린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아벨)가 죽음의 형벌 받아 마땅하지만, 죄에 대한 임시적인 대가로 양의 피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 조용히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아벨은 칼을 취해 그 온순한 동물의 목을 가르고 생명의 피가 쿵쿵 솟구쳐 나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아벨은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을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벨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벨은 죄의 형벌이 어린 양에게 내려졌기 때문에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제물은 언젠가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



기로 약속하신 완벽한 제물을 상징하며 가리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입니다.

가인의 행위와 종교

그리고 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종교적인 청년이었는지요! 그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자랑할 만한 과일과 야채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가인의 잘못은 경배할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잘못된 방법으로 경배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창조주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부모가 스스로 고안해낸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허용하지 않으셨듯이, 가인이 스스로 고안해낸 농작물의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가진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그분을 신뢰하고 짓값인 어린 양의 피에 근거해서 그분께 경배하길 바라셨습니다. 가인이 자기에게 어린 양이 없었다면 자신의 농작물을 아벨의 어린양 한 마리와 교환하거나 어린 양의 피가 흘러진 아벨의 제단에서 겸손히 여호와께 나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너무 교만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죄의 빛

여호와께서는 왜 그리도 단정적이실까요? 왜 그분은 아벨의 피 흘린

어린 양은 받으시면서 가인의 신선한 농작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가 '사망'이지 '자기 노력'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로 아담에게 알려주신 '죄와 사망의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지불해야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만물의 재판관께서는 자신의 법을 위반한 사람을 죽음보다 싼 값으로 처벌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다 해도, 아무리 많은 자기 노력이나 선행을 한다 해도, 결코 죄의 빚을 다 청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큰 은행이 제게 수백만 달러의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어마한 돈을 현명하게 투자하기는커녕 그것을 탕진해버리고 결국 대출금도 갚지 못합니다. 경찰이 제집으로 출두해서 저를 연행합니다. 저는 법정에서 판사에게 “저는 평생 이 수백만 달러의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 금융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대신, 선행으로 갚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님께 매일 식사 한 끼를 대접하겠습니다. 또 매주 하루씩 금식해서 저축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겠습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정결 예식을 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저의 빚이 탕감되는 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과연 판사가 금융부채를 갚는 일에 이러한 비합리적인 계획을 받아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판사도 기도와 금식과 선행으로 죄의 빚을 갚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짓값을 갚는 데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죽음'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이 강경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네, 감사하게도 있습니다!

희생의 법

저는 카드게임을 하지 않지만 어떤 패가 좋은 패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카드 패에 부여된 가치로 인해, 한패는 그보다 낮은 패들을 이깁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는 “폐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는”(다니엘 6:8) 고대의 왕들이 정한 법에 대해 말해줍니다. 왕이 어떤 법을 폐지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한다면, 이전의 법을 “능가하는” 더 강한 법을 세워야 했습니다.¹⁷⁹⁾

이와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죄와 사망의 법’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방법은 더 강한 법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른바 “**속죄제의 규례**”(레위기 6:25), 또는 “**화목제물의 규례**”(레위기 7:11)라고도 불리는 법이었습니다.

자신이 정한 모든 법을 충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법적 강제력이 여전히 살아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을 능가하는 ‘희생의 법’을 제정 하셨습니다.

희생의 법은 죄를 범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공의’를 실행합니다(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에 대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려면 13장을 참고하세요). 피의 제사법은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지 않고 죄를 벌하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에 대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위기 17:11).

이 법에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피는 생명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과학은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 주장하고 있는바 ‘동물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는 것을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는 생명을 유지하고 불순물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운반합니다. 피는 매우 소중합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죽습니다.

2. 죄는 죽음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또한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은 피”라고 하셨습니다. ‘속죄’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파르’(kaphar)에서 왔는데, 이는 ‘덮다, 취소하다, 깨끗하게 하다, 용서하다, 화목하다’를 의미합니다.¹⁸⁰⁾ 죄인들이 깨끗함을 받고 의로우신 창조주와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쏟아 부어진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받으실만한 희생제물의 피(생명을 빼앗음)를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덮는 수단으로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대속제물

‘희생의 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대속’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의 대속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여러 세대에 걸쳐, 여호와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에게 그분이 어린 양, 숫양, 염소 또는 황소와 같은 적합한 짐승이 흘린 피를 임시로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비둘기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¹⁸¹⁾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림에 기초해서 자기들의 죄를 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분께 나아와야 했습니다.

대속제물이 될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¹⁸²⁾ 즉, 아프거나 뼈가

부러졌거나 베었거나 하지 않고 굽힌 흔적도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완벽을 나타내야만 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죄인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여야 했고 그것은 **속죄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의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태워 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제물이 무엇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가 범한 죄가…**사함을 얻으리라**”(레위기 4:23-26).

죄인들이 흠 없는 짐승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을 때, 그들의 죄는 그 짐승에게 상징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담당한 이 짐승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대속’의 원리에 근거해서, 죄가 마땅한 형벌을 받았고 죄인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의 형벌이 죄인을 대신해서 무고한 짐승에게 내려졌던 것입니다.

‘속죄제의 규례’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과 “**피 흘림(죽음)이 없은즉 사함(죄의 형벌이 제거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22)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짐승의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은 죄에 대한 공의를 행사하셨고 그분과 그분의 계획을 믿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호와께서는 그 옛날 자기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던 날, 하늘과 땅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제단 위에서 피 흘린 제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 용서를 받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출애굽기 20:24).

‘죄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이 조항의 주된 목적은 약속된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은 희생의 법칙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르면, 한 인간의 생명은 전 세계 모든 짐승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의 빛을 탕감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징했을 뿐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죽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무고하고 흠 없는 짐승이 흘린 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구약의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수많은 짐승의 제사 이야기들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의 무슬림들이 매년 기념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20

위대한 희생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모입니다.

결박된 동물이 땅바닥에 눕혀져 있습니다.

노인과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양이나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몸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재빠르게 칼로 짐승을 베고 나면, 이 짐승의 피가 모래 위로 흘러넘칩니다.

희생제사는 끝이 나고 내년을 기약합니다.

‘에이드 알 아드하’(희생의 절기)에 무슬림들은 4,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한 사건,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숫양을 예비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¹⁸³⁾ 쿠란은 이러한 말로 이 고전적인 이야기의 짧은 기록을 정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 위대한 희생으로 그를 속량하였느니라”(수라 37:107).

이 극적인 이야기의 총체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오늘날 이라크의 ‘우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¹⁸⁴⁾ 아담의 모든 자손과 같이, 그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서 자랐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모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의 견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벨과 같이, 아브라함은 희생제물의 흘린 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그의 아내가 65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세기 12:1-3).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규모’ 면에서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도’ 면에서 ‘큰 민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민족을 현실로 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직 자식이 없는 아내 사라에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알려진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창세기 12:7).

하나님의 약속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와 그의 아내는 아직 아들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한 노부부가 먼 땅에서부터 당신의 나라를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언젠가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이 이 나라 전체를 차지할 겁니다!” 그 노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말 웃기군요! 나는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자식도 없고 내 아내는 임신할 수도 없는데 자네는 내게 내 자손들이 많아져서 이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하는 건가? 자네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이렇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창세기 15:6)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뒤 하늘 나라에서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었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아만’(aman)이고, 이를 통해 ‘아멘’(Amen)이라는 표현이 생겨났는데, 이는 ‘그렇게 될지어다!’ 또는 ‘그것은 믿을 수 있고 참됩니다!’를 의미합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마세요. ‘여호와를 믿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것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로 받아들였는지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여호와를 따르기 위해 아버지의 종교를 등지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로 그 진실성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야고보서 2:23).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전히 의로운 자로 선언하셨지만,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의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장막에 거하며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심히 많은 가축을 소유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이래로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86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는 76세가 되었으나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수 있도록 ‘뚝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도록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의 상식과 그 지역의 문화를 따랐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이집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동침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는데,

그들은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네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창세기 17:17-21).

이삭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사라는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본 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창세기 21:8-9).

이스마엘은, 이삭을 통해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 민족을 통해 세상에 진리를 전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은 자기의 이복동생을 조롱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어 급기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뼈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이스마엘)나 네 여종(하갈)으

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이스마엘)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창세기 21:12, 20-21).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다방면으로 복을 주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이후, 이삭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창세기 35:10)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들인, 열 두 아들을 낳았고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 부르셨습니다.¹⁸⁵⁾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아 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신 7:7)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하고 멸시받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분이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일에 대해 아무도 그분의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일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전서 1:27-29).

통신 채널

하나님께서서는 이 새 민족을 땅끝까지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
종의 ‘통신 채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디오, TV, 및 인터넷의
시대가 있기 훨씬 전부터 이 ‘통신 채널’을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이런 것들에 뒤진 것은 아닙니다. 이 민족의 한 가운데서 행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기사(奇事)는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가나안 땅의 한 여인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
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우리가 들었음이니라…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여호수아 2:10-11).

게다가,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선지자들’도 이 민족 중에서 선택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실 ‘후손’을 예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후손은 다름 아닌 ‘약속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처녀인 한 가난한 유대 여인을 통해 태어나
실 약속된 구세주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오래된 민족은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영원한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신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심으로 써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큰 언약은 두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 1)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 2)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만 축복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긍휼하신 그분의 마음은 “땅의 모든 족속”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구약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작지만 완고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언어권에 은혜를 베푸시는 이야기가 풍부합니다.¹⁸⁶⁾ 이 멸시 받는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에 대해 언급될 때마다 반드시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어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이시고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로 선택하신 통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을 보존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약하고 멸시받는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¹⁸⁷⁾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도 만일 우리의 명성이나 가족의 명예가 달린 약속이라면, 그대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자, 이제 아브라함의 중대한 제물에 대한 고전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만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시험하려 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죄의 대가인 죽음의 형벌로부터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분이 직접 계획하신 일에 대한 모형과 예언을 세상에 보여 주려 하셨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1-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특정 산등성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요구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아무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절대 요구하지 않으실 일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든 자손과 마찬가지로 이삭도 죄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내린 ‘사형선고’도 정당한 판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창세기 22:3).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과 두 종이 고통의 사흘 길을 함께 떠났고,

한 걸음씩 뿔 때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삼 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창세기 22:4-5).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곧 이삭이 제단에서 죽어 불살라질 텐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신과 그 아들이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다른 곳에서 그 해답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습니다.¹⁸⁸⁾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항상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속제물을 예비하시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창세기 22:6).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산으로 걸어 올라갈 때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창세기 22:7-13).



여호와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음의 형벌을 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돌렸고 같은 산등성이 먼 곳에 무언가 수풀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였을까요? 설마 그것이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흠 없는 한 마리 “숫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희생의 법’에 따라, 대속제물을 예비해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창세기 22:13).

아브라함의 아들은 어떻게 자기에게 선고된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그를 대신해서 숫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세기 22:14).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을 잡은 후,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는 뜻.)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과거형인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고 말할 때, 선지자 아브라함은 거의 2,000년 후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바로 이 산등성이(후에 예루살렘이 건설된 장소)에서 여호와께서 또 다른 희생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희생제물은 단 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속제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희생제물을 드릴 산으로 터벅터벅 걸어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준비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이 아니라, 숫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놀라운 해답이 곧이어 소개될 것이지만, 우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1

흘려진 더 귀한 피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영적인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배움이 더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십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히브리서 5:12).

아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가장 참을성이 많은 선생님이라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배웠어야 하는 초보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수백 가지의 이야기들을 그분의 책에 담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히브리서 9:12).

죄 사함이란 완전하게 기록하신 창조주께도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날부터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적합한 희생제물의 피만이 속죄할(죄를 덮을) 수 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벌하시는 방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가리려는 아담과 하와의 ‘자기 노력’을

거부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이 없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와 같이 창세기의 뒤를 잇는 구약성경에는 이 희생의 법에 복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풍부합니다.¹⁸⁹⁾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관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¹⁹⁰⁾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아담의 자손들을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모형’을 세상에 전파하셨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입니다.

BC 1,490년경, 여호와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집트 땅에 10가지 치명적인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열 개의 기적 중 처음 아홉 개는 여호와께서 이집트 다신교의 거짓 신들에게 도전하고 그들을 멸망시킨 기적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바로 왕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는 않았습니다.¹⁹¹⁾ 그러나 10번째 재앙으로 바로 왕은 그들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와 이스라엘 각 가정의 장자가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된 날 자정에, 죽음의 천사가 그 땅을 지나면서 각 가정의 장자를 죽일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흉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가정마다 “어린 양은 흠 없고 일 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출애굽기 12:5)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해진 시간에 어린 양을 죽여야 했고 그 피를 각 집의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머문 모든 사람은 죽음의 재앙이 그 땅을 통과할 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출애굽기 12:13).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이 엄중한 밤에,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장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셨지만, 바로 왕의 장자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장자는 죽었습니다.

여기서 빼놓지 말고 관찰할 부분은 모든 가정이 죽음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가정이었습니다.

양이 죽든지, 아니면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날 밤,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억압과 속박의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이요,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구원의 몸값은 무엇이었나요?

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습니다. 그 후 해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다

첫 유월절이 시작되던 그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간의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위안을 얻는 방법으로 친히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출애굽기 13:21).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를 통해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빛을 주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강한 손으로 홍해에 길을 여시고, 쫓아오는 바로 왕의 군대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¹⁹²⁾

이곳 산기슭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 새 민족이 1년 내내 진을 쳤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황량한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은혜에 따라 하늘에서는 양식을, 바위에서는 물을 공급하셨습니다.¹⁹³⁾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분께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분께 범죄했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분을 믿었을 때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민족을 다루셔서 주변 나라들도 그분의 구원 방법을 보고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십계명(15장 참조)과 다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후, 자기 백성에게 ‘성막’ 또는 ‘회막’이라 불리는 독특한 성소를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출애굽기 25:8-9).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자기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천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양대로” 정확하게 짓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 성막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시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시실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성막과 그와 관련된 것들에 관해 무려 50개의 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은 그분이 완벽히 거룩하실지라도 여전히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가르치시기 위해 성막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한가지 주된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은 ‘죄’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특별한 천막은 커다란 사각형 뜰 안에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이 뜰의 ‘울타리’는 놋기둥과 가는 린넨 재료로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2.5미터 높이로 아무도 이 울타리 너머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을 이해하길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벽에는 청색, 자색, 및 홍색 실을 섞어 짠, 가는 린넨 섬유로 만들어진 문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이나 다른 적합한 피의 제물을 가지고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¹⁹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카시아 나무로 큰 ‘제단’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단은 문과 하나님의 특별한 천막 사이에 위치할 예정이었습니다. 속죄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이 무고한 짐승의 머리에 얹고,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은 죽임을 당했고, 그 몸은 제단 위에 불살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은 ‘희생의 법’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¹⁹⁵⁾

하나님의 법은 분명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덮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를 덮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올바른 관계)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모세에게 금으로 입힌 독특한 나무 껍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구는 ‘언약궤’라고 불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로새긴 십계명의 돌판을 이 금으로 된 궤 안에 두었습니다. ‘시은좌’라고 불리는 이 궤의 견고한 금 덮개 위로, 역시 금으로 된 두 개의 스랍 형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스랍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천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궤를 성막의 가장 안쪽에 있는 방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

이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는 방은

‘성소’라 불렀고,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은 ‘지성소’라 불렀습니다. 이 안쪽에 있는 성소는 “참 것…바로 그 하늘의 그림자”(히브리서 9:24)에 불과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하늘을 상징했습니다. 이 특별한 방은 길이, 너비, 및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성경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우리는 언젠가 모든 믿는 자들의 처소가 될 하늘의 도성도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당, 교회 건물, 모스크, 회당, 또는 산당이 종종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복적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곤 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특별한 건물에 들어감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죄 사함과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므로 이루어집니다.

휘장

성막의 외부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대한 천막이었습니다. 그것의 ‘외부’는 그다지 볼품이 없었으나, ‘내부’는 놀랍도록 아름다웠습니다.¹⁹⁶⁾

이 장막의 두 방은 ‘휘장’(Veil)이라 불리는 두꺼운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 놓아서”(출애굽기 26:31).

이 휘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광채를 담고 있는 ‘지성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휘장은 ‘이리로 들어오지 말라. 들어오면 죽으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특별한 커튼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상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류에게 이러한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열 가지 규칙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시야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요구되는 합당한 조건, 즉 ‘완전한 거룩’을 보여주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그분을 기억하도록 이 휘장을 설계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커튼은 메시아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순 마직물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순수한 천에 청색, 자색, 및 홍색(빨강)의 세 가지 멋진 색깔로 수를 놓았습니다.

- **청색** = 하늘의 색상. 메시아는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 **홍색** = 땅, 인간, 피의 색상.¹⁹⁷⁾ 메시아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 받고 죽으시기 위해 살과 피로 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 **자색** = 청색과 홍색의 혼합. 메시아는 하나님이지만서도 사람이셨습니다. 자색은 왕족의 색깔입니다. 메시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영적인 왕국을 세우십니다. 장차 그분은 이 땅에 자신의 실제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색이 청색과 홍색의 중간 색상인 것과 같이, 메시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증보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디모데전서 2:5-6).

영광의 구름

장막이 건축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제 위치에 놓여진 후,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하늘 보좌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출애굽기 40:34-35).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임재의 휘황찬란한 광채를 지성소 안, 언약궤의 시온좌 위에 있는 두 스랍들 사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시적인 방법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시편 99:1).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지성소에, 그리고 그분의 구름을 성막 위에 두심으로 세상의 민족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초대하시지만, 이 관계는 어떤 특별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맺어질 수 있다는 교훈이었습니다.

시각적 예시

성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시각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이 광경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노예에서 해방된 이 민족,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는 시내산 기슭에 십자 형태로 질서 있게 장막을 쳤습니다. 성막은 중앙에 있었고 세 지파는 남쪽으로, 세 지파는 북쪽, 세 지파는 서쪽, 나머지 세 지파는 동쪽으로 각각 장막을 쳤습니다.¹⁹⁸⁾ 머리 위로 드리운 빛나는 영광의 구름을 보고, 아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시각적 교훈은, 성막이 흰 린넨 천으로 된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만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상징적으로 온전한 제물의 피 흘림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레위기 17:11).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제물을 성막으로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중 내내 매일 아침저녁으로 어린 양을 죽여 제단에 불살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얻은 유익으로서, 창조 주와의 회복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출애굽기 29:38-39, 42).

속죄일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 자세히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죄인들이 지성소(하늘 나라를 상징하는 특별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년 중 하루,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히 선택된 사람만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 ‘속죄일’¹⁹⁹에, 대제사장은 휘장을 지나 들어갑니다. 그는 희생 염소의 피를 취하여 시온좌(언약궤의 뚜껑) 앞과 위에 일곱 번 뿌립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쳐 죽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그분의 선물을 단순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피뿌림에 근거해서 다음 일년 동안 그들이 범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막, 기구 및 활동의 모든 세부 사항은, 정죄 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죄를 덮고 완벽하게 기록하신 창조주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상에 선명한 그림을 보여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수 세기에 걸쳐 그분의 선민이라는 채널을 사용하셔서 죄로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수백 가지의 그림을 방송하셨고 또 많은 놀라운 약속들을 소통하셨습니다.

성전과 그 제물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의 임재를 수용하기 위해 이 특별한 천막을 지은 지 500년 후에,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휴대용 성막’을

좀 더 ‘영구적인 성전’으로 교체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새 구조물의 배치는 성막의 배치와 유사했지만, 훨씬 더 크고 심지어 더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성막이 준공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성막 안 지성소를 가득 채웠던 것과 같이, 영광스럽고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가 위에서부터 내려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와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역대하 7:1-2).

성전은 1,000년 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을 제물로 드렸던 곳과 같은 산맥에 지어졌습니다.²⁰⁰⁾ 이 특별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솔로몬 왕은 12만 마리의 양과 2만2천 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명령했습니다.²⁰¹⁾ 이 풍성한 번제는 1,000년 후에 그 근방의 한 언덕에서 측량할 수 없이 값비싼 보혈이 흘러질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아벨,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및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상징적인 피의 제물이 죄를 덮기 위해 매년 설새 없이 제단에서 드러졌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22

어린 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한일서 4:8).

“하나님은 높으시니”(욥기 36:26)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회적, 관계적 속성이라는 주제는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창세기 1:27) 창조하셔서 그들과 친교를 나누고자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주제는²⁰²⁾ 성경의 마지막 장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얼굴을 보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보여줍니다(요한계시록 22:4). 혹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책의 중심 주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27).

진정한 일신론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해도 사람이 되실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을 펴지 못합니다. 전능자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면(스스로에게 모순된 일을 제외하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 틀린 질문 :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느냐?’
- 올바른 질문 :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길 선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참 장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분이 “그들 중에 거할”(출애굽기 25:8) 수 있도록 독특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 1,500년 지난 시점에, 성경은 이같이 선포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 14).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번역된 구절은 “천막 또는 장막을 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몸을 그의 영혼이 거하는 ‘장막’ 또는 ‘성전’으로 묘사합니다.²⁰³⁾ 우리가 16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그분이 거하기로 선택하신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창조되지 않은 자신의 임재의 광채를 두셨던 성막 구조물은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창조되지 않은 광채와 임재는 ‘인간의 피부’를 가진 예수님의 인격 속에 내려와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난”(히브리서 8:2) ‘참 장막’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과 그 후에 생긴 성전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짐승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소년이었을 때와 성인으로 자라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실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분이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셨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히브리서 9:26). 그분은 제물이 되셨고 로마의 십자가는 그 제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징들 이면에 있는 실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디모데전서 3:16).

한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 근처에서 계시면서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한복음 2: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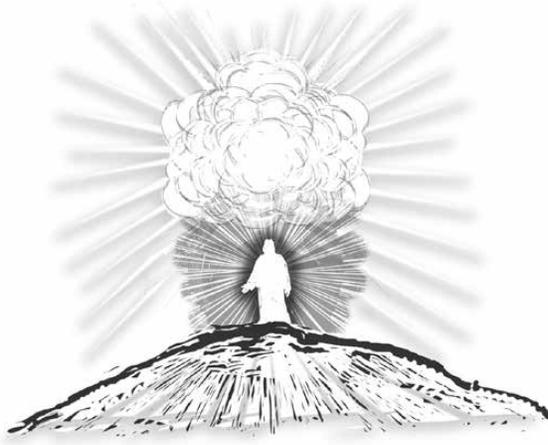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그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웅장한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광채와 영광은 사람이 만든 성전의 지성소에 더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예수님의 몸인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공생애가 끝나갈 무렵, 세 명의 제자들로 하여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빛나는 광경을 목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7:1-5).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게 했던, 타는 듯하고 눈부신 순수한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던 바로 그 여호와와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한 때, 성막 위를 비추었던 찬란한 구름은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는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이에 대해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1,000년 전, 선지자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시편 2:12)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말은 ‘아들을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저는 사람들이 자기들처럼 어찌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종교 지도자들의 머리와 손에 입 맞추는 것을 봅니다. 또한, 저는 이러한 헌신적인 추종자들이 그 육체가 흠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려 그들의 무덤을 순례하는 것을 봅니다.

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셨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으며…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요 5:23, 20) 사실을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선구자

이사야는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할”(이사야 40:3) 특별히 선택된 사자에 대해 기록한 두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선구자는 사가랴의 아들, 선지자 요한이었습니다.²⁰⁴⁾ 이전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선포한 반면, 선지자 요한은 “그 약속된 메시아, 여호와가 바로 여기에 계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차별화된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때에 세레 요한이 이르러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3:1-3).

회개

사람들로 여호와와 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외쳤던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이아’(metanoeo)에서 왔습니다. 그것은 ‘메타’(meta)와 ‘노이아’(noeo)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움직임’ 또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마음의 생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하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것, 즉 잘못된 생각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하다’라는 용어를 일상의 문맥으로 표현하자면, 제가 레바논의 한 도시, 베이루트에서 요르단의 한 도시, 암만으로 버스를 타고 여행하려 한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버스를 제대로 탔다고 믿고 좌석에 앉아 잠이 듭니다. 얼마 후, 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할 때 저는 이 버스가 암만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터키의 한 도시, 이스탄불을 향해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하다면, 저는 그 버스에 그대로 남아 엉뚱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버스를 잘못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자신을 낮추고 ‘회개’, 즉 마음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의 회개의 진정성은 제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올바른 버스로 갈아탈 때 확실해집니다.

참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 ‘거짓에서 돌아서서 진리를 믿도록’ 인도합니다.

회개는 동전의 양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면은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양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사도 행전 20:21)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해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참된 믿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라! 너희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늘에서 오신 약속된 왕, 메시아를 받아들이라! 그분은 사탄과 죄와 사망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느니라. 너희가 자기를 믿는 것을 멈추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인정한 사람들은 그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요한은 ‘침례 요한’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침례를 받는 것으로는 과거에도 죄를 씻을 수 없었고 앞으로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강 속에 잠기는 것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을 더러움에서 씻어주시러 오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는 아무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이 구원하러 오신 타락한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뒤에 나타난 것은 영원히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그것은 복합적인 하나 됨과 위엄 가운데 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16-17).

창조의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이 장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역사상 중요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 됨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성경 여행에서 이것은 각각의 여행객들이 잠시 멈춰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특별한 장소들 중 하나입니다.

그 장면은 이리합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 아래,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 **하나님의 아들이** 강에서 걸어 올라옵니다. 동시에, (창조의 첫째 날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둘기의 형태로 맴돌다 예수님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지난 30년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평범한 마을에 있는 한 가난한 가정환경 속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의 눈에 띄지 않으셨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때의 한순간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듣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아들로서, 예수님은

기록하시고 순결하시며 자신이 행하러 온 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제사장과 왕에게 행해졌던 것처럼)³⁵⁾ 기름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사도행전 10:38).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한복음 1:29).

선지자 요한이 선포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 “보라!…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청중은 ‘어린 양’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온 후 사람들은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왔습니다. 15세기 동안, 어린 양은 늦 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2,000년 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창세기 22:8)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제물을 준비하셨지만, 그것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숫양’(창세기 22:13)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한 ‘어린 양’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요한복음 8:56)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 “...죄를 지고 가는 ...”

아담의 때로부터 무고한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덮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죄의 형벌을 영원히 ‘지고 가신’ 것입니다.

- “세상 죄...”

과거에는 죄를 위해 피의 제물이 ‘사람’, ‘가족’, 또는 ‘민족’을 대신해서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과거, 현재, 미래의 ‘세상’의 죄를 완전히 덮어주고 최종적으로 갚으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인류에 들어온 때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그분 자신과 그분이 예비하신 것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을 인간에게 요구하셨습니다.²⁰⁶⁾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1-12).

그림자와 상징물

지나간 시대에 죄를 위해 희생된 무고하고 흠 없는 어린 양은 모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히브리서 10:1)였습니다.

그림자는 그 그림자를 만드는 본체와 혼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땅을 보며 걷고 있을 때 당신의 친구가 같은 방향으로 걸어온다면, 당신은 그를 보기 전 그의 그림자를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당신의 등 뒤로 가까이 오게 되면, 그를 돌아보며 그의 그림자

가 아닌 그에게 직접 말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의 제물은 장차 올 메시아의 윤곽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보고 듣기를 기대하십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메시아)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짐승의 제물)을 폐하심은 둘째 것(자신의 제물)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히브리서 10:4-7, 9-10).

짐승의 피의 제물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와 동등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장난감 차를 자동차 딜러에게 가져가서 진짜 자동차에 대한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마리 어린 양의 피는 사람의 짓값을 다 치를 수 없었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허술한 설계자?

2년 전, 저는 한 철학 박사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 오셨다는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그렇다면 하나님이 겨우 2,000년 전에 이런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 내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태어나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허술한 설계자와 때늦은 사상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려는 방법을 찾는 데 수백만 년은 아닐지 몰라도, 수천 년이나 걸렸으니까요.

이분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희생된 수백만 마리의 어린 양과 수백 가지의 예언 이면에 감추어진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가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실 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전에 지은 죄에 대한”(로마서 3:25-26) 값을 치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죄인들도 오늘날의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근거로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전에 살았던 신자들의 죄는 '가리우심'(covered)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사망을 이기신 이후에야 비로소 죄인의 빛이 그 기록 책에서부터 영원히 '지워질'(cancelled)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드린 사람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업가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이 사업가가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할 경우, 그의 부유한 한 친구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하고 대출 보증을 서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한해 한해 지나면서, 이 사업가는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부채는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매년 그 부유한 친구는 어려워하는 이 남자의 빚을 처리하기(덮기) 위해 은행에서 또 다른 보증서에 서명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이 사업가가 파산하지 않고 감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의 빚은 이 부유하고 믿음직한 친구가 서명한 보증서로 처리됩니다(덮어집니다).

구약의 짐승 제물은 하나님이 임시로 받으신 죄인의 ‘보증서’였습니다. 자신의 계약을 존중하고 자신의 책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에 결코 실수한 적이 없으신 만물의 ‘기록 보관자’께서는 죄를 ‘덮는 것’(covering)으로 흠 없는 짐승의 피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인간의 축적된 죄의 빚을 ‘탕감’(cancel)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겨우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히브리서 10:3-4) 때문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피 흘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인류의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허술한 설계자와 때늦은 사상가’일까요? 아니면, 선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메시아”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장)으로 알아보는 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의 창조주, 최고의 설계자께서는 이 어린 양 외에 우리의 죄의

빛을 갠아주시기 위한 다른 어떤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은 전에도, 지금도, 또 영원토록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이십니다.

이 책에 언급된 사람들과 선지자들의 연대기적 순서. 성경 전체에는 다른 수백만의 이름들과 이야기들을 기록한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 노아(홍수) 바벨의 사람들	시간의 시작 BC 2500
율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유다 요셉	BC 2000
모세(성막)	BC 1500
엘리아 엘리사	
다윗 솔로몬(성전)	BC 1000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BC 700 BC 500
사가랴와 엘리사벳 마리아와 요셉 세레 요한	
예수 그리스도	AD 시작

23

성경을 성취하다

“약속은 구름이고 성취는 비다.” - 아랍 속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은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지만, 이제 “때가 차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 게서 나게 하셨습니다”(갈라디아서 4:4).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약속의 구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취의 비’였습니다.

창조주의 계획은 ‘나중에 덧붙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음”(로마서 1:2-3)입니다.

성경은 구름이고 메시아는 비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메시아의 희생적 죽음에 앞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스가랴 9:9).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며 제자인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뱃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마태복음 21:1-5).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그들의 왕으로 제시하셨지만 끝내는 거절당하셨습니다.²⁰⁷⁾

복음서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셨고, 돈을 벌기 위해 성전을 이용하는 모든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놀란 상인들에게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마태복음 21: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셨습니다”(마태복음 21:14).

다음 며칠 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함정을 놓아 꼬투리를 잡아서 그것으로 그분을 고소하고 처형시키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하늘의 지혜로 다루셨고, 이로 인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셨습니다.²⁰⁸⁾

그리고 나서 때가 왔습니다.

때가 이르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자신이 어디에서 죽을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자신이 왜 죽을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아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청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마태복음 26:1-5).

자기 잇속만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초조했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요한복음 7:30)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이 바라던 휴식시간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던 가롯 유다는 성전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배반의 행위는 구약의 더 많은 예언을 성취했습니다.²⁰⁹⁾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왔도다!**”(요한복음 12: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을 때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주간

예루살렘의 좁은 도로는 매년 희생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지방 사람들과 외국인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울음소리와 수송아지의 우렁찬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어린 양 값이 얼마나 적당한지에 대해 상인들과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주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15세기 전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주일 동안 진행된 기념일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발랐던 운명적인 밤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민족”을 노예생활과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셨는지를 회상하고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메시아가 더 깊은 의미의 유월절을 성취하실 날을 예견하는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곧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며, 모세 시대 이래로 해마다 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의 상징을 성취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공사 감독자들의 강제 노역으로 ‘육체적인 억압’을 받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고 한다면, 메시아의 사명은 사탄과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억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마태복음 26:5)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명절에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 유월절 기간에 죽임을 당할 예정이었습니다.²¹⁰⁾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한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성취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해 예수님을 죽이게 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멸망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왜곡된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린도전서 2:7-8).



떡과 잔

월절 주간의 지정된 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먹기 위해 고요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을 함께 나누어 먹은 후, 주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건네주셨고 먹으라 하시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서진 떡은, 그들을 위해 상하시고 형벌을 받으실 그분의 몸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뒤, 주님은 으깬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은, 약속된 새 언약을 시작하시기 위해 이제 곧 흘리실 주님의 피를 나타냈습니다.

이 두 단순한 상징물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창조주께서 죄악된 아담의 인류를 위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할 데 없이 놀라운 많은 약속과 진리의 말씀들로 제자들을 위로하신 후,²¹¹ 그들을 ‘갯세마네’라고 하는 가까운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땅에 엎드려 하염없이 흐르는 땀과 심한 고뇌의 심령으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두려워하신 ‘이 잔’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죄를 위한 고난과 잠시 후 경험하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되심, 그리고 당신과 저를 위해 견디실 지옥에 대한 농축된 공포의 잔이었습니다.

세 번 이와 같이 기도하신 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셨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메시아가 빼앗지 않은 것을 물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 주게 되었나이다”(시편 69:4).

예수님은 죄를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잡히심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것을 마치기 무섭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및 장로들이 보낸 군병들이 이 동산으로 진격해 왔습니다. 그들은 횃불과 몽치와 칼을 들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을 체포하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피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 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요한복음 18:4-8).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나”(I AM), 즉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21,2)}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붙들려 가신다면, 그건 분명 그분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군병들이 가까이 왔을 때, 제자인 베드로는 고작 자기의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게, 그 사람의 귀를 낮게 해주신 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마태복음 26:52-54).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얼마나 신선한 대조를 보여주셨는지요! 예수님은 비록 이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고문하고 죽일 의도가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증오와 복수보다는 인내와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러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마태복음 26:55-57).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그들이 자기를 붙잡고 결박해서 끌어가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분은 사랑과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당신과 저를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수백 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이사야 53:7)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선지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창세기 22:8)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모세는 “제사장은…**어린 숫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속건제로 드리되…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레위기 14:12-13)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전의 돛 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여 불살라 제사드리는 책임이 있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붙잡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어린 양을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 희생제물로 드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으심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막 14:53).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불법 심야 재판을 주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한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마가복음 14:55-56, 60-63).

대제사장은 왜 분노하고 옷을 찢으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을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스스로 있는 자”(I AM)로 칭하셨습니다. 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을 온 땅의 심판자로 선언하고 계셨습니다.²¹³⁾

그러한 이유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 신성모독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던”(마가복음 14:63-65) 것입니다.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자발적인 고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이사야 53:6).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으심

새벽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끌어 유대 지방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를 향해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때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범죄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위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 중 세 번씩이나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고 선포했지만, 마귀의 부추김을 받은 제사장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더욱 크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²¹⁴⁾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에게 로마법에 의한 극단적인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극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마태복음 27:26-31).

여호와와의 산

그리하여 영광의 주님은 그 거룩하신 몸이 이제 흘리신 피로 뒤범벅이 되고, 그의 머리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견디시며, 그의 등에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신 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 2,000여년 전 아브라함이 예언했던 곳과 같은 산등성이를 오르셨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창세기 22:8, 14).

백성들, 사건들, 한 인물, 한 장소 등 모든 요소가 한데 모였습니다. 모든 일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무후무한 거래가 일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24

완전히 지불되다

십자가는 지금까지 고안된 사형 방법 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은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창조주를 처형하기 위해 우리 인류가 선택한 것입니다.²¹⁵⁾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²¹⁶⁾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누가복음 23:32-33).

십자가에 못 박히심!

십자가는 희생자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능한 최대의 모욕을 가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견디신 수치와 고통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화가의 그림이나 영화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화가들과 영화제작자들은 예수님께 옷을 걸쳐 놓지만, 역사적 사실은 로마 군병들이 정죄를 당한 범죄자들을 나무나 십자가에 잔혹할 정도로 세계 밀쳐버리고 손목과 발꿈치를 뾰족한 못으로 찌르기 전에 완전히 벌거벗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형으로 인한 죽음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우며 서서히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벌의 고통과 수치를 당신과 저 그리고 아담의 모든 인류를 위해 기꺼이 견디셨습니다. 예수님께 퍼부어진 극심한 고문은 우리로 우리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심각한 형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고안해내기 수 세기 전에 선지자 다윗은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묘사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았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시편 22:16-18, 8).

또 선지자 이사야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이사야 53:12)고 예언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예언들을 기초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성취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골(2,0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해서 잡도록 하나님이 솟양을 예비하신 곳)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형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

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바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누가복음 23:33-36, 39:45).

거래

수 세기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희생자가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로마의 군병들은 하루에 500명의 유대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²¹⁷⁾ 어떤 희생자들은 십자가 위에서 며칠씩이나 매달려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고난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구별은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에만 피를 흘렸지만, 주님만 유일하게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 전혀 다른 독특한 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누가복음 23:44).²¹⁸⁾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

까지 온 땅은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왜일까요? 이 세 시간 동안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파급력이 큰 거래가 세상의 시야를 가린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영원 속에서 직접 다루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시간 속에서 다루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어둠의 시간 동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요구하는 영원하고 강렬한 형벌을 자기의 사랑하는 의로운 아들에게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로 된 육체를 입으신 것도 바로 이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낸 충분한 속죄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요한일서 2:2).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이때의 거래를 묘사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이사야 53:5-7, 10-1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 동안 지구가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더럽혀지고 정죄를 당한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홀로!

질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46) 하는 뜻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속이 뒤틀리는 듯한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짓값을 홀로 갚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죄로 야기된 세 가지 단계의 분리라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 그분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있는 자기 아들에게서 거룩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 그분은 ‘**육체적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는 순간, 그분의 영혼은 그분의 몸을 떠났습니다.
- 그분은 또한 ‘**둘째 사망**’을 맛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저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둠과 격리의 장소이자,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장소이며, 하늘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에서 분리된 장소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영원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이 끔찍한 분리를 겪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스스로 그것을 견뎌 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악의 저주에 대한 모든 무거운 견디셨고, 고통과 수치, 그리고 가시와 못의 찔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높이 달리셔서 죄를 위한 완전하고 최종적인 ‘번제물’이 되셨습니다.²¹⁹⁾

지옥에 잠시 계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지옥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위해 짓값을 지불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영원한 형벌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존재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이 영원토록 우리의 짓값을 계속해서 지불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그분 존재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자 말씀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갚아야 할 빛이 전혀 없었을뿐더러 우리처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일정한 시간 안에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실”(히브리서 2:9) 수 있었던 것은 그분 존재의 위대하심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는 데 (6일)을 사용하시도록 선택하시긴 했지만,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치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6시간)을 사용하도록 선택하시긴 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일정량의 시간 동안 머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사니이다...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시편 90:2, 4).

“다 이루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요한복음 19:28-30).

예수님은 죽으시기 직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의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Tetelestai)에서 번역된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채무를 다 변제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고대의 영수증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혀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이 완성되었음을 발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한 종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낸 주인에게 그 일의 경과를 보고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을 의미했습니다.

“임무 완료!”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모두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마가복음 15:37)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물이신 어린 양을 가리켰던 예언과 상징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저주의 원인인 죄를 과감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의 오염되고 저주받은 자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필요한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과 죄에 대한 진노가 완전히 충족되었습니다. 그분의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아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베드로전서 1:18-20).

수 세기에 걸쳐, 수많은 흠 없는 희생제물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가 죄 없으신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만 덮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죄를 기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이 예언한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예레미야 31:31, 34).

그리고 나서 신약성경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낱아지게 하신 것이니”(히브리서 8:13)라고 설명합니다. 속죄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단 위에서 짐승을 드린 제사는 십자가 위에서 메시아가 죽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날) ‘첫 번째’ 피의 희생을 시행하신 것 같이, 그분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마지막’ 피의 희생을 드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하여”(창세기 22:8)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끼셨으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로마서 8:32).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만족시켰고 ‘희생의 법’을 성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찢어진 휘장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께서 큰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마가복음 15:37-38).

고대의 한 역사가는 이 성전의 휘장이 손바닥 크기만큼 두껍고 매우 무거워서 그것을 이동시키는데 300명의 성인 남자들이 필요했다고 설명합니다.²²⁰⁾

이 거대한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서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막 안이나 이후 성전 안에 이 특별한 휘장을 달라고 지시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이 한때 그분의 임재라는 눈부신 빛을 두신 장소인,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아 만든 것으로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죄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하신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을 만족시킨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특별히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만 이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도 진멸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희생된 염소의 피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만 했습니다. 일단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은 언약궤의 시은좌의 앞과 위에 피를 일곱 번(완성됨을 상징) 뿌렸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든 죄인을 죽음으로 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15세기 동안 이 휘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과, 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없이는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가 있을 수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휘장이 나타내는바, 하나님의 택하신 죄 없으신 그분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였고, 그 후 그 아들의 피로 범법한 아담의 자손들을 위해 모든 죄값을 기꺼이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었을까요?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다 이루었다”는 아들의 외침에 대한 아버지의 “아멘!”이었습니다.²²¹⁾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속죄제물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모든 속죄(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가 이루어졌습니다. ‘완벽한 대속제물’이신 분이 세상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매년 속죄제물을 드려야 하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 의식이나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물’되신 분이 단번에 드리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상징의 배후에 계신, 실재이신 분은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브리서 10:17-22).

죽으심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졌을 뿐 아니라 땅이 흔들렸고 두려워한 군중들은 흩어졌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마 27:54).

이후, 그분이 진짜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 로마 군병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고 그분이 죽으신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이 군병의 행동이 더 많은 예언을 성취했습니다.²²²⁾

장사되심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마태복음 27:57-60).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의 무덤이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이사야 53:9)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세세한 부분까지 다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그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희망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그들의 주인이자 가장 사랑하는 친구이신 분이 사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이 제 삼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약속을 잊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마태복음 27:62-66).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한 차가운 무덤의 돌문은 굳게 닫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히 무장한 로마 군병들이 매장지 주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25

죽음을 이기다

성경은 아담에 대해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창세기 5:5)고 말합니다. 그의 땅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담의 자손들도 모두 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은 그들의 비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이것이 죄로 물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자자손손 몇 세기 동안 살다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빈 무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



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사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10).

죽음은 메시아를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을 뿐 아니라, 그 대가인 형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죽음 자체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틀림없이 무서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방금 본)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라”(마태복음 28:11-15).

예수님의 원수들은 무덤이 비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죽인 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기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창조주의 한 가지 규칙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반박했고, 더 나아가 아담과 전 인류를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수천년 간 죽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가차 없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에 도전장을 내미시고, 그것을 이기셔서 영생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어제 이웃에 사는 한 할머니가 제게 “내가 살면서 딱 한 가지 두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이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에게,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 무서운 원수에게 승리하신 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이주려 하심이니”(히브리서 2:14-15).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보다 강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이생에서나 다음 생에서도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입니다. 즉, 만일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당신을 위해 죽음 아래로 내려가시며, 당신을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죽음의 얽은 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고린도전서 15:3-4).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요한복음 14:19, 요한계시록 1:17-18).

사탄을 이기심

예수님이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나오셨을 때, 그분은 전쟁에서 절대로 내주지 않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그와 그의 귀신들이 필사적으로 싸울지라도 결단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그분이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예수님)은 ‘뱀(사탄)에게 상함을 받으셨지만, 그 상처가 사탄의 멸망을 결정지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한일서 3:8).

죄의 저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흠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세기 3:19).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러한 죄의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죽음의 부패 과정을 통해 죽은 아담의 자손들이 흠으로 되돌아갈 때마다 사탄은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그 몸이 죽어도 흠으로 되돌아가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왜 무덤에서 썩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아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1000년 전,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시편 16:10).

이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증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수없이 많고 확실합니다.²²³⁾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가장 먼저 빈 무덤을 목격했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으며 가장 먼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그분을 만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

었습니다. 만일 복음서의 기록이 지어낸 것이라면, 이를 기록한 네 저자가 과연 이 모든 일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영예를 이 여인들이 독차지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자신을 나타내신 문서는 많이 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신뢰할 만한 증인들이 부활하신 메시아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절대 죽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그들의 소망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고 두려워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별안간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습니다.²²⁴⁾ 마침내 그들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겁쟁이였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던 베드로는 적대적인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모의한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거침없이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사도행전 3:14-19).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는)²²⁵⁾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조롱을 당하였고, 감옥에 던져졌고, 채찍에 맞았으며, 많은 사람은 주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한 것으로 인해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핍박을 받았고, 세속의 역사에 의하면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의 구주와 주님이 죽음과 지옥을 이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²²⁶⁾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죄 사함과 의와 영생을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가 죽는 순간, 그들의 영원한 영혼이 하늘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고린도후서 5:8)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그들에게 겁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을 위한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삶 자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중 한 사람은 고대 도시인 아테네에서 회의적이고 조롱을 일삼는 군중들에게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피력했습니다.

하나님이...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사도행전 17:30-31).

그의 결론은 분명하고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오직, 당신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온전히 의지하라!”였습니다.

긍정적인 증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와 심판자이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저 그 해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심에 대한 증거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다른 누군가의 말에 의탁하는 걸까요? 슬프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반대하며 살다가 죽은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죽음을 이기셨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셨는데도, 왜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했던 어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걸까요?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했듯이,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

성경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강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²⁷⁾

메시아의 지상 사역의 초점이 유대인들에게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분이 자기 민족에게 오신 것은 결국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이사야 49:6).

그리스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자기들의 왕으로 받아들이길 거부할 것을 아시면서도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이 이러한 거절을 당해야만 쫓겨나지 않고 세상에 구원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10-12).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시지만 “그 이름을 믿는 자”(즉, 그분이 누구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아들의 생명만큼이나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당신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더 이상의 혼란은 없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그분은 왜 메시아가 피를 흘리고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두 명의 혼란스러운 제자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토라/창세기)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누가복음 24:25-27).

마침내, 그들의 혼란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찌하여 그리스도 소경일 수 있었을까요? 메시아는 현세적이고 정치적인 원수들을 제압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더 무자비한 원수들, 즉 사탄과 죄와 사망과 지옥이라는 원수들에게 승리를 얻으러 오셨습니다.

그날 늦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못 박힌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 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누가복음 24:44-4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이같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죄값을 지불하셨고 죽음

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마음을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을 믿는다면(마음으로부터의 신뢰), 하나님은 당신에게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안식으로의 초대

창조의 일곱째 날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그분의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창세기 2:1-2).

아무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며 자신의 창조 사역을 즐거워하신 것처럼, 그분은 당신과 제가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으로 인해 안식하고 즐거워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브리서 4:10).

세상의 수많은 종교가 “아무것도 끝난 것은 없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더 열심히 노력해라!”고 외치는 반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로 인해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40일간 주님과 함께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바라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았습니다.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이며, 모든 참된 신자들이 언젠가 받게 될 몸과 같은 종류의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잠시 후 그들을 떠날 것이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어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주의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 후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 그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아버지의 집”(요한복음 14:2)으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승천하심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4-11).

하늘의 승리 기념식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셨습니다.”²²⁸⁾ 33년 전 하늘 천사들의 찬양을 뒤로하신 채, 기꺼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시려 내려오셨던 분이 본향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천군과 구속함을 받은 아담의 자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음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광의 주’로 알았지만,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은 고요합니다. 갑자기 이 고요함을 깨고 장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우렁찬 외침이 하늘을 진동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시편 24:7).

문들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맞춰 승리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자 어린 양이시며 전쟁의 상처를 지니신 사람의 아들(인자), **예수님께서** 걸어 입성하십니다!

그분은 찬양하는 군중 사이를 통과하시며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 수없이 많은 무리의 구속받은 아담의 인류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²²⁹⁾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구속받은 무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마치 한목소리처럼 노래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합당하도다!”(요한계시록 5:12).

얼마나 커다란 축하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념식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기념식일 것입니다.



26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

‘후방시야(hindsight)은 언제나 20/20이다.’라는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20/20’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시력’을 나타내는 북미의 검안 표준입니다(대한민국의 표준으로는 좌우시력 2.0을 말함). 시력이 ‘20/20’이면 안경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후방시야(hindsight)이란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후방시야’는 우리나라 다른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미리 취하지 못해서 때를 놓친 행동 방침을 뒤늦게 깨우쳐줍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후방시야는 그리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 세기 동안 드러내신 이야기와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후방시야’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주된 장애물을 극복하고 진리와 오류를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뵈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태복음 13:16-17).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역사를 돌아보고 완성된 성경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분

명하게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여행하면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의 책’,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후방시야(hindsight)’를 통해 보기

창세기 4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죄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형제는 각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창세기 4:4-5).

이제 죄인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성경을 후방시야로 관찰한다면, 왜 수천 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이 잡은 어린양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가인의 채소는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7).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벨을

용서하셨습니다. 언젠든 죄인이 자기의 불의를 인정하고 여호와와 그분의 구원을 믿는다면, 이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같게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발견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창세기 15:6).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 왕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편 32:1-2)라고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편 23:6)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벨,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들의 죄의 빛은 여호와와 그분의 계획을 믿음으로 덮여져(covered)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들의 죄의 빛은 기록 책에서부터 영원히 지워져 버렸습니다(canceled).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당신이 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써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록 책에서 당신의 죄의 빛을 지워버리시고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하시며 당신이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보증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이 믿으면,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당신의 것이 됩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 자신과 그분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많은 의자가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의자는 확실히 부러져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약해서 부러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좀 더 면밀하게 관찰해보면 거기에도 약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방 안에 튼튼한 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시선은 견고하고 아무지게 만들어진 의자를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무진 의자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가서 앉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앉아서 쉽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지탱해 주고 넘어지지 않게 해줄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에 기대어 안식하는 사람들을 결코 실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는 우리가 믿는 '대상'에 의해 좌우됩니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대상이 같지는 않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그분의 죄 사함과 의의 길을 믿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을 믿었습니다.

가인을 비롯해서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은, 제가 TV에서 봤던 '뱀 부리는 사람'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커다란 코브라에게 물렸지만, 해독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맞았더라면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뱀의 독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생각했

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강하지만’, ‘무가치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치료 대신에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자기 노력에 두는 것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유다서 1:11, 13)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가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 대부분은 “가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저울

어느 날, 유대교를 믿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여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한복음 6:28-29)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질문자들은 “일”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표출했던 혼란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제 여동생 부부는 파푸아 뉴 기니의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부족민들을 실제적인 방법으로 도우며 그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에 관한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동료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답화’(파푸아 사람들이 성경을 일컫는 말)를 듣는 원주민 한 명과 나는 대화에 관하여 기록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 그 사람은 ‘그건

너무 쉬운걸요. 저는 제 평생에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지려고 애써 왔는데,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요한복음 6:35)라고 하신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요한복음 6장 29절을 다시 읽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물론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보내시는 데 당신의 행위를 요구하실까요?’

그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부족민들을 비롯해서 회당과 교회 및 모스크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수많은 사람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행과 악행을 거대한 양팔 저울에 달아보실 것이라는 개념에 집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 저울의 선행 쪽으로 최소 51% 이상 기울어진다면 천국으로 영접될 것이지만, 이 저울이 악행 쪽으로 51% 이상 기울게 된다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하는 이런 시스템은 세상의 법정에서도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당신의 선과 헌신에 기초하길 바라시나요?

감사하게도 이 ‘저울 이론’을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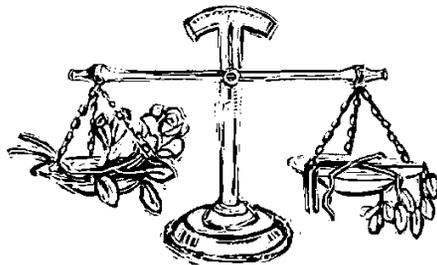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 만 그분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날, 당신에 대한 기록에 털끝 만큼의 죄도 발견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부패한 돼지 사체를 집 안에 들일 수 없는 것만큼이나 죄는 하나님께 역겨운 것입니다. 이 부패한 사체에 향수를 뿌린다고 더러움과 악취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종교 의식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없게 하는 우리의 더러움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죄도 하나님께는 찻잔에 떨어진 독약 한 방울만큼이나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독약이 든 찻잔에 물을 더 붓는다고 치명적인 독성이 제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선행도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는 일이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순결하고 완전한 임재 속에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믿음과 행위

젓값을 다 지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8-9).

천국에서는 누구도 자기를 뽐낼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으나 감사함으로 받는 선물이지, 노력해서 따내는 메달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 종교인은 중동에 있는 이 이메일 친구와 같이 이 문제에 관해 아직도 혼란스러워합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악행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만약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존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거처를 마련할 만큼 충분히 선을 행하거나 충분히 악을 멀리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3,000여 년 전, 선지자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요나 2:9)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에베소서 2:8-9).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존함은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피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말일까요? 다음 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10).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행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디도서 2:13-14).

이 책의 서두는, 한 마을의 노인이 제 친구에게 “당신이 행한 선행을 보면 당신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만...”이라고 말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자신의 “선행”에 기초해서는 “천국에 갈 충분한 자격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악을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선을 행하길 원할 것입니다.

열매는 뿌리가 아니다

선행이 ‘구원의 요건’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것은 항상 ‘구원의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구원의 ‘선행조건’(先行條件)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을 완벽하고 일관되게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참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인가요? 물론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참 백성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여 줍니다.²³⁰⁾

우리가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뿌리’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하는 삶과 이타적이고 절제된 삶(열매)을 통해 구원의 선물(뿌리)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합니다.

거짓 종교

가인은 최초의 'DIY'(do-it-yourself) 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희생양의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노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가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욕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잠언 28:9).

하나님의 법은 어린 양의 흘린 피, 또는 죄를 덮는 데 적합한 다른 희생제물을 요구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종교를 가졌으나 그것은 잘못된 종교였습니다. 그의 제물은 약속된 구주와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창세기 4:4-7)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회개하고 자기의 불의한 행위에서 돌이키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에 굴복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저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노력'이라는

아름다운 종교를 끄적한 어린 양의 피와 맞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 방식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방식대로 행한 이러한 행동은 결국 그를 어디로 이끌어 갔을까요?

적대적인 종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창세기 4:8).

가인은 너무 교만해서 어린 양을 잡아 속죄제물로 드리길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자기 동생을 죽이지 않고 뇌물 만큼 교만하지도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기들의 법과 전통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웃고 폄박하고 심지어 처형하게 될 미래의 종교 및 정치 체계를 위한 초석을 놓았습니다.

가인과 같이, 오늘날 세상의 많은 종교인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 폭력과 살인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자기들의 믿음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며,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그들의 행동을 통해 세상에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오랜 시간 이메일을 주고받은 미국에 사는 한 남성이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지난 번, 제 면전에서 ‘거룩한 선지자’를 모독했던 남자는 약 3초 후에 앞니 두 개를 삼켰습니다. 다음에 그가 신성모독의 말을 한다면, 그 말이 혀 짧은, 소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아주 즐겁습니다. 이교도들은 회심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람의 언행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누가복음 6:27-28)고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²³¹⁾

회개하지 않는 가인

가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가 자기 동생을 죽인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악한 길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창세기 4:9-11).²³²⁾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길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갔습니다”(창세기 4:16). 가인은 절대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가인은 번영하는 문명을 창시했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된 복종이 빠진 사회였습니다.²³³⁾ 가인과 같이, 그의 후손들도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자멸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은 또한 가인의 6대손인, ‘라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

니다. 그의 조상과 같이, 라멕도 속임, 정욕, 복수 및 살인으로 얼룩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여러 과학과 예술 분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외면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도 돌아섰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류

가인 이후 딱 9대 만에 여호와께서는 인류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창세기 6:5).

선지자 노아의 때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만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만물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온 세상에 대홍수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피할 길을 주셨지만, 8명의 사람만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셈, 함, 야벳)과 그의 자부들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창세기 6:8장).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브리서 11:7).

오늘날 많은 과학자가 이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조롱하고 있지만,²³⁴⁾ 오늘날 육지의 상당 부분이 한때 물로 덮여 있었고 수백만 개의 해양 화석들이 세계의 큰 사막과 산맥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가 지나간 뒤 생겨나는 무지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역과 혼란에 빠진 사람들

홍수의 심판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또다시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 반역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인류에게 넓게 퍼져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창세기 1:28, 9:1). 그런데 사람들이 행하기로 결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그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창세기 11:4).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반역적인지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고 완벽한 뜻을 따르는 대신, 자신들의 지혜를 따르고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함으로 또 다른 홍수가 와도 스스로 안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오늘날의 많은 종교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살려는 인간의 계획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러한 계획이 인류를 급격한 부패와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역사상, 이 시점까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창세기 11:1)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나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창세기 11:6-9).

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건축하던 탑을 미완 상태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이 처음 그들에게 의도하셨던 대로 온 세상에 넓게 흠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은 ‘혼란’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청사진을 거부하면 항상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수가 잘못되다

노아 때의 사람들과 바벨탑을 건축하려 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다수가 틀렸다.’

죄인들이 아무리 수백만 명의 타인들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위안을 얻으려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은 다른 수많은 사람도 같은 것을 믿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이 반드시 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국에 사는 한 남자가 이런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당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으자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종교를 따르세요...

급성장 또는 인원수가 진리를 증명할 수 있다면, 가인의 후손들, 노아 때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의 거주민들 역시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도 심각하게 틀렸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저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인류 최초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더라”(창세기 4:25-26).

하나님을 신뢰하는 민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은 좌절될 수 없었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대신에 세워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자기를 위해 ‘또 하나의 씨’를 약속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은 셋의 혈통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처녀 마리아는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기도 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아무리 애를 쓴다 해도, ‘창세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와 이름

아벨과 같이, 셋은 하나님과 그분의 죄 사함의 길을 신뢰했고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습니다(창세기 4:26). 여러 시대를 거쳐, 바벨의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세상에는, 아벨과 셋과 같이 ‘여호와와 이름’을 믿고 부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의 몇몇 친구들은 제게 하나님은 백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은 빼놓고 99개의 이름만 알고 있습니다. 이 목록에서 빠진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를 의미 하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즉 그분이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반역적인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 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요엘 2:32; 로마서 10:1-4, 9, 11-13).

무가치한 이름인가, 가치 있는 이름인가?

제가 10억원의 수표를 당신에게 써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수표는 공식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제 은행 계좌에 그 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최고의 부자가 당신에게 10억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해 준다면 어떨까요? 거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수표는 온전히 그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닙니다. 은행이 제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를 거부할지 몰라도, 그 부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수표는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보내사 인간의 쫓값을 지불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그것은 무가치하고 죄로 얼룩진 이름일 뿐입니다.

은행이 저의 이름으로 발행된 10억짜리 수표를 존중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어떤 이름을 통해서는 죄 사함과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 책에서 당신의 죄의 빛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재산을 이체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죄의 저주를 이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당신의 창조주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요엘 2:32).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의 형벌을 해결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당신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단 두 가지 종교

우리는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만 가지’ 이상의 종교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두 가지 체계만 존재합니다.

- ‘네 스스로 구원하라’라고 말하는 ‘인간적 업적’의 체계가 있습니다.

- ‘너는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신적 성취’의 체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구원하려 한다면, 그 어떤 종교나 이름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0:43).

제3부 여행의 끝

저주를 뒤바꾸다



27. 1단계 : 하나님의 과거 프로그램

28. 2단계 : 하나님의 현재 프로그램

29. 3단계 :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

30. 천국 미리보기

끝맺는 말

미주

소그룹 교제를 위한 안내 : 여행을 되돌아보며



27

1단계 : 하나님의 과거 프로그램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 주 예수님 (누가복음 23:43).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의 노트북 컴퓨터의 배터리가 거의 바닥이었지만, 지금은 새 생명으로 충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어가던 노트북의 상태가 역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노트북의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았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이든 핸드폰이든 손전등이든 그 배터리는 더 큰 전원으로 충전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력을 소모하며 죽어갑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초래된 저주를 역전시킬 방법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잉태된 날로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면서, 저는 방황하는 한 프랑스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미래는 죽어가는 배터리처럼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레미제라블 (비참한 사람들)

저는 1987년 3월에 ‘브루노’라는 26세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청년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로마 가톨릭’이라는 종교적 성장 배경이나 세상의 그 어떤 쾌락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소년 시절, 브루노는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준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가 반항적인 십대였을 때는 세상이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음을 보았습니다. 18세가 될 때까지 브루노의 주된 인생 목표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며 취하면서 자신의 비극을 잊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절망감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때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노는 인도로 여행을 떠나길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인도의 많은 종교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브루노는 대륙을 힘겹게 여행한 뒤, 인도에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 하나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강력한 종교적인 열심과 형언할 수 없는 인간적 비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들만의 종교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인도에서 거의 한 해를 다 보낸 후, 브루노는 자신이 궁극적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나타내 주셔야만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창조주께 이런 단순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만일 당신이 존재하신다면, 저에게 직접 나타나 주십시오!”

어느 날, 브루노는 켈거타의 거리를 걷던 중, ‘바이블 하우스’(BIBLE HOUSE)라는 간판이 걸린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충동적으로 그 서점 안으로 들어가서 점원에게 “프랑스어 성경이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니다. 거기에는 프랑스어 성경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출 20:3-5)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나 브루노가 자기 주변에서 목격한 것은 사원에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라 온 종교에 대해 생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인들도 마리아와 성인들의 조각상 앞에 절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인임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또 다른 구절을 통해 같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여호수아 1:8).

브루노는 자신이 찾고 있던 진리가 성경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확신하고는 인도를 떠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지 않고 책장에 꽂아놓은 채, 일이 끝나면 파티를 즐기는 생활방식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생의 쓴맛과 공허감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브루노가 의미 없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던 어느 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예레미야 29:13)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브루노는 “네 하나님,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브루노는 가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다른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로로 여행하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거짓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한 후, 세네갈 북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제 가족이 살았던 곳과 같은 마을에서 첫날 밤을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루노는 마을 산책을 했습니다. 켈거타에서와 같이 한 문에 걸린 간판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ECOUTEZ! CAR L'ETERNEL DIEU A PARLE!”(들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브루노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일하다 말고 고개를 들어 수영이 텅수룩한 한 남자가 파랗게 낡은 조그만 책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책은 그가 인도에서 구입한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첫 번째 질문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신은 어느 종파예요? 가톨릭인가요, 개신교인가요?”

“저는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브루노는 저의 이러한 대답에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을 읽어 볼 때 ‘가톨릭’이나 ‘개신교’라는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브루노는 제가 만약 “저는 가톨릭입니다.”, 내지는 “저는 개신교입니다.”라고 대답했더라면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렸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신물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재를 원했습니다.

이후 여러 날 동안, 브루노는 제게 많은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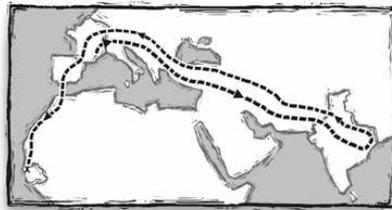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대답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남아공으로 여행하길 희망했기 때문에) 떠나기 전날, 저는 그에게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살펴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6주 후에, 저와 제 아내는 브루노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그가 근처의 한 어촌에서 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두 번째 성경 통독을 막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브루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홀로 밖을 서성일 때 예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외닿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실패와 쓰라림, 그리고 후회로 점철된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커다란 갈등이 제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만약 제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더 이상 저의 정욕과 욕심을 마음대로 좇아가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침내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게 됐어요. 평안이 제 영혼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지요. 제 죄에 대한 무거운 짐이 다 사라져버렸답니다!”

브루노는 이어서 “En somme, je suis ne de nouveau!”(한 마디로 저는 거듭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브루노는 그가 찾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해진 마음과 양심, 그의 창조주와의 관계, 그리고 영생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왜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떠났던 그의 여행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라고 말합니다.

즉시, 브루노의 삶은 크고 작은 영역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11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주님은 이 습관에서부터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의 자아도취적이고 술 취하고 부도덕한 생활 습관은 이제 과거의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깨달아졌고 기도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브루노는 여행을 계속하지 않고 세네갈에 6개월을 더 머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브루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브루노를 만난 지 20년이 흘렀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 거듭난 브루노’는 프랑스에서 아내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아는 지식과 축복으로 네 자녀를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브루노의 삶이 두통, 어려움, 및 고통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가정은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유혹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프로그램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탄과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 삶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약속된 구원과 온전함은 어디에 있나요?”

그 해답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세 가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I 단계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II 단계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III 단계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²³⁵⁾

신약성경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이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3단계 프로그램을 요약해줍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1단계) 또 건지실 것이며(2단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3단계) 그에게 바라노라”(고린도후서 1:10).

우리의 성경 여행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영원히 물리치시는 이 3단계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여정의 마지막 구간에서 천국 자체를 살짝 엿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출한 장관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주를 뒤바꾸다 : 1단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과의 교제를 빼앗기게 됐고, 죄의 저주가 그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자손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완벽했던 세상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기고 자기의 길로 가고자 하는 장소로 금세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생은 비애와 고통, 질병과 기형, 가난과 기아,

슬픔과 갈등, 노화와 죽음이라는 특징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죄는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아담의 자손들을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브리서 1:1-3).

주 예수님은 전혀 죄로 오염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의 저주를 받은 모든 피조물에게 온전한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은 입으로 말씀하시거나 손으로 만지심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였고, 나병 환자들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으셨고, 폭풍을 잔잔히 하셨으며, 적은 떡으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죄를 사하셨고, 상처받은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성경을 이루셨으며,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

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신명기 21:23, 갈라디아서 3:13-14).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심으로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범법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기꺼이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도 죄의 저주를 뒤바꾸시는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역, 절도, 및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되었던 두 명의 범법자들 사이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과 이 두 죄인 사이에 벌어진 대화에 다시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 두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 하나는 회개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같은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3:39-43).

이 두 범법자는 이제 곧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습니다. 그

때,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 중 한 명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 없으신 구세주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용서 받은 범법자는 마귀와 그의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에서 영원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의 임재 가운데 영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바로 그 순간, 짓값을 치르기 위해 피를 흘리고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의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기록 책에서 지우셨고,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선물하셨으며, 그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영구히 기록하셨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죄의 저주가 영원히 뒤바뀐 것입니다.

살인자들도 용서받을 수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러한 질문을 이메일로 보내셨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예수님(평화가 함께하시길)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감안할 때 저는 당신이 ‘정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말은 제가 평생 동안 지은 모든 잘못에 대해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만약 이 세상에서 재판을 간신히 모면한 살인자가 있다면, 그는 단지 예수님이 그의 짓값을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로 영원히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인지...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의에 맞는 일일까요? ‘살인자’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지막 질문은 용서받고 변화된 몇몇 ‘살인자들’의 간증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인종들

성경 번역가이자 고고학자인 ‘돈 라차드슨’은 ‘지구의 주인들’이라는 책에서 ‘알리’ 부족을 인도네시아의 ‘이리안 자야’에 사는 산속에 거주하는 사나운 식인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이웃 마을의 적들을 고문하고 죽이며 실제로 ‘잡아먹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었습니다. 복수와 두려움은 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알리 부족과 그 이웃 부족들은 죄 사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은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들은 이제 정상적인 것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서로 미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적들과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 ‘알리 마을들을 연결하는 더 좋은 길’을 만들었습니다.²³⁶⁾

이제 예전에 살인자들이었던 이들은 그들을 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한 소녀

‘에마’는 싱가포르의 한 엄격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들의 이혼과 결손가정의 생활로 인해 그 아이는 16살에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에마는 10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 발코니에서 뛰어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고 준비하던 중, 분노와 절망 가운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당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10층 발코니까지 연결된 짧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몇 걸음 내려가다가, 계단에 성경책 하나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고는 자기 방으로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무심코 펼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우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
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
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
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에마는 이 시편을 읽는 동안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11)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에마는 그분의 양 무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살 충동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행복한 아내이자 다섯 자녀를 둔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 삶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것, 즉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에마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그녀는 대문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써서 제게 답장해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압박과 도전 가운데서 에마는 매일 살아갈 힘과 기쁨을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돌보심에서 찾습니다.

폭력적인 한 남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종교 열성분자, ‘다소의 사울’을 생각해봅시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에 소아시아(현대의 터키),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 사울은 유대 최고 법원의 위임을 받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을 체포하고 재판하며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투옥하고 채찍질하며 처형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²³⁷⁾ 어느 날 사울과 그의 동료들이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체포하라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사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사도행전 9:3-6).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임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극심한 적대자가 열렬한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²³⁸⁾

‘사울은 후에 자신의 이름을 ‘바울’(‘작음’을 의미함)로 바꾸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디모데전서 1:13-15).

그리스도의 전문 분야

심지어 ‘살인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리안의 식인종들과 싱가포르의 에마, 그리고 다소의 사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회개하는 강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죄수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을 때, 감옥의 안팎에서 그들에게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일은 그리스도의 전문 분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죄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릅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에 대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고, 그분을 위해 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도록 도움으로써 얻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또 다른 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회개하지 않는 강도와 같이 멸망하는 일입니다.

인자와 공의의 조화

몇 페이지 앞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의’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흐메드도 앞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제목: 이메일 피드백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하지 않고 또 그를 상하게 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제거하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 마땅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지 않고서, 그들의 죄를 ‘제거’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13장에서 공의를 지키지 않고 인자를 베푸 재판관에 대한 예화를 기억하시나요? 그의 행동은 모든 법정에서 분노와 경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덕스러운 재판관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이나 이름에는 아주 조그만 티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인자를 베풀기 위해 공의를 희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의 아들을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시편 85:10-11).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용서와 온전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와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아무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씻음과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 가족의 신분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즉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땅에 오시기 전 7세기경,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미가 5:1).

생각해보세요! 온 세상의 재판자께서 자신이 구하러 온,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의 손에 죽기 위해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은 공의와 인자와 은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로마서 5:6-8).

의로우시며 의롭다 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의 첫 단계에서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면서 죄인들을 위해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로마서 3:26)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충분한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구원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내 믿음을 그리스도와 나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두는 순간, 의로우신 재판관께서는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기록책에 이렇게 도장을 찍으실 것입니다.

의롭게 됨! (JUSTIFIED!)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법적 행위에 의해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지우시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불의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로마서 5:19).

아담의 죄가 더러움과 죽음을 불러왔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정결함과 생명을 안겨다 줍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늘에서 내려보실 때, ‘아담 안에’ 있는 당신과 그의 더러운 불의를 보실까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과 그분의 순전한 의를 보실까요? 하늘 법정에는 제3의 옵션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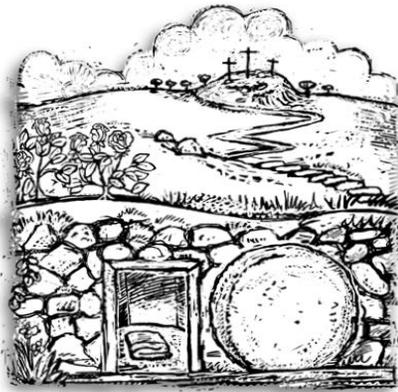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읽은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창조주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죄와 부끄러움’이라는 이중적인 딜레마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을 숨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도록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만든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가리는 것을 거부하셨지만, 대신 ‘그분의 인자’를 따라서 희생된 짐승의 가죽옷으로 직접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데 필요했던 것을 상징했고, 짐승의 가죽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데 필요했던 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죄와 부끄러움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럽혀진 죄인들이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끄럽게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온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문제’는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분리시키는 죄로부터 깨끗게 될 수 있는가?
2.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옷을 입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중적인 해결책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악됨과 의의 결핍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선사하셨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로마서 4:24-25).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온전하고 최종적인 속죄제)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17-18, 21).

당신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당신을 위해 흘리신 온전한 보혈에 ‘당신의 소망을 두는’ 순간,

- 1) 그분은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당신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 2) 그분의 온전한 의로 ‘당신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외 다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교환 프로그램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이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그분의 의와 맞바꾸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러한 관대한 제안을 거절할까요?

비극적인 현실은 사람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기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은 어떤 상상 속의 일시적인 연옥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은 “사람은 제각기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죄 사함과 의의 선물을 거절한다면, 결국은 반드시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빛은 지속적으로 불어나는 빛이기 때문에 결코 다 값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잃어버린 죄인들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자신들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

게 된다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의를 결단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세주가 오시기 전 700년경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환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이사야 64:6, 53:6, 61:10).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당신은 ‘자기 의라는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순전한 의복’을 입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이사야 53:1).

당신은 하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믿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진리를 얻기 위해 다른 모든 선택권을 포기하셨나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일서 5:13).

수년 전, 저는 매우 종교적인 한 여인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저는 제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해요.”라고 말했다를 때, 그녀는 약간 분개한 투로 “오, 당신은 정말로 천국으로 직행할 정도로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가 아주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우 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알리는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 책의 첫 장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거절당한 ‘알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알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브루노처럼 26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추구하는 브루노와는 달리, 알리는 자신의 종교를 진지하게 믿었고, 매일의 기도문을 명시된 방법에 따라 외웠으며, 매년 한 달 동안 금식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함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알리는 밤 중에 침상에 누워 잠이 깬 상태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는데도 왜 그리도 영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까? 오, 하나님. 제가 죽은 후 어디로 가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까?”

알리는 이 질문을 그의 아버지와 지역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모든 사람은 같은 대답을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너는 알 수 없단다. 아무도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지. 하나님만 아신단다.” 그들의 대답은 알리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집과 학교에서 알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처녀에게서 태어난 의로운 선지자라는 쿠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칭호를 가지고 기적을 행할 능력을 지닌 사역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아마 선지자 예수라면 내가 갈구하는 해답을 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리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 우리는 우연히 서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경을 주었고, 그는 강한 호기심으로 그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일 년 동안 성경을 찾아본 뒤 알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의 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14:6, 5:24).

이와 더불어 다른 구절들도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확실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피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믿게 됐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는 순간, 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내적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

니다. 이 어떤 변화입니까!

저는 저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제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구원하셨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알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오늘날 그와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죽은 후에 가게 될 곳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알도록 인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 : 믿는 자의 종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의 저주를 뒤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3단계 계획의 첫 번째 부분을 성취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생애, 죽음, 장사됨, 및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이라는 관통할 수 없는 두꺼운 벽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강도, 식인종들, 에마, 바울, 알리, 브루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그 혜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 잔인한 폭군이었던 ‘죽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의 문을 여는 임무를 맡은 낮은 종의 위치로 좌천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

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시편 116:15).²³⁹⁾

“귀중한”이란 단어가 “죽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귀중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린도전서 15:55, 57).

죄에 대한 과거의 저주는 역전되었습니다.

28

2단계 : 하나님의 현재 프로그램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호와 (예레미야 31:33).

그리 많은 사람이 죄의 치명적인 저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에서 ‘매일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얽매어 살아갑니다.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불운, 질병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음식을 사거나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운이나 흑마술, 또는 악마의 눈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행복할 때에도 어떤 악한 영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복의 대상에게 어떤 불운을 끼칠까 우려한 나머지, 자기의 행복을 크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과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적이나 신물(神物)을 지니게 하고, 집 안에도 그것들을 두곤 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마법의 물약을 마시거나 주문을 외우곤 합니다.²⁴⁰⁾

감사하게도, 자신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상 속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악의 힘보다 무한히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는 모든 권능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저주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뒤바꾸기 위해 오셨을 뿐 아니라, 죄의 저주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역전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주를 뒤바꾸다 : 2단계

성경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모든 악의 힘)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요한일서 4:4)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라고 한,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16-18, 25-27).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늘로 돌아가신 후,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어의 보혜사(helper)로 번역된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para kletos)로서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또는 ‘대언자’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파라클레토스’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성령’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²⁴¹⁾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죄의 ‘권세’로부터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성령’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은 하나님의 책의 서문에 “하나님의 영”(창세기 1:2)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그렇듯이,²⁴²⁾ 성령을 미래의 선지자(또는 가브리엘 천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과 모순될 뿐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과 정면으로 위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면, 성령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은 올라가고 성령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한복음 16:7).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순간까지 성령은 때때로 믿는 자들과 일시적으로 ‘함께’ 계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야 비로소 성령은 믿는 자들의 ‘속’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주 예수님께서서는 매우 특별한 사건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

음이라”(요한복음 14:17).

성령의 강림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행전 1:4-5, 8).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 50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10일만인, ‘오순절’ 날²⁴³⁾ 일어난 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약 120명의 믿는 남녀-행 1:14) 다 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사도행전 2:1-4).

신약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이 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아시아, 아라비아,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수많은 외국인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바로 그날, 3,0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믿은 초대 신자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부활하신 메시아에 관한 좋은 소식이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 나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러낸 무리

현재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계획은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는 것”(사도행전 15:14)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라 불리는 믿는 자들로 구성된 특별한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ekklesia)로서, 단순히 ‘모임’ 또는 ‘불러낸 무리’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말 속에는 잘못된 개념들과 수많은 교파로 가득합니다.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부르는 많은 사람은 그 잘못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서 자기들의 죄에서 깨끗하게 씻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세계만방의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아들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특별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며,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믿는 자들의 가족 구성원이 되도록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오직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교회’라고 알려진 살아 있는 조직의 일원이 됩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²⁴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베드로전서 2:9-10).

성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특별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장은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고, 자신과 모든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이후로부터 부정한 죄인들로 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의 일원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저주를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구원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이는 죄인들의 삶에서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노력을 의지하는 데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6-7, 16).

“거듭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죄인이 영적으로 거듭나

는 것은 복합적인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로운 탄생은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께서 죄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으며,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시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거처를 만드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보장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에베소서 1:13-14).

아무것도 참된 믿는 자의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보증인 되십니다.”

다시 죄를 짓기 위한 자유인가?

때때로 저는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히 천국 가게 될 것을 보증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예수가 저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와 같은 논리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황무지에서 길을 잃어 절망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당신을 구해준다면, 당신은 그 구해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자유롭게 길을 잃어도 되겠군요!”라고 말하겠습니까?

또는, 만약 한 채권자가 당신이 진 큰 빚을 탕감해 주었다면, 당신은

과연 일부러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혹은, 만약 당신이 이제 막 깨끗하게 세탁해서 깔끔하게 다림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면, “좋아! 이제는 먼지 속에 마음대로 뒹굴 수 있겠구만!”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슬프게도 아주 분명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심지어 그것을 선택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점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도, 금지된 열매를 따 먹는 죄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창세기 3:6)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죄라는 광야에서 ‘더 이상 길을 잃은 자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담스러운 죄의 빛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순전한 의로 ‘옷 입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라는 ‘거룩한’ 확신을 새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십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하늘 가족의 구성원으로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고자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비록 성령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순 있지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들 안에 거하시는 이 하늘의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에베소서 4:30).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지만, 더 이상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7:16).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불경건한 관습을 싫어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그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로마서 6:1-2).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골로새서 3:5-10).

믿는 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죄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듯이, ‘하나님의 성령’도 믿는 자들을 ‘매일의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작용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내적

중양 통제소인, 영혼 속에 들어와 사심으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성품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 사람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성품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옛 성품은 그 신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 후에야 비로소 완전히 근절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는 자들은 전혀 죄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²⁴⁵⁾

모든 참된 신자의 삶에는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성품과 (성령께서 심으신) 새 성품 간의 지속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진심 어린 열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비록 죄가 “잠시 동안의 낙”(히브리서 11:25)을 제공할 순 있지만,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로마서 6:21-22)라고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 안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자기 노력’이라는 종교는 아무런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종교 법은 사람의 ‘외적’ 행동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순 있어도 성령만이 사람의 ‘내적’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통치권을 행사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따라야 할 규칙의 목록을 제시하는 대신,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사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의무인가, 사랑인가?

아내의 목숨을 잃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한 여인을 고용해서 일주일의 3일을 집 청소와 빨래를 맡겼습니다. 그는 이 가사도우미가 올 때마다 일해주길 바라는 임무의 목록을 냉장고에 써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가 일한 것에 대한 수고비를 지급했습니다.

시간에 지남에 따라 이 남자는 그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청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후, 이 남자는 냉장고에 붙어 있던 임무 목록을 제거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식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가사 도우미 여성”이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며 이전 목록에도 없었던 다른 수많은 일도 기꺼이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섬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규칙들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에레미야 31:33).

냉장고에 붙은 목록과 같이, 인간의 ‘종교’는 우리가 완수해야 할 임무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할지도 모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님은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완수할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하시기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의 관계는 의무와 규칙을 앞세운 종교보다 선행에 대한 더 나은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로마서 13:10)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천국의 시민권을 ‘약속’할 수는 있어도, 오직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및 영원한 안전으로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로마서 5:5).

즐거운 순종

물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마음으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긴다고 해서 순종에 대한 명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태복음 28:18-20).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일단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받고 나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라”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기쁘게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하게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새 신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수)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단수)의 “이름으로”인 점을 주목해 보세요. 자신을 형편없는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생애, 죽음 및 부활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유일하신 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강이나 다른 형태의 물 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믿는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위해 물에 잠기는 의식을 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행하신 일로 인해 믿는 자는 이미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 침례는 내적 실재의 외적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 새로운 주인이 되신 분께 대한 순종의 표시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우리를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²⁴⁶⁾

그렇다면 물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님의 죽음, 장사되심, 및 부활하심에 있어 신자가 그분과 하나가 됨을 가시적 방법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물 침례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이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깨끗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와 그분이 성취하신 사역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죄 사함을 받은 죄인으로서, 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압니다. 이는 제가 선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고, 제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빌립보서 3:9)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종교는 자신과 자기 노력을 바라보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들게 합니다. 한 이메일 친구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목 : 이메일 피드백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이것이 심판의 날이 존재하는 목적을 무효화하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믿는

자도 하나님께 자기 일을 직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베드로전서 4:17).

두 가지 심판의 날

성경은 미래의 심판의 날에 대해 서로 확연히 구별되는 두 날을 설명합니다. 우선, ‘의인의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후에 ‘악인의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²⁴⁷⁾

의인의 심판

여러분은 이 심판의 날에 참여하길 ‘원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 앞에 설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를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긴 동기와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근거로, 상급을 받거나 상급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시련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전파하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린 신자는 상급을 받게 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 신자는 “손해를 받을 것인데,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입니다(고린도전서 3:11-15절 참고).

성경은 신자들이 받을 수 있는 5가지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예배할 때 이 면류관을 감사함으로 주님 발 앞에 던질 것입니다.²⁴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로마서 14:10,12).

악인의 심판

당신은 소위 ‘큰 백보좌 심판’이라는 이 두려운 심판에 참여하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선물을 믿지 않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천국에 갈지, 아니면 지옥에 갈지 그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취급했는지에 따라 각자가 서로 다른 등급의 형벌을 받을 것이지만, 모두 정죄를 받아 불못에 떨어진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요한계시록 20:11-15).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이제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한복음 1:12-13).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라디아서 4:6).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허락하지 않고 그저 멀리 계시면서 종교의식이나 요구하는 신으로 묘사하는 종교들로 가득합니다. 이와는 달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 하심으로 옷을 입히시며, 그분의 성령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파키스탄의 ‘빌퀴스 쉬이크’는 자신이 쓴 책,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 교육 서적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수개월을 보낸 후, 결국 하나님께 진리를 알게 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두 책을 양손에 집어 들고는 ‘아버지, 어느 것인가요?’라고 물었어요. ‘도대체 어느 책이 아버지의 책입니까?’라고요. 그런데 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같은 일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죠. 저는 제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 소리는 마치 제가 전에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새긴 것 마냥 제게 아주 명확하게 들렸어요. 그 음성은 신선했고, 친절한 말들로 가득했으며, 동시에 권위로 충만했었죠.

‘넌 어느 책에서 나를 아버지라 만나니?’

저는 ‘성경이요!’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²⁴⁹⁾

이 파키스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게 된 날, 저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저의 신분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0:27-28)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와 교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로 인해 제가 하나님과 다시 또 분리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그가 그 가족의 일원에서 제외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이미 태어난 아들을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들 순 없습니다. 부모님과 육신적인 관계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로서의 신분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1:23)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는 결코 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결단코 당신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내 편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주신 ‘영원한 **관계**’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갖는 ‘매일의

교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분과 상태

이런 장면을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정원에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도망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축구를 합니다. 이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아이가 가진 '신분'에는 영향이 없을 테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진 교제의 '상태'에는 분명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집에 돌아오면 추궁을 받을 것입니다. 엄한 말로 꾸중을 듣거나 적절한 징계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불순종을 자백해야만 다시 아버지와 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를 내리십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잠언 3:11-12).

우리가 갖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요한일서 1:6, 8-9).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모든 형태의 죄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죄가 아무리 작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죄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아주 민감해지길 바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내에게 불친절하게 말하거나, 제게 잘못을 한 누군가에게 매정한 태도를 보이거나, 완전한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경우, 성령님은 저의 죄를 지적해줍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주님께 “(저의) 죄를 자백하고”, 제가 잘못을 범한 사람이면 누구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비로소 주님과 친밀하고 달콤한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신분’은 온전한 것이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저의 상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영원히 완성되었지만, ‘제 안에서’의 그분의 사역은 제가 천국에서 그분을 만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목적

그리스도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베드로전서 1:16).

또한,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성령에게 복종하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라)”(에베소서 5:17-18).

성령은 우리의 개성을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의롭고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분을 높이 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린도전서 6:18-19).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얼마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쳐주시며,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로 하여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우십니다.²⁵⁰⁾ 성령님은 믿는 자로 하여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십니다.²⁵¹⁾ 성령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 남을 돕고 세우게 하십니다.²⁵²⁾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분을 위해 일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아무리 극심한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태복음 10:16-20).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됨

요컨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reflect the image of God),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the Son)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이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로마서 8:26, 28-29).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모든 사건과 시련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의 첫 장은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간이 창조주에게 죄를 범하는 선택으로 이 형상은 철저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삶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죄로 인해 손상된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분의 계획에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와 같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 동기, 말, 행동 등에 있어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행동을 반영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원래 함축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여 보게 될 날에야 비로소 완성될 지속적인 과정입니다.²⁵³⁾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한일서 3:1-2).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성화 사역으로 인해, 사탄의 영향력은 그 효력을 잃고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는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목적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과 죄와 죽음을 영원히 제거하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29

3단계 :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20).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죄가 인류를 부패시킨 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यो.”라고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신비로운 최초의 예언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단, 그분은 자신의 예정과 시간표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실 것입니다.

저주를 뒤바꾸다 : 3단계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의 형벌을 완전히 지abol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지옥은 더 이상 장차 경험할 미래가 아니며, 천국은 확실히 보장된 미래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인 죽음은 그 쓰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형벌’이 역전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셔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사탄과 죄의 영향력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빚어가게 하셨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로소 사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장차 올 일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초림을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예언했습니다.²⁵⁴⁾ 메시아의 초림이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요한계시록 11:15).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담의 자손들은 그분께 가서 면류관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그분이 선지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왕을 그처럼 무례하게 대우하는 것은 더 이상 상상조차 못 할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이사야 45:23, 빌립보서 2:9-11). 하지만 이 일이 일어나기 전, 일련의 다른 예언들이 먼저 성취되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기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 무릎을 꿇기 전에 일어나야 할 일 중의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중에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데살로니가전서 4:16-17).

이 비밀스럽고 놀라운 사건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천국에 거하고 있는 믿는 자들의 죽은 몸은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믿는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²⁵⁵⁾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즉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공중으로 끌어 올려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이 땅에서 희생적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 각각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²⁵⁶⁾ 그리고 나서, 영원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승리자요, 그들의 영원하신 ‘신랑’²⁵⁷⁾ 되신 분께 공식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요한계시록 19:7-9).

영원에서 누리게 될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즐거움보다 더 무한히 큰 즐거움을 주는 관계일 것입니다.

지상의 대환난

한편, 그 아래 지상에서는 “대환난”²⁵⁸⁾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완고한 세상에 자신의 진노를 부으시고 그 이들의 재림을 예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도록 계획된 시간이기 때문에 “야곱의 환난의 때”(예레미야 30:7)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요한일서 2:18, 요한계시록 13장)이라 불리는 인상적이고 강력한 세상 통치자가 일어나 세상을 지배할 것입니다. 사람들 대다수는 그와 기적을 행하는 그의 거짓 선지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그는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할”(요한계시록 13:16) 것입니다.

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참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 메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을 속임과 파멸과 죽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아마겟돈

성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을 때 한창 진행 중에 있을 일, 마지막 세계 전쟁에 관해 기록했습니다. 이 극적인 충돌은 요단강에서 지중해까지 뻗은 넓은 지역인, ‘에스드라엘론’ 평야에서 발발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과거와 미래의 전쟁터를 ‘아마겟돈’이라 하는데, 이는 ‘살육의 산’을 뜻합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 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요한계시록 16:14-16).

선지자 스가랴도 메시아의 재림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극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여호와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어지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스가랴 14:1-2).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대학살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의 재림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이 도성에 살아남은 시민들이 하늘 외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주”(The LORD saves)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신 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다름 아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에 그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번에는 영혼의 깊은 회개와 애통함으로 그들의 왕을 영접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스가랴 12:10).

마침내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유대 민족의 눈이 떠질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또 영원토록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알고 믿을 것입니다.²⁵⁹⁾

다음에 일어날 일은 세계 역사상 전쟁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될 텐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원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이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스가랴 14:3-4, 12, 7, 9).

마침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세를 되찾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언을 스가랴가 기록하기 수십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다니엘에게 같은 맥락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다니엘 7:13-14).

위 말씀에서 ‘권세’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창세기 1:26, 28)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창조주께 반역했을 때, 그는 이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첫 사람”, 아담이 양도해버린 이 땅에 대한 통치, 권위, 및 지배를 “둘째 사람”²⁶⁰⁾이신 예수님께서 되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에게 스가랴와 다니엘의 예언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보완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이르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요한계시록 19:11-16).

만왕의 왕이 재림하셨을 때, 그분은 하늘의 천군과 아담의 구원받은 자손들로 구성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²⁶¹⁾ 예수님의 초림 시에 보여주셨던 은혜로운 권능과 영광은 그분의 재림 시에 나타내실 끝없는 권능과 경이로운 영광에 비하면 미약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임한 하늘의 통치

만약 당신이 홀로 숲속을 거닐고 있을 때 짐승을 만난다면, 어린 양과 사자 중에 어느 동물이 나온가요? 메시아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자”로 오실 것입니다.²⁶²⁾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4:17)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그들의 왕을 영접하기보다, 서로 힘을 합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메시아가 피를 흘려 세상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의 손으로 성취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은 죄인들이 주 예수님과 그분이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을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왕국을 세우시고, 영원히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모든 신자가 이미 공인된 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빌립보서 3:20-21).

이 땅에 임할 하늘의 통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이곳에서부터 그분은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고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마태복음 6:10) 것입니다. 악은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기”(요한계시록 19:15)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초림 때 육체를 입으셨고 그 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부활된 육체로 하늘에 올라가신 것과 같이, 그분은 이 땅에 ‘육체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던 날,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

사탄이 결박되다

하나님의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해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된 사건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 그분의 첫 계획 중 하나는 최초의 인류를 자멸의 길로 이끌어간 옛 ‘뱀’인 사탄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요한계시록 20:1-3).

사탄은 천년 기간 내내 결박되고 격리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감금되고 의로우신 분이 다스리심으로 결국 “이 땅에서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은혜”(누가복음 2:14)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갈망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

진정한 복종

약 3,000년 전에, 솔로몬 왕²⁶³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이 그분께 진실로 굴복하여 절하게 될 메시아의 미래 통치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날에는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그분을 알며 그분께 복종할 것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이다. 아멘! 아멘!”(시편 72:7-19).

이 시편은 “그가…땅끝까지 다스리시게 될” 그리스도의 미래의 왕국을 내다볼 수 있는 분명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완벽한 통치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메시아의 통치는 오늘날 부패하고 요동치는 세상과 완전히 대조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최초로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모든 유아, 아동, 및 어른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무한히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뉴스 매체는 평화를 외치며 군비축소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는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위

와 권력은 제한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도자들은 그들이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평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도 북풍케 하시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마침내 참된 정의와 “풍부한 화평”(시편 37:11)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 세기 동안, 많은 왕과 통치자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라고 선포합니다. 이 땅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인자(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치리 아래, 사상 초유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천년 동안 번창할 것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시편 72:11, 17).

주님은 친히 이 피곤한 세상에 유례없는 유일한 의의 통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담의 자손들은 영광스러운 몸과 거룩한 성품을 영원히 소유한 자들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에는 부패가 없을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요한계시록 20:6).

군주 정부, 전체주의, 민주주의, 및 종교 정부 등 모든 형태의 정부는 다 실패했지만, 그분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하심 같이 그분의 나라도 완전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여러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예언이 메시아께서 언젠가 온 땅을 다스릴 것도 예언한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미가 5:2, 4-5).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인 이사야도 우리에게 태어날 한 아기,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아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 아들의 세계적인 통치를 앞서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이사야 9:6-7).

마침내, 온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른 이름으로 부를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모든 나라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스가랴 2:11).

오늘의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을 ‘바로 이 순간에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무지는 없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서 사람들 가운데에 거하셨을 때, 사람들 대부분은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사람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그분이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을 인정하게 될 황금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이사야 66:23).

이 땅은 더 이상 수천 가지의 종교나 교단이나 종파로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역사적인 현실을 아무도 감히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을 믿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분과 그분의 메시지에 대한 진리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하박국 2:14).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게 됨으로, 동서 간의 갈등과 남북 간의 전쟁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이의 갈등은 중단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륙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전과 억압은 종결될 것입니다. 참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스며들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3-4).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기 때문에 평화와 연합이 전 세계에 충만할 것입니다. 바벨의 혼란은 역전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 세계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스바냐 3:9).

저주가 풀리다

이 천년 간의 번영과 더불어, 주님은 죄로 인해 이 땅에 내려진 저주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저주를 뒤바꿀 수 있는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장애를 회복시키셨고, 질병을 고치셨으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군중들을 먹이셨으며, 자연을 완벽히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그분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와 왕이시라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초림 시에 샘플로 제시하신 증거를 재림 시에 온 세상에 온전히 제시하실 것입니다.

즉, 그분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결박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장애, 질병, 및 자연사를 근절시키실 것입니다. 땅은 더 이상 잡초와 가시덤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농부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수확을 얻을 것입니다. ‘가난’과 ‘기근’이란 말은 구시대적 용어가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황금시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지상의 백성들이 거부했던 천국이 그분의 재림 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뚝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이사야 35:5-6, 65:25).

동물의 왕국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원래 설계된 대로 초식(草食)의 생태와 에덴의 상태로 되돌아가 평화 속에 서로 공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중에 태어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아담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단순히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뱀에 관한 마지막 구절에 예언된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셨나요?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천년 동안, 뱀은 계속 해서 배로 기어 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뱀이 땅 위를 배로 기어 다니는 모습은 저주를 영원히 뒤바꾸실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에 아직도 한 가지의 극적인 사건이 남아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악의 최후 발악

앞서 우리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 결박되어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에 무저갱에 감금되어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요한계시록 20:2-3)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탄을 다시 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를 그냥 영원히 가두어 두면 되지 않나요?

주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를 따라 악을 영원히 없애기 전에 인간의 죄악 되고 타락한 마음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노출되게 하실 것입니다. 인류가 시간에서 영원으로 넘어갈 때, 이러한 진리가 매우 명백해질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예레미야 17:9-10).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사악한지요”? 심지어 완전하신 왕의 완벽한 통치를 받는 완벽한 환경 속에 사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도, 천년 기간에 태어난 사람 중 큰 무리의 사람들이 사탄이 풀려나는 순간,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그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그들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원수와 협력해서 그들의 창조주께 반역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사탄의 마지막 저항

“천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요한계시록 20:7-9).

주님은 반역하는 인간들로 구성된 사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하시지만, 그들이 집결하자마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사탄과 그의 편에 선 모든 사람이 막다른 길에 몰린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가 상하다

그다음으로 일어날 일은 역사상 가장 장엄한 사건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요한계시록 20:10-15).

전 세대에 걸쳐 지속된 싸움은 마침내 영원히 끝날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나고, 죄의 저주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얻은 교훈은 절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죄의 추악과 하나님의 의를 목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마태복음 25:41)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자들은 이 영원한 감옥에서 절대로 도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천년 동안 완벽한 세상에서 완전하신 왕의 통치를 받는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께 반역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형벌에 대해 하나님을 결코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름과 메시지는 영원토록 그 정당성이 입증될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요한계시록 21:8).²⁶⁴⁾

다시는 악이 그 추악한 머리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영원토록 순종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너무 놀라워서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요한계시록 21:3-5).

구약성경의 처음 두 개의 장이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를 설명하는 것과 같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두 개의 장은 그분의 새로운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죄와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시 한번 창조주의 거룩한 속성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나 천사도 다시는 죄의 먹이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교훈을 충분히 다 배웠을 것이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아담의 죄가 미친 영향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눈부신 임재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분의 놀랍고 영원한 계획에 참여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은 그분께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주제는 항상 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구원자와 그분의 백성들 사이의 달콤한 교제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지상의 낙원에서 잃어버린 것은 천상의 낙원에서 회복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창세기 1:26).

모든 것은 그분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은 인격과 행동에 있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그 가능성조차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 인정될 것입니다. 선지자 다윗은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편 17:15).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로마서 8:29)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한일서 3:2).

그분을 위하여!

태초부터 창조주의 목적은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로 그분의 영광, 순결, 사랑, 공의, 자비, 및 은혜를 알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과 그 오랜 전쟁을 치르면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사도행전 15:14)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취하려 하셨던 것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누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저주를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해지나요, 아니면 공포에 휩싸이게 되나요?

성경은 종말에 관해 더 많은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살펴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신실하신 창조주께서 그분의 책 가장 마지막 장에 담긴 작은 예언 하나를 성취하실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요한계시록 22:3).

30

천국 미리 보기

세계 인구의 다수는 악에 대한 ‘음양’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음’은 ‘그늘’을 의미하고 ‘양’은 ‘별’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음양의 기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흑백이 독특한 조화를 이루는 원입니다. 이 중국 고대의 철학이 진리를 담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오히려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삶과 죽음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인간의 존재에 있어서 자연적이고 끝나지 않는 특징으로 간주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 다른 분석을 내놓습니다. 성경은 고통과 슬픔이 항상 이 세상에 통합된 일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악과 고통과 죽음이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그래프는 하나님의 변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묘사합니다.

〈 — 영원 (시간) 영원 — 〉

완벽한 선 (선/악) 완벽한 선

현재는 괄호 안에서와같이 선과 악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²⁶⁵⁾

하나님 책의 처음 두 장(창세기 1,2장)과 마지막의 두 개의 장(요한계시록 21-22장)은 죄가 없는 세계, 즉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랑과 높임을 받으시는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무수한 장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그 저주를 다루시고, 또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을 함께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차근 차근 풀어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좋은 이야기가 다 그러하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 : 창세기 1, 2장:

완전한 세상 - 악이 들어오기 전

중간 : 창세기 3장 - 요한계시록 20장:

부패한 세상 - 하나님의 개입

끝 : 요한계시록 21-22장:

완전한 세상 - 악이 근절된 후

종말의 책

성경의 처음 책이 '시작의 책'인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책은 '종말의 책'입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
만물의 시작	만물의 완성
천지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하나님이 지구를 위해 태양을 만드심	하나님은 하늘의 빛이시다
인간에 대한 사탄의 첫 유혹	인간에 대한 사탄의 마지막 미혹
하나님의 첫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죄와 사망의 유입	죄와 사망의 철폐

'첫 아담'이 통치권을 잃다	'마지막 아담'이 통치권을 회복하다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다	사탄이 불뭇에 던져지다
첫 어린 양의 희생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이 지상낙원에서 쫓겨나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감
인간이 생명나무에서 차단되다	사람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다	구원받은 인류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함

이 목록에 더 추가될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의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모든 새로운 시작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러한 말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헬라이어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철자)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요한계시록 1:1, 5-8).²⁶⁶⁾

하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그의 종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 공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 다녔던 열두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²⁶⁷⁾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60년 만에 성령님은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서재에 꽂힌 이 마지막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계시’란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이 매력적인 책은 어떤 인간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들을 펼쳐 보여줍니다. 이 책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시는지를 요약해줍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천국을 미리 보여줍니다.

보좌

택함을 받은 몇몇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엿볼 수 있었지만, 사도 요한만큼 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두 가지 보석)²⁶⁸⁾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요한계시록 4:1-3).

요한은 하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설명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천사들이 날아다니며 “기록하다 기록하다 기록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요한계시록 4:8)고 끊임없이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이 이 땅에 있는 무엇과 조금 닮아있다고 묘사할 수 있었을 뿐, 실제로 그 모든 것은 무한히 더 아름다웠고 화려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불빛과 강렬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색으로 된 장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요한은 깊고 폭풍우 같은 소리와 즐겁고 찬양으로 가득 찬 무수한 음성을 들었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었습니다.²⁶⁹⁾

황홀감

세상의 종교들은 제각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천국을 묘사합니다. 어떤 묘사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지루합니다. 아마도 이런 만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름 위에 둘러앉아 열심히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장엄한 처소를 묘사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이들은 천국을, 멈추지 않는 관능적인 남성 중심의 정원으로 묘사합니다. 이 개념도 잘못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마태복음 22:30)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 가운데 있는 기쁨과 경이와 황홀감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영역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알려진 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과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 간에 영원토록 존재할 영광스러운 관계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결혼이라는 제도를 설계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결혼 관계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강렬한 기쁨과 거룩한 교제를 다 보여 주진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비밀”(에베소서 5:32)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요한계시록 19:9)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궁극적 의미는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 전에 창조된 천사들은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더욱 경외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오직 구원받은 아담의 자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완전하심을 받아들이는 데 영원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시편 139:17-18).

주님과 함께한다는 황홀감과 기쁨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지루해지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분에게서 우리의 눈을 한 번이라도 땔 수 있을까’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편 16:11).

큰 무리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도 보았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요한계시록 7:9-1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에서 태어난 구세주를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²⁷⁰⁾ 하나님은 요한으로 하여 미래를 내다보고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족, 모든 나라, 모든 언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목소리를 모아, 수많은 무리의 구원받은 죄인이 영원한 죽음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고 영생으로 축복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 하도다 하더라”(요한계시록 5:9-12).

나의 대속자!

4천년 전, 선지자 욥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욥기 19:25-27).

당신의 마음은 욥과 같이 “하나님을 보기를” 갈망하나요? 당신은 그분을 당신의 대속자로 알고 계시나요?

모든 참된 신자들은 욕이 가졌던 확실한 소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입장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저의 대속자를 얼굴로 마주하게 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갈라디아서 2:20)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주님 나라에 가신 제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놀라운 시간을 온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나의 주 예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은 제가 당해야 할 지옥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제가 그분과 함께 영원을 보내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한복음 17:24).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그분과 함께 살도록 계획하셨지만, 당신이 그분의 초대를 받아들이도록 절대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한계시록 2:7, 요한일서 5:5).

완벽한 집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들에는 요한이 보았던 영원한 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과 함께 살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요한계시록 21:1-2).

이 영광스러운 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창조된 세상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대륙은 더 이상 서로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요한계시록 21:4).

모든 것은 완벽할 것입니다. 이 천상의 도성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묘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요(2,200 km)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21:16-24, 27).

이 거대한 도성은 모든 면에서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성 요소는 주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도성에는 성전이나 태양이 없을 것인데, 이는 주님께서 친히 예배의 중심지이자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천국은 창조의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창세기 1:3)고 말씀하신 그분, 주 예수님에 의해 환히 빛날 것입니다.

이 도성의 빛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를 환히 비추었던 찬란한 광채이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요한복음 8:12)라고 말씀하신 그분, 주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입니다.

이 하늘의 도성은 천국을 상징했던 성막 안의 지성소와 같이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도성의 길이, 너비 및 높이의 치수는 각각 2,200km(1,500 마일)입니다. 분명히 이 도성은 새 땅의 성층권을 통과해서 우주에까지 솟아오를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집에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 도성 안에서 발견되는 정원을 묘사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요한계시록 22:1-5).

완벽한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아름다운 동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매우 아름다운 동산이 있는 웅장한 도성에서 끝이 납니다. 에덴과는 대조적으로, 천국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접근이 금지되었던 ‘생명나무’만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거룩과 영원한 생명만이 하늘 도성의 유일한 선택사항이 될 것입니다.

시험의 시간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제 시간 속의 역사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심판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깨뜨릴 수 없는 교제의 달콤함은 영원히 지속될 특징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만약 아담과 하와가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을 법한 사실보다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왜 ‘훨씬 더’ 놀라운 것일까요? 그 대답은 ‘속량’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로새서 1:13-14).

사형선고를 받은 범법자로서 죄와 사망의 어두운 무저갱에 던져지는 ‘최악의 운명에서부터 **건져져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의 나라에서 존대 받는 시민이라는 ‘최선의 상태로 **옮겨졌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께서 그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루신 일입니다. 그분은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지극히 소중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회고하면서 감사하게 될 완벽한 이야기, 곧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요한계시록 7:9-10).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시대를 막론하고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은 낭만과 구출의 이야기, 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²⁷¹⁾ 밤하늘 아래 깜빡이는 불 주위로 옹기종기 모여 있는 무리에게 마을의 이야기꾼이 각색한 고대의 전설이든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읽어주는 동화이든지, 그 이야기들은 대체로 비슷한 즐거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즐거리가 되는 것이죠.

“곤경에 처한 한 젊은 숙녀가 악당에게 사로잡혀 있다가, 용감한 전사 또는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녀를 절망

적인 상황에서부터 구출해냅니다. 이 남자주인공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구출한 뒤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여 아름다운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악에서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이나 어른 모두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에 따라 지어낸 이야기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가공된 이야기를 1,5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사람이 기록으로 남길 리가 없고, 수백 가지의 예언을 통해 상세하게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가

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지혜를 따라 말할 수 없을뿐더러,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누가복음 18:31-33).

소설은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들에게 깨끗해진 양심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공상 소설도 우리에게 창조주와의 인격적

인 관계를 맺어줄 수 없고, 우리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적인 마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야기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는,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 아들은 사람이 되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으며 온전한 피를 흘리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사탄과 죄와 지옥에서부터 건져내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의 지혜와 사랑을 누리는 영원한 기쁨을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스러워하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전도서 3:14).

초청과 경고

하나님의 책은 이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성령과 신부(구원받은 죄인들)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

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요한계시록 22:16, 13, 17-21).

이리하여 ‘아멘’(‘이 말은 진실하고 사실입니다’를 의미함)이라는 말을 끝으로, 시간의 밖에서 존재하시는 저자께서는 자신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다

여호와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에덴동산에 찾아오셨을 때, 아담의 대답을 기억하시나요?

아담은 부끄러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창 3:10).

남자와 여자는 범죄함으로 인해 그들의 창조주와 주인이신 분을 피하여 숨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러 오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는 그들의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의 약속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이와 같이 기쁘게 반응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한계시록 22:20).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왜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주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지 않을까요? 왜 그들은 오히려 그분과 얼굴 마주 대하기를 그토록 열망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디모데후서 1:9-10).

한 가지 규칙

히 말씀하신 것처럼, 천상의 낙원인 천국에서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한 가지 규칙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21:27).

당신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당신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메시지를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1-3, 6).

끝맺는 말

이 책을 쓰는 것은 제게 매우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분의 인격과 이야기와 메시지에 관해 묵상하면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책을 쓰는 과정 가운데에 그분이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말

제가 비록 이름들을 다 나열하지는 못할지라도, 저의 훌륭한 아내 캐럴 자매의 꾸준한 내조와 은사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의 소중한 동역이 없었다면 이 책은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표지와 그림은 제 동생 데이브의 작품입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히브리서 6:10).

또한, 이 책을 쓰는 동기가 된 질문들을 이메일로 보내준 수많은 무슬림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짧은 여행에 저와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짧은 여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분량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글 속에서 인용한

성경구절은 성경의 전체의 약 4%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여행의 마지막에 이르렀을지라도 사실은 이제 겨우 시작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여행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분 자신은 복합적이고 심오하시고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 할지라도 그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현실을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요한복음 21:25).

저는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를 저술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성경구절을 포함시키고, 또 어떤 것을 배제할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킵니다. 레바논에 있는 제 친구가 발견한 대로(제7장), “저는 제가 성경을 충분히 읽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여행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를 다시 훑어가며 거기에 인용된 많은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 각각의 인용절이 포함된 문맥을 다시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쓰신 모든 책을 하나씩 통독해 가면서, 그분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시편 119:18).

추가적인 참고문헌이나 좀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미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장별 복습 질문들도 꼼꼼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제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500년 된 아래와 같은 축복의 말씀으로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6:24-26).

폴 댄 브람슨

pdlbramsen@rockintl.org

www.One-God-One-Message.com

미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욥기 34:32).

시작하는 말

1. 사헬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과 열대 우림 지역을 구분하는 반건조 전이 구역. 이 모래와 관목 지대는 세네갈에서 수단까지 펼쳐져 있다.
2. 일신론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다신론자들은 많은 신과 여신들을 믿으며, 범신론자들은 만물이 신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높이며,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

제1장 : 진리를 사라

3.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에서 이 절과 함께 선지서에서 인용한 1,000개 이상의 구절들은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다. 여기 이 경우와 같이 때로 한 절의 한 부분만 인용되기도 한다. 참고로, 잠언 23장 23절의 전체 구절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4. 데이빗 B. 바렛, 조지 T. 쿠리안 및 토드 M. 존슨.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 : 현대 세계에서 교회와 종교에 대한 비교 조사. 런던: 옥스포

드 대학 출판부, 2001년.

5. “오늘날, 성경 번역에는 총 2,479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었으며 그중 성경전서는 최소 451개의 언어로 번역이 완성되었고, 신약성경은 약 1,185개의 언어로 번역 완성되어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경에는 843개 이상의 언어가 추가로 사용되었다. (미국 성서공회, 2010년, www.ubs-translations.org/about_us).

6. 폭스 존 (G. A. 윌리엄슨 편집). ‘기독교 순교사학’. 토론토: Little, Brown & Company, 1965년.

7.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한복음 18:36)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리차드 범블란트,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자들 - 30주년 기념판’. 배틀스빌, OK: Living Sacrifice Book Co., 1998년.

9. ‘의의 길’ 라디오 시리즈는 세계적인 방송을 위해 약 100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또 번역이 진행 중이다. www.one-god-one-message.com

10. 해당 쿠란의 전체 절은 이렇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에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 그보다 앞서 온 율법을 확증했다. 우리는 복음인 그를 보냈다. 이 복음은 그보다 앞서 온 율법을 안내하고 밝혀주며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알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침과 훈계이다”(수라 5:46).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에 사용된 쿠란의 영어 번역은 ‘압둘라 유수프 알리’가 맡았다. ‘쿠란 번역’. 뉴욕: 타리케 타르실레 쿠란(주), 2003년. 주: 쿠란은 ‘수라’라고 부르는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절의 번호는 쿠란 번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다. 어느 한 절을 찾을 때는 주변 구절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1. ‘우리’는 누구인가? 쿠란에서 알라는 종종 1인칭 복수로 자신을 지칭한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또한 때때로 자신을 1인칭 복수로 지칭한다. 주: 아랍 설교자들은 ‘알라’라는 단어를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한다.

1) ‘알라’는 아랍계 그리스도인들, 다른 비무슬림들, 및 무슬림들이 함께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총칭이다. 이 말이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면 적절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 아랍 설교자 중에, 그 어떤 집단도 일반적인 용어인 ‘알라’를 쓰지 않는다.

2) 무슬림들은 ‘알라’를 적절한 하나님의 일차적인 이름으로 사용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9장을 참조한다.

12.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에 발췌 및 기재된 이메일은 이를 기록한 사람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명으로 표기하였다.

13. ‘p.b.u.h.’는 ‘peace be upon him’(그분께 평화가 있기를)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슬림들이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말한 후에 종종 덧붙이는 말이다. 무슬림들이 무함마드의 이름 뒤에 사용하는 일종의 아랍어 공식은 ‘살라 알라후 알라이히 와 살람’(s.a.w.)으로서, “알라의 기도가 그에게 의미한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쿠란의 절에 근거한 것이다. “아! 알라와 그의 천사들이 이 선지자(무함마드)를 축복하여 주셨으니, 오, 너희 믿는 자들이여! 그분께 축복을 드리고 정중한 인사를 하라”(수라 33:56).

이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브리서 9:27)라고 한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정해져 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영원을 보낼 것인지를 바꿀 순 없다(요한계시록 22:11).

14. (원문 그대로)는 ‘따라서’와 ‘그러므로’를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인용구 뒤에 대괄호 속에 이 말이 사용된 것은 여기에 분명한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원문은 정확하게 인용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다. 주 : (이해를 돕기 위해) 철자와 문법을 축약하거나 교정한 것을 제외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에 사용된 이메일 인용구는 메일을 받은 그대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아흐메드’에게서 받은 이 특정 이메일에는 사실상 대문자가 없었다. 이 부분은 수정되었다.

15. ‘영광스러운 쿠란의 의미: 무함마드 마르마두크 픽홀의 역해’.
뉴욕 : Meridian, 1997년.

16. 예를 들어, 쿠란은 수라 40(장), 70-7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 보낸 이 책과 계시를 거절하는 자들 : 그들은 곧 알게 되리라. 그들의 목에 멍에와 사슬을 두를 때 그들은 끌려가리라. 악취가 나는 끓는 액체와 불뭇에 던져져 태워지리라...” 또한,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에 우리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 그보다 앞서 온 율법을 확증했다. 우리는 복음인 그를 보냈다.

이 복음은 그보다 앞서 온 율법을 안내하고 밝혀주며 확인해 주었다. 그것은 알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는 지침과 훈계이다”(수라 5:46). “오 너희 믿는 자들이여! 알라와 그의 사도, 그리고 그가 그의 사도에게 보낸 성경과 그보다 앞선 자들에게 보낸 성경을 믿으라. 알라와 그의 천사, 그의 책, 그의 사도들, 그리고 심판의 날을 부인하는 자마다 길을 잃고 멀리 갔나니...우리는 노아와 그 이후 사자들에게 보낸 것 같이 너희에게도 영감을 주었도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및 12지파, 그리고 예수, 욥, 요나, 아론, 솔로몬에게 영감을 보냈고 다윗에게는 시편을 주었도다”(수라 4:136, 163). 이 쿠란의 진술보다 더 많은 내용은 3장의 첫 번째 페이지와 그 각주를 참조한다.

17. 잠언 23:23. 많은 사람이 진리를 ‘사기’는커녕 ‘팔기’를 일삼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심지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요, 성경에는 쿠란이 무슬림에게 믿으라 명령하는 고대 성경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그러하다).

제2장 : 장애물을 극복하다

18. 아서 코난 도일 경. '세계 걸작품의 보배 : 설록 홈즈의 기념 사례. 'R.R. Donnelly and Sons' 사, 1981년, 17쪽. (1891년 영국에서 초판 발행.)

19. 로마서 14:1-15:7, 마태복음 7:1-15

20. 도일, 16쪽

21. 민수기 12장

22. 열왕기하 5장

23. 요나서 4장

24. 성경의 책들, 다니엘, 에스라, 및 에스터를 참조한다.

25. 요한복음 4장

26. '가장 위대한 여행', 네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 2006년 3월호, 62쪽

27. 시편 90:1-12, 마가복음 8:36, 고린도후서 4:16-18, 로마서 8:18, 야고보서 4:13-15

28.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한 재앙적인 사건을 허락하시거나 직접 내리셨다. 노아의 세대에, 백 년의 인내와 경고의 시간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은 세계적인 홍수를 보내셔서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셨다(창세기 6-8장). (지질학적 및 화석의 기록이 그것을 확증해 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이 우주적인 홍수를 일종의 신화로 간주한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3명을 제외한 모든 영혼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에 멸망했다. 모세가 살았을 때 이후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을 멸절시키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다(여호수아 1-10장).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연속으로 행군한 뒤 성의 외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하늘의 기적적인 개입이 종종 포함되곤 했다. 하나님은 이 민족들을 심판하시기 전 수백 년을 기다리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우상 숭배, 부도덕한 행실, 및 인신제사(창세기 15:15, 출애굽기 12:40)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아브라함, 요셉 및 모세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의 증거를 무시했다. 불과 몇몇 가나안 사람들만 회개하고, 이집트에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에 갈라 길을 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옛 백성을 사용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공평과 정의를 유지하셨다.

예를 들어, 토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간음으로 인해 24,000명이 죽는(민수기 25-31장) 재앙을 통해 그들을 먼저 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을 보내 주변의 부패하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신 것이다. 이 민족들이 무고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오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극도로 부패해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레위기 18:25)고 말해준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내가 크시지만, 그분의 진노 또한 크시며 그분의 심판은 확실하다.

29. 하나님이 악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구원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베드로후서 3:8-9).

30.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8, 12, 28, 29장은 이 세 가지 예상된 반론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31. 마태복음 7:1-20.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6장을 비교해 보라.

32. “101가지 성경의 모순 해결”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미 수년간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 웹사이트에는 “101가지 확실한 성경의 모순”이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www.debate.org.uk/topics/apolog/contrads

33. 성경에서 어떤 절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법칙

1) 주변 문맥을 읽는다.

2) 한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의 5번째 책인)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 예언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신명기 18:15).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이스마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주변 문맥이(예, 신명기 17:15, 20, 18:2, 5 등) 올바른 답변을 준다. 하나님께서 “일으키리라”고 약속하신 이 특별한 “선지자”는 누구일까? 많은 사람이 이 예언을 그들의 특정 종교의 창시자에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올바른 해석은 이후 성경 속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5:43-37, 요한복음 6:14, 사도행전 3:22-26을 읽어보라.

34. BC = Before Christ / AD = Anno Domini(“우리 주님의 해에”를 의미함).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전히 역사를 나누는 기준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약어에서 ‘Christ’(그리스도)를 뺀 BCE (Before Common Era: 일반 시대 이전) 및 CE(Common Era: 일반 시대)를 사용한다.

35. 당신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본 적 있다면 법적 문서인 일종의 증서에 서명했을 것이다. 이 계약에서 은행의 역할은 약속된 금액을 당신에게 빌려주는 것이고 당신의 역할은 명시된 기간에 대출금을 갚는 것이다. 이 계약에서 당신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의 창조주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약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분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약속이다. 사람들과 “언약”(예레미야 31:31)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보이는 유일한 특징이다.

36. 우리는 5장에서 성경의 이 신성한 특징을 고려할 것이다.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강력한

예는 다니엘서 7-12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니엘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BC 400년경의 세계 제국의 역사를 기술함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니엘은 BC 600년과 BC 530년 사이에 다니엘서 전체를 기록했다.

제3장 :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

37.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무슬림들에게 알려주는 쿠란의 구절에 대한 또 다른 예는 다음과 같다. 수라 2:87-91, 101, 136, 285, 3:3-4, 4:47, 54, 136, 163, 5:43-48, 68, 6:92, 10:94, 20:133, 21:105, 28:43, 29:46, 32:23, 40:53-54, 70-72, 45:16, 46:12, 57:27, 등.

38. 수 세기에 걸쳐, 구약성경은 유대교 공동체에 의해 열정적으로 보호되었다. 이를 생각해보라.

많은 사람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고 지키고자 했던 책인 성경을 어느 누가 함부로 변경하는 것을 그들이 허용했겠는가? 한 종교 공동체(기독교)가 또 다른 종교 공동체(정통 유대교)가 숭배하고 보호하는 책(구약성경)에 그들의 믿음의 기초를 둔 사례는 역사상 하나도 알려진 게 없다. 이 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구약성경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39. '쿠란 성경'. M. H. 샤키르가 번역함. 타리케 타실레 쿠란 사, 전자 버전, 1993년.

40. 브루스 M. 메츠거 및 마이클 D. 쿠간. '옥스포드 성경 동반자'. NY: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 1993년 754쪽.

41. 각주 37번을 참조한다.

42. AD 750년 이전에는(무함마드의 죽음 이후 100년 이상) 검증 가능한 쿠란 또는 이슬람 문서가 없다. www.debate.org.uk/debate-topics/historical/is-quran

43. 메츠거 및 쿠간, 683쪽.

44. 고대 필사본에서 발견된 명백한 차이점에 대한 한 가지 예는

이러하다. 구약 열왕기하에서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십팔 세라”(열왕기하 24:8)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 역대하는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팔 세라”(역대하 36:9)고 기록한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들은 어린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그를 통치 ‘파트너’로 임명한 것이 8세 때이며 그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 이후 18세에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더 그럴듯한 설명은 이 수치적 차이는 단순히 ‘18’ 대신 ‘8’을 필사한 한 초대 학사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틀린 숫자는 이 학사의 사본에서 ‘전해 내려온’ 모든 필사본에서 고쳐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사실이든지, 이러한 차이는 아무렇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것을 변경하지 못한다. 대부분은, 고대 성경 필사본의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다양한 문서들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정확한 번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45. 하디스는 이렇게 기록한다. “그 때 ‘우스만’이 ‘자이드 빈 사빃’, ‘압둘라 빈 아즈주배어, 사이드 빈 알아스’ 및 ‘압두르 라만 빈 하리빈 히샴’에게 원본 필사본을 완벽한 사본으로 다시 쓰도록 명령했다…그들은 그렇게 했고, 많은 사본을 기록했을 때, ‘우스만’은 원본 필사본을 ‘하프사’에게 돌려보냈다. ‘우스만’은 모든 무슬림 지방에 그들이 복사한 복사본 1부를 보냈고 모든 다른 쿠란 자료들도 단편적인 필사본이든 전체 사본으로 기록되었든 관계없이 불태우라고 명령했다.”(하디스, 사히 부카리, VI, 510호, 하디스[언행록]는 무함마드의 아내들과 지인들이 기록한 고대문서이다. 무슬림들은 그들의 많은 믿음과 관습의 기초를 이 하디스에 두고 있다.)

46. 성경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한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전에도 사람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을 70인역(BC 270년경 완성된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과 쉽게 비교할 수 있었다. 이 70인역은 구약성경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한다.

47. 아베그, 마틴 2세, 피터 플린트 및 유진 올리치. '사해 두루마리 성경'. 샌프란시스코: Harper, 1999년, 16쪽.

48. 조쉬 맥도웰. '방어 태세'. 내쉬빌: 토마스 넬슨 출판사, 1993년, 42-28쪽.

49. 신약성경은 초기 헬라 본문(다수 원본, 공인 본문, 알렉산드리아어 본문) 몇 개를 번역한 것이다. NKJV(New King James Version)은 '다수 원본'에서 신약을 번역한 것인 반면,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은 알렉산드리아본에서 번역한 것이다. 헬라어 신약성경 본문 간에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는 이러한 차이를 표시하는 주석이 여백에 포함되어 있다. 의문이 생기는 가장 긴 본문은 마가복음 16:9-20과 요한복음 7:53-8:11인데, 각각은 12개 절의 분량이다. 이러한 본문이 가장 오래도록 남아있는 몇몇 필사본(알렉산드리아본)에는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다른 수백 개의 본문(다수 원본)에서는 발견된다. '오래된 본문'이라 해서 반드시 '더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다양한 본문이 다른 고대 사본에서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부주의한 필사자들이 우연히 이러한 구절들을 생략했을 가능성이 가장 농후하다. 사실이 어찌 되었든, 이 생략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진리는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몇몇 고대 사본이 성경의 몇몇 부분을 빠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겠는가? 이 몇몇 부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대 변질시키지 않음에도 말이다.

50. 최근, 성경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책들이 출판되고 영화들이 만들어졌다. 어떤 성서 비평가들은 논란을 일으키는 '대안 복음서'들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음서'들은 메시아가 살던 시대의 한참 뒤에 쓰였고 역사적인 증거는 희박하다.

51. 이러한 진술은 마태복음 11:15, 13:43, 마가복음 4:9, 23, 7:16, 누가복음 8:8, 14:35, 요한계시록 2:7, 11, 29, 3:6, 13, 22, 13:9에서도

발견된다.

제4장 : 과학과 성경

52. '웹스터의 뉴월드 대학 사전'. 뉴욕: Simon & Schuster, 1997년.
'과학'을 참조한다.

53. 모리스 부케일리. '성경, 쿠란 및 과학'. 파리: Seghers, 1976년, 35쪽. 부케일리 박사의 책에 대한 반응으로, 윌리엄 캠벨 박사는 '역사와 과학에서 본 쿠란과 성경, 2판, Middle East Resources, 2002년'을 저술했다. 캠벨 박사가 주의 깊게 연구한 이 반박문은 또한 온라인 상에서 6가지 언어로 번역되어 열람할 수 있다. <http://answering-islam.org/Campbell>

54. 생물학적 진화는 '해조류와 유인원'과 같은 생명체의 개체군이 수백만 세대에 걸쳐 번식할 때 '식물과 사람'이라는 개체군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 원숭이, 및 피라미는 같은 혈통이다. 사실 무작위 진화도 목적이 있는 창조도 현대 과학으로는 증명해 낼 수 없다. 둘 다 믿음이 필요하다.

55. http://www.gma.org/space_1/nav_map.html

56. 수문학적 순환을 증명하는 추가적인 구절은 시편 135:7, 예레미야 10:13, 전도서 1:7, 이사야 55:10이다.

57. '뉴스위크 매거진': "(과학자들이) DNA를 추적하면...모든 인류가 한 여인에게서 났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Newsweek', 1998년 1월 11일, 46-52쪽.

58. '타임 매거진': "...한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있었는데, 그의 염색체의 유전 물질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타임', 1995년 12월 4일, 29쪽. 주 : 과학자들은 우리의 공통의 남자 시조가 우리의 공통의 여자 시조만큼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모두 노아에게서 났음을 보여주는 성경과 일치한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있었

기 때문에 우리의 공통의 어머니는 하와이다.)

59. www.pbs.org/wnet/redgold/basics/bloodletting.html

60. www.bible.ca/tracks/matthew-fontaine-maury-pathfinder-of-sea-ps8.htm

주 : 모리는 바닷길이 고정되어 있어서 항해자가 대양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발견했다. (로즈와도우스키, 헬렌 M. ‘대양을 파헤치다.’ 캠브리지, MA : 하버드 대학 신문의 벨크넵 신문, 2005년, 40쪽.) 다투이 ‘바다의 길’에 대해 기록할 때 그와 당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일한 바다는 지중해, 갈릴리, 사해 그리고 홍해뿐이었다. 이 거대한 바닷물에는 ‘길’이나 크게 눈에 띄는 해류가 없었다.

61. ‘월드 북 백과사전’ 1986년, Stars.

62. “맑고 짙은 밤, 몇천 개의 별들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쌍안경과 강력한 망원경으로 우리는 그 수를 다 헤아릴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을 볼 수 있다. 개개의 별들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별은 공통적인 특징들이 많다.” (코넬 대학 천문학과 홈페이지:<http://curious.astro.cornell.edu/stars.php>) 성경도 별들의 수를 다 셀 수 없다고 기록한다(창세기 15:5, 22:7).

63. 윌리엄 램지 미첼 경. ‘신약성경의 신뢰성에 관한 최근 발견의 동향’. 그랜드래피즈, MI:Baker Book House, 1953년, 222쪽.

64.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요세푸스: 본질적인 일’.(폴 L. 마이어, 편집) 그랜드래피즈, MI:크레겔 출판, 1988년, 268, 277쪽. 이 책에는 빌라도 형상이 새겨진 돌과 헤롯의 극장에 대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65. F.F. 브루스. ‘신약성경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 (‘계시와 성경’. 칼 헨리 편집) 그랜드래피즈, MI:Baker Book House, 1969년.

66.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유물’ 18:2, 2:4, 3

67. 가야바의 매장함의 사진과 세부사항: <http://www.kchanson.com/ANCDOCS/westsem/caiaphas.html>

68. 넬슨 글루엑. ‘사막의 강’ NY : Farrar, Strauss & Cudahy, 1959년,

136쪽. 글루엑은 중동 굴착의 전문가였다.

69. 몰몬교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추종하는 종교이다. 성경과 달리, 몰몬경은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워싱턴 DC에 있는 스미스소니언 기관은 이런 결론을 내렸다. “스미스소니언 고고학자들은 신세계의 고고학과 (몰몬경)의 주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한다.”(마틴, 윌터. ‘이단의 왕국’. 미니애폴리스, MN : 베다니 하우스 출판사, 1997년, 200-202쪽.) 6장에서 동일 주제에 관한 각주 91도 참조한다. 성경과 쿠란에 관계되는 고고학에 대한 상대적인 견해는 <http://www.debate.org.uk/?s=archaeology>을 참조한다.

70. 조셉 P. 프리 및 하워드 F. Vos, ‘고고학과 성경 역사’. 그랜드래프즈, MI:Zondervan, 1992년, 294쪽.

71. 무슬림과 몰몬교는 그들의 경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가 이들이 기록된 문학적 양식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무슬림 웹사이트’에는 “쿠란의 큰 도전은…쿠란이 14세기 전 쿠란이 나타난 이래로 아무도 쿠란의 아름다움, 유창함, 및 화려함을 나타내는 장들과 같은 것을 단 한 장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라고 진술되어 있다.(www.islam-guide.com/frm-ch1-2.htm) ‘몰몬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이 비슷한 주장을 펴다. “몰몬경의 도전: …당신은 수많은 고대 히브리어 시가와 문체를 사용해서 당신의 기록물을 저술할 수 있는데, 단 이 시가와 문체는 당신의 기록물을 편찬한 후에 수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재발견되거나 발표되지 않아야 한다.” www.fwrp.org/BOMChallenge.html

72.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복잡한 유형의 작문을 예로 보여준다. 시편 119편은 각각 8개의 절로 된 22개의 문단으로 구성된 알파벳 아크로스틱(각 행의 첫 글자를 아래로 연결하면 특정한 어구가 되게 쓴 시나 글)이다. 1문단에서 각 절은 ‘Aleph’(알레프: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한다. 2문단에서 모든 8개의 절은 ‘Beth’(베트: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하며 그렇게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끝까지 이른다. 베껴 써보라.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 대신, 시편 119편을 읽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자신을 잠기게 하라.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시편 119:99).

제5장 : 하나님의 서명

73. 로날드 워런펠 및 잭 M. 세슨. ‘고대 근동’ 4권 NY : 찰스 스크라이브너즈 선즈, 2000년. ‘칼 로벅의 고대의 세계, NY : 찰스 스크라이브너즈 선즈, 1966년 355쪽’도 참조한다.

74.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았지만 9개월(BC 332년) 간 포위한 끝에 그것을 축소시켰다. 이러한 공격이 있는 후로 두로는 완전히 복구되지 못했다.”(에이버리, 캐서린 B. 및 조담 존슨. ‘신세기 고전 편람’, NY : Appleton-Century-Crofts, Inc., 1962년, 1130쪽.)

75. 사무엘 W. 매튜. ‘페니키아인들: 고대의 바다 군주’, 워싱턴 DC : ‘내셔널 지오그래픽, 1974년 8월, 165쪽.

76. 창세기 26:3, 28:15 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의 후손인, 민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전략적으로 “열방의 가운데에” 위치했다(에스겔 5:5). 사도행전 1:8, 2:5도 참조한다.

77. 플라비우스 요세푸스. ‘요세푸스의 전집’. (윌리엄 휘스턴) 그랜드 래피즈, MI : 크레겔 출판사, 1967년, 566-568, 580-583, 588-589쪽.

78. 이를 설명하자면, 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히틀러의 독일에 살았던 수많은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독일어를 구사했고 독일 정부에 세금을 납부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나치는 그들을 유대인으로 지목했다. 그리고 수년 내에 6백만 명이 “역사상 가장 비참한 범죄 기록으로 불리는 홀로코스트”에서 처형당했다. (필립스, 존. ‘유대인의 세계 탐구’. 넵툰, NJ: Loizeaux Brothers, 1993년, 109쪽.) 헤드라인 기사, “나찌, 유럽 내 6백만 유대인 학살 인정” 본, 에릭. ‘더 팔레스타인 포스트’ 1945년

12월 16일 일요일 기사도 참조한다.

79. 이사야 44:18, 예레미야 5:21, 요한복음 5:39-47, 고린도후서 3:12-16, 로마서 9:11장. 주 : 약 2,600년 전,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재탄생이 세 가지 구별된 단계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마른 뼈들이 버려진 골짜기에 비유했는데, 이는 '서로 연결 되어' 한 몸을 이루고, 결국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된다(에스겔 37:1-14).

80. 창세기 37-50장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해 보라. 추천 도서: 윌리엄 맥도날드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요셉'. 그랜드래피즈, MI:Gospel Folio Press.

제6장 : 일관성 있는 증거

81.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로마서 1:19-20).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백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로마서 2:15).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진리를 더욱 찾지 않고 거짓을 추구한다.

82. 성경에 기록된 족보의 시대를 계산해 보면,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아담의 9대손)가 50세가 넘도록 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창세기 5장).

83.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출애굽기 8:19). 출애굽기 12:30-33도 참조한다. 이야기 전체는 출애굽기 5-14장을 참조한다.

84. 모세가 성경의 처음 부분을 기록할 동안 (대략 아브라함 시대에) 율기가 토라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로 인해 율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완성 문학 중 하나가 된다. 이 날짜가 맞다면, 성경

은 약 2,000년의 기간 동안 쓰인 것이다.

85. 데니스 다한. ‘매일의 양식’, 2006년 5월 6일. 그랜드래피즈, MI :RBC Ministries.

86.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허용하시는가?”라고 질문한다. 모세는 토라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신명기 13:1-3).

87.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9:18, 로마서 11:14

88. 제임스 E. 스미스. ‘성경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는 것’. 내쉬빌, TN : 토마스 넬슨 출판사, 1993년, 470-474쪽. 필립스, 존스. ‘유대 세계의 탐구’. 넵툰, NJ:Loizeaux Brothers, 1993년, 80-81쪽.

89. 존 테일러. “존스, 샌프란시스코 자유주의 엘리트를 사로잡다.” ‘샌프란시스코 연대기’, 1998년 11월 12일.

90. 조셉 스미스. ‘매우 값진 진주’. 조셉 스미스 - 역사 ; 1:15-16.

91. 역사와 고고학으로 증명되는 성경과는 달리 몰몬경은 근거가 희박하다. 토마스 스튜어트 퍼저슨은 그들만의 ‘성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는 일념으로 몰몬교의 브리검 영 대학교 내에 고고학 부를 창설했다. 25년간의 헌신적인 연구 끝에 이 학부는 몰몬경에 묘사된 식물군, 동물군, 지형학, 지리학, 민족, 화폐 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퍼저슨은 몰몬경의 지리학이 “허구”라는 결론을 내렸다(마틴, 윌터. ‘이단의 왕국’. 미니애폴리스, MN:베다니 하우스 출판사, 1997년, 200-202쪽).

제7장 : 기초

92. 성경전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66권의 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의 역사에서 (많은 개신교 교회와 같이 그들 교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로마 가톨릭교회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11권의 책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외경’(또는 제2의 정경)으로 알려진 이 책들은 주로 구약과 신약 시대 중간에 기록되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신화적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 신자들은 이 책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947년에 발견된 많은 사해 문서는 외경이 아니라 39권의 구약성경만을 논하는 주석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구약성경을 자주 인용하셨지만, 외경은 한 번도 언급하신 적이 없다.

외경은 신약성경에서도 인용된 적이 없다. 구약성경에 포함된 39권의 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히브리서 2:4), 자신의 말씀을 확증해 주신 선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다. 신약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시대에 살았던 신자들은 사도들의 권위와 신약성경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성경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외경에 대해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93. 누가복음 24:25-48, 요한복음 5:39-47. 하나님의 메시지를 연대기 순으로 전달하는 자료는 다음을 참조한다.

www.one-god-one-message.com/www.goodseed.com

제8장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94. 우주의 역사를 알아내려는 우주론자들의 시도는 “관찰적 및 이론적 노력의 조합”에 근거한다(로옴, 아브라함. ‘우주의 어두운 시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2006년 11월). 그들의 지식은 ‘관찰과 이론’에 근거하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지식은 ‘관찰과 계시’에 근거하는데, 이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5, 6장에 관찰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서명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리를 우리가 그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드러내셨다.

95. 욥기 38:6-7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천사들이 관찰하고 즐거워했음을 보여준다. 욥기는 시가서이다. 따라서 천사들은 ‘새벽 별’과 ‘하나님의 아들들’로 묘사된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다른 존재들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이중적 묘사는 히브리 시가의 특성인 평행성의 한 예이다.

96. 성경 66권의 절반 이상은 천사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창세기 3:24, 16:7-11, 18:1-19:1, 열왕기상 19:5-7, 시편 103:20-21, 104:4, 다니엘 6:22, 히브리서 1:4-7, 14, 12:22, 마태복음 1:20, 2:13, 19-20, 22:30, 26:53, 누가복음 1, 2장, 데살로니가후서 1:7, 요한계시록 5:11, 18:1, 22:6-16 등 (요한계시록은 ‘천사’ 또는 ‘천사들’이란 단어를 70번 이상 사용한다).

97. 신명기 10:14, 고린도후서 12:2,4 요한복음 14:2, 시 33:13, 115:3, 열왕기상 8:39

98. W.E. 바인, MA. ‘신약성경 낱말 해설사전’. 웨스트우드, NJ : 플레밍 H. 레벨 사, 1996년, 229쪽.

99. 하나님의 6일간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일이 시초가 되어, 인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시간 사이클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일, 월, 년과는 달리, ‘주’는 천문학과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100. ‘빅뱅’ 가설의 지지자들은 빛이 태양과 지구보다 90억 년 전에 존재했다는 이론을 내세운다! (로엵, 아브라함. “우주의 어두운 시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2006년 11월, 49쪽).

101. 다음에 물을 마실 때, 당신은 창조주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H₂O(물)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도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물은 얼었을 때 부피가 증가하는 유일한 액체이다. 따라서 물은 밀도가 낮아지고 얼음은 물에 뜨게 된다. 만약 물이 다른 물질들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해서 얼었을 때 응축된다면, 그 얼음은 바다, 호수 및 강의 바닥에 가라앉을 것이다. 그 많은 양의 얼음은 녹지 않고 결국 신선한 물은 고립될 것이며 밑바닥에서부터 얼어버릴 것이다. 창조주께서 이것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102. 달의 어두운 면은 아폴로 8호 우주선이 달의 궤도를 돌았던 1968년 12월 24일에 처음 인간의 눈에 보였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날, 세 명의 우주인들은 시청자들이 TV 중계를 보는 가운데 창세기 1장을 읽고 있었다(레이놀즈, 데이빗 웨스트. ‘아폴로’ : ‘역대급 달나라 여행’, NY:Harcourt, Inc., 2002년, 110-111쪽).

제9장 : 그분 같은 분은 없다

103.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가’ 및 ‘우리에게’로 칭하신 성경의 또 다른 예는 창세기 3:22, 11:7, 이사야 6:8 등이다(주 : 쿠란에는 ‘알라’가 계속해서 복수형으로 말한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3장에 인용된 쿠란의 구절들이 이것을 보여준다).

104. 창세기 1:1-3.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삼위일체로 설명하지는 않지만 말씀이 기록된 방식은 이후에 성경에서 설명하는 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성경은 하나님의 세 위격이 모두 창조에 관여했음을 명확히 한다.

105.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echad)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사무엘하 2:25)고 기술한다. “여호와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데 사용된 바로 이 단어는 복수형이 포함된 연합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106. 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하나님의 복합적인 하나 됨을 확증한다. 창세기 17:1-3, 18:1-33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체를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꿈이나 환상으로서가 아니라 그와 대면하여 만나신다. 창세기 35:9-15, 출애굽기 3:1-6, 6:2-3, 24:9-11, 33:10-11. 출애굽기 33:11을 33:20의 말씀과 비교해 보라. 모세는 하나님의 세 위격 중 한 분(성자)와

대면하여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다른 위격(성부)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복잡한가? 물론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1-8을 참조해보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개념을 떠나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구약성경 구절들은 더 많다. 시편 2편, 시편 110:1(마태복음 22:41-46과 비교), 잠언 30:4, 이사야 6:1-3(요한복음 12:41과 비교), 이사야 26:3-4, 이사야 40:3-11, 이사야 43:10-11(이사야 7:14, 9:6-7), 이사야 48:16, 이사야 63:1-14, 이사야 49:1-7, 예레미야 23:5-6, 다니엘 7:13-14, 호세아 12:3-5, 미가 5:2, 말라기 3:1-2 등.

107. 누가복음 15:11-32. 요한일서도 함께 읽어보라.

108. 선지자 다윗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시편 2편을 읽어보라. 성자의 다른 이름들과 칭호들도 생각해보라. 그분은 자신을 “문”(요한복음 10장)이라 부르셨지만, 이것은 그분이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문이라는 말은 아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을 “생명의 떡”(요한복음 6장)이라 부르셨지만, 이것은 그분이 떡 덩어리임을 의미하진 않는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내를 취하셔서 아들을 낳으셨다는 말을 내포하는 게 아니다. 요한복음 1, 3, 5장을 읽어보라.

109. ‘르 솔레이’, 1984년 3월 14일 : “Bienfaiteur sincère, il considérait ses 2.000 employés **comme ses enfants** et partageait leur problèmes, leur soucis et leur joie. Le ‘Vieux’ comme l’appelaient familièrement et tendrement son personnel, était **un grand fils du Sénégal**.”(번역 : 진정한 인도주 의자는 자신이 고용한 2,000명의 노동자들을 자기 자식 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와 관심사와 기쁨을 함께 나눈다. 그의 직원들이 그를 상냥하게 일컫는 말을 빌리자면, 이 ‘노인’은 **세네갈의 위대한 아들이었다**).

110. 하나님과 같이, 성령도 우리의 선입관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늘 나라를 잠깐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하나는 성령을 “보좌 앞에 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요한계시록 4:5)고 말했다. 또 다른 선지자는 그분을 하나님께로만 오는 일곱 가지

선물을 나눠주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즉,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사야 11:2)이다.

111.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셨을 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한복음 14:26)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이러한 말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항상 존재해 온 완벽한 연합을 보여준다. 성부와 성자와 같이, 성령도 인격적인 존재(“그가…”)이다. 성령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은 16, 22, 28장을 참조한다. 더 좋은 것은 성경의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할을 자세히 주목해 보는 것이다.

112. 복음서는 성자가 성부에게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한다. 또한, 성자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요한복음 17:5, 24)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 미가 5:2과 이사야 9:6도 참조해보라. 성령에 관해, 그분의 칭호 중 하나는 “**영원하신 성령**”(히브리서 9:14)이다.

113. 출애굽기 20:22, 히브리서 12:25, 누가복음 3:22, 5:24, 요한복음 1:1-18, 3:16-19, 17:22, 사도행전 5:3, 7:51, 갈라디아서 4:6 등.

114. 아랍어에서 ‘알라’라는 용어는 그 원래의 의미상 우리말의 ‘하나님’이란 용어와 같은 아랍어이다. 창세기 1:1의 “**태초에 하나님이…창조하시니라**”와 같은 구약성경 구절이든, 요한복음 1:1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와 같은 신약성경 구절이든 아랍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는 ‘알라’로서 ‘가장 높으신 분’을 의미한다. 이 가장 높으신 분은 자신이 알려지기 바라시는 개인적인 이름들을 가지고 계신다. 많은 사람이 ‘알라가 하나님의 적절한 개인적인 이름이라고 알고 있을진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 몇몇 사람들이 그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칭호도 그분의 적절한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다.

제10장 : 특별한 피조물

115. 알마 E. 기네스. '신체에 관한 ABC'. 공저: 리더스 다이제스트 협회, 1987년, 22쪽.

116. 빌 게이츠. '앞에 놓인 길' NY: 펭귄 그룹, 1995년, 188쪽.

117. 더 위대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 성경은 신체의 조화로운 체계를 묘사한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에베소서 4:16)

118. 이러한 생각은 존 필립의 최고의 창세기 주석(필립, 존. '창세기 연구'. 시카고: 무디 출판사, 1980년)에서 채택되었다. 주: 성경은 영, 혼, 육을 구별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23, 히브리서 4:12-13, 요한복음 4:24을 참조한다.

119. 에덴이 이라크 지역에 위치했다는 생각은 창세기 2:13-14의 지리적인 정보에 기초한 것이다.

주: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부르는 바와 달리, 에덴동산을 '낙원의 동산'이라 부른다. 지상의 에덴을 하늘의 낙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120. 메튜 헨리. '메튜 헨리의 주석'. 그랜드래피즈, MI: Zon dervan, 1960년, 7쪽.

121. 아담(Adamah)은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가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붉은 흙'을 의미한다. 하와(chavvah)는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창세기 3:19-20) '생명'을 뜻한다.

제11장 : 악의 유입

122.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이사야 14:12). 이 절에서 '빛의 사자'를 의미하는 '계명성'(Lucifer)이란 이름은 히브리 문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빛나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helel'(헤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은 이중 해석의 법칙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인다.

표면적으로 이 구절들은 이 땅의 왕들을 가리킨다. 이사야는 “바벨론 왕”을 의미했고 에스겔은 “두로의 왕”에 대해 기록했다. 그러나 이 두 구절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표현들을 기록한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다른 구절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 구절들이 그 사악한 왕들 배후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몰락에 관해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123. 요한계시록 12:4

124. 마태복음 10:28, 23:33, 마가복음 9:43-48

125. 요한계시록 20:10-15

제12장 : 죄와 사망의 법

126. 공통적인 질문 : 일찍 죽은 아기들이나 유아들은 어떻게 될까? 그들도 타고난 죄성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까?(시편 51:5, 58:3) 의로우신 재판관은 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다(창세기 18:25). 그분은 사람이 스스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알 수도 있었을’ 일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로마서 2:11-15, 시편 34:10, 이사야 55:6). 한 인간은 도덕적인 선택을 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신명기 1:39, 이사야 7:16, 사무엘하 12:23, 마태복음 18:10, 디모데후서 3:14-17). 사람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나이가 몇 살인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어찌 되었든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린도후서 6:2)이다.

127. 요한계시록 20:14-15, 2-11, 21:8, 마태복음 25:46

제13장 : 인자와 공의(이 장에는 미주가 없음)

제14장 : 저주

128. “비단뱀과 보아뱀은…가죽 아래 뱀(nub) 모양의 다리와 이 뱀 위로 튀어나와 항문 근처의 배에 가까이 위치한 0.5인치가량의 작은 발톱이 있다. 실제로 이 뱀(nub)은 다리라기보다 남아있는 앞다리(허벅지 또는 넓적다리) 뼈이다. 수컷은 이 박차를 여전히 사용하지만 걸을 때가 아니라 짝짓기와 싸움 중에만 사용한다. 다른 어떤 뱀도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http://usatoday30.usatoday.com/tech/columnist/aprilholladay/2005-06-10-wonderquest_x.htm

어떤 사람들은 이 생물학적 사실을 그들의 진화론적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이해해야 할 점은 뱀의 해부학적 구조가 수천 년 전 성경이 기록한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129. 요한계시록 20:2, 누가복음 10:18, 및 고린도후서 11:3, 14 등도 참조한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30. 출애굽기 29:7, 사무엘상 10:1, 열왕기하 9:6, 시편 45:7

131. 18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암호화하신 세 가지 이유를 나타낸다.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공부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을 사탄, 죄 및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 보여주는 드라마를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이사야 28:10) 점진적으로 드러내셨다.

132. 연재 만화 제목, “당신은 그걸 똑똑하다고 말하는가?”(You Call That Intelligent?)에서. ‘타임 매거진’은 지혜로운 설계자(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폄하한다. “노화가 더 세련되고 품위 있게 다루어질 수 없었을까? 예를 들어, 노인들이 주름이 생기고 쇠약해지는 대신 그냥 일종의 시적 표현으로 소실된다면 어떠할까?” (헨디, 브루스 및 글리니스 스스위니. ‘타임’, 2005년 7월 4일, 90쪽.)

또한 ‘하나님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이라는 책은 ‘지성도 설계도 아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혜로운 설계자에게 그렇게 형편없이 피조물을 설계하도록 제안하는 것은 인간 자아의 오만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말한다(마이클 마틴 및 리키 모니어의 ‘하나님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들’에서 브루스 및 프랜시스 마틴. 애머스트, NY : Prometheus Books, 2006년, 220쪽).

제15장 : 이중적 문제

133. AP 통신, 2006년 5월 20일 <http://forums.anandtech.com/archive/index.php/t-1869858.html>

134. 정결 예식은 구약 율법의 일부였다(레위기를 참조). 이것은 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영적 부정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온전한 씻음과 의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더 이상 하나님께 필요치 않다. 사도행전 10장과 골로새서 2장을 읽어보라.

오늘날까지 많은 종교는 외형적 정결 의식을 강조한다. 이 이메일은 런던에 있는 한 무슬림이 필자에게 보낸 것이다.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비무슬림들은 부정합니다...무슬림들은...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알라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135. 하나님은 십계명을 구두로 알려주신 후(출애굽기 20장),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고 여호와께서 직접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 판 둘을 그에게 주셨다(출애굽기 24:12, 31:18).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출애굽기 32:16).

136. 누가복음 18:9-14, 에베소서 2:8-9을 참조한다.

137.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셨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시편 40:8)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이시다. 이 율법은 우리를 그분께 안내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

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갈라디아서 3:24).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로마서 3:20-27에 제대로 잘 정리되어 있다.

제16장 : 여자의 후손

138.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로마서 5장, 갈라디아서 4:4-5도 읽어보라.

139. 신생아 임신 관리 센터 : www.neobirth.org.za/development.html

140. “베들레헬 에브라다”는 예루살렘 남부 도시인 베들레헬의 옛 명칭이었다(창세기 35:16-19, 48:7). 다윗 왕은 베들레헬에서 태어났고(사무엘상 16:1, 18-19, 17:12) 그보다 더 위대한 그의 후손도 그러하시다(마태복음 2:1-6, 누가복음 2:1-12).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다(요한복음 7:41-42).

141. 성경을 참조하려면 이 책 5장에 있는 예언 목록을 찾아보라.

142. ‘메시아의 의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14장의 부제, ‘두 후손’을 참조한다.

143. 창세기 1:2. 하나님의 영을 가브리엘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천사 가브리엘은 창조된 존재였다. 성령은 창조되지 않은 영원히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 9장과 28장을 참조한다.

144.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는 다른 여느 부부와 마찬가지로 그 남편 요셉과 함께 살았고 함께 자녀들을 낳았다(마태복음 13:55-56, 누가복음 8:19, 요한복음 7:3-10).

145.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잉태될 것을 예언했다(이사야 7:14). 그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및 유다 혈통의 후손이 될 것이다(창세기 17:18-21, 26:3-4, 28:13-14, 49:8-10). 그분은 다윗왕의 왕통으로 태어날 것이다(사무엘하 7:16). 그분은 베들레헬에서 출생하실 것이다(미가 5:2).

146. 마태복음 2장. 헤롯 왕은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는 생각에 질투를 느꼈고 베들레헴 근방에 사는 남자아이 중 두 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림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했다. 사탄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 그의 목표는 “그의 영역”을 침범해 온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의를 주고 그로 마리아와 어린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도록 지시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탄의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셨다. 이러한 사건들도 선지자들에게 의해 미리 예언되었다(마태복음 2장, 미가 5:2, 호세아 11:1, 예레미야 31:15).

헤롯 왕이 죽은 후, 요셉, 마리아 및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아이 예수님은 성인으로 성장하셨다.

제17장 : 이분이 누구시기에?

147. 제이유시, 살마 카드라에서 각색함. ‘주하의 이야기’. Interlink Books. 노샘프턴, MA, 2007년, 19쪽.

148. 나사렛 예수에 대해 언급한 몇몇 고대 비성경적 역사가들이 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AD 55-120)의 ‘타키투스’ 15:44) /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AD 37-101)의 ‘고대문서’ 18:3) / 토라에 관한 탈무드 랍비식 주석의 ‘바벨론의 탈무드’ 산헤드린, 43a) / 루시안이라는 이름의 한 헬라인 역사가의 ‘페레과이어의 죽음’, ‘사마소타의 작품 중 11-13 쪽, H.W. 포울러 및 F.G. 포울러 번역, 4권. 옥스퍼드 : Clarendon Press, 1949년) /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서기장 수에토니우스(AD 69-122)의 ‘클라우디아스’, 25) 등.

주 : J.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성경의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후손일 뿐 역사적인 현실과 거리가 멀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역사의 영역에서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만큼이나 문학의 영역에서의 복음서를 위대한 기적으로 만드는 일이다. 어니스트 레난은 예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J. 루소는 한 사람이 역사의 주제를 창조해 내기보다 수많은 사람이 이러

한 역사를 기록하자고 합의하는 것이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샌더스, J. 오스왈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무디 출판사. 시카고, 1971년, 57쪽).

149. 마태복음 13:55-56.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시며(마태복음 2:22-23, 누가복음 2:51-52) 자기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 곁에서 목수로 일하셨다(마가복음 6:3). 예수님은 겸손하심은 겸손한 종이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영웅을 원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150.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누가복음 3:23).

151. 예수님은 자주 자신을 “사람/인간의 아들”(헬라어 : ‘Anthropos’)을 의미하는 메시아적 칭호인 “인자”라 칭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칭호인가! 우리가 좋아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모두 “사람의 자녀들”이다. 그러나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경우,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되어 자신을 인류와 동일시하시기로 **선택하셨다**. 따라서, 이 칭호는 하나님께서 성육신에 개인적으로 개입하신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예수님의 인성만큼이나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다니엘 7:13-14, 마태복음 8:20, 누가복음 5:24, 22:69-70, 요한복음 5:27, 13:31, 요한계시록 1:13-18, 14:14 등을 읽어보라.

152. 예를 들어,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구약성경 구절은 모세의 토라, 신명기 8:3에서 인용됐다.

153. 인간의 죄로 인해, 사탄은 실제로 “이 세상의 통치자”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요한복음 12:31, 에베소서 2:2)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인간의 통치권을 회복하러 오셨다.

154. 시편 110편 및 시편 2편, 마태복음 21:41-46

155. 쿠란 19:19. 이것을 48:2, 47:19과 대조해보라.

156. 쿠란 19:19, 3:45-51, 5:110-112, 19:19

157. 쿠란 4:171

158. 이슬람에서 궁극적인 죄는 “시르크”(shirk: 아랍어로 ‘연합’을 의미)이다. ‘셔크’는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는 죄이다.

159. 약속된 메시아에게 주어진 칭호에 주목하라.

기묘자 =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칭호. 이것은 ‘평범한 것을 뛰어넘음’을 의미한다.

모사 = 메시아는 지혜가 인격화된 분이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실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 그분은 영원의 소유자이실 것이다.

평강의 왕 = 그분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화평(로마서 5:1)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에베소서 2:14-18), 및 내적 평강(빌립보서 4:7),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주적인 평화를 주실 것이다(29장을 참조).

160. 선지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시편 40:7).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선구자를 보내사 사람들로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말라기 3:1).

161.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을 저하시키는 것인가?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두 명의 영적 리더, 오마르와 아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의 친구는 “아론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지만, 오마르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한다. 아론을 크게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당신은 “그렇지 않아! 아론은 장난감 자동차나 가지고 놀 분이 아니야!”라고 대답한다. 언뜻 이러한 반응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마르와 아론 모두에게 어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 아빠와 함께 바닥에 엎드려 같이 장난감 놀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로 이어진다. 이제 우리가, 아론은 자기 아들들과 이런 방식으로 시간 보내기를 즐기는가 하면, 오마르는 그것이 자신의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놀아주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어떨까? 누가 더 나은 아버지, 더 멋진 사람이며 리더이겠는가? 오마르인가, 아론인가?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전능자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것은 그분의 위엄을 저하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손상시키게 될 것이다.

162.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준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친히 최고의 종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163.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64. 메시아,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심을 선포하셨다. 그분이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라고 말하려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YHWH(야훼)에 관한 글, 9장을 참조해보라(출애굽기 3:14).

165. 예수님께 절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절하다’에 사용된 단어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마태복음 8:2과 요한계시록 7:11을 비교한다. 두 가지 경우에서, ‘경배하다’는 ‘흠모하고 경배하며 엎드림’을 의미하는 헬라어 ‘proskuneo’[프로스쿠네오이다]).

166. 성경이 조작되었다는 근거 없는 생각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면, 제3장,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를 다시 읽어보라.

167.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NY: Macmillan-Collier, 1960년, 55-56쪽.

168. 하나님의 복합적인 하나되심을 복습하려면, 9장을 다시 읽어보라.

169.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부자 청년 관원에 관한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인해 실족한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물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9:16, 마가복음 10:17, 누가복음 10:25). 이 청년의 질문은 군중들에게는 선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못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거룩과 인간의 철저한 죄성에 관해 근본적인 진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자신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그럭저럭 선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마치 세계 최고 부자에게 때묻은 동전 한 움큼을 내밀고는 “아버씨의 자산을 얻으려면 제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라고 묻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나? 그분은 토라와 십계명으로 안내하셔서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자신의 몇 가지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170.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요한복음 14:1, 6, 9-11)고 말씀하셨다.

171. 이사야 53:1, 요한복음 12:38, 누가복음 1:51. 또한, 이사야 40:10-11, 51:5, 52:10, 59:16, 63:5, 예레미야 32:17도 참조한다.

172. 하나님이 두 선지자(엘리아와 엘리사)에게는 능력을 주사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지만, 어떤 선지자도 자신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지 못했다.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173. 메시아는 세상에 오시기 전, 하늘에 계셨다. 그분은 루시퍼가 쫓겨날 때 그곳에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제18장 :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74. 히브리서 11:6, 예레미야 29:13, 이사야 29:11, 마태복음 11: 25, 13:13-14, 누가복음 8:4-15, 요한복음 6장.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은 어떤 의도적인 불명확성과 함께 나타나서 그분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듣고 이해하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직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분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볼 수 없을 것이다.

175. 많은 예언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음에도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을 보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될 수 없다. 창조주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이미 실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요한계시록 13:8)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176. 메시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2편을 읽어보라. 성경 다른 곳에서 메시아는 재림 시(“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아” 29장에 설명됨) 하늘에서 떨어지는 커다란 바위에 비유된다. 이 “바위”는 그분께 복종하길 거부한 모든 사람을 “부수어 가루로 만들”(다니엘 2:34-35, 마태복음 21:33-44) 것이다.

177. 베드로가 한 말을 좀 더 보려면, 사도행전 2-5장, 사도행전 10장, 베드로전서 1:10-12, 2:21-35, 3:18 등을 읽어보라. 또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러한 말씀도 생각해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린도전서 1:18, 25, 27)

제19장 : 희생의 법

178. 아벨은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1:4은 우리에게 그가 “믿음으로” 희생제물을 가져왔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명령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이었다. 아벨이 오래전에 순종을 통해 보여준 대속제물에 관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법은 이후 성경에 기록되어 문서화 되었다. 창세기 4:4은 아벨이 “양 떼”(레위기 5:6 참조) 중에서 양의 “첫 새끼”(출애굽기 13:12-13과 비교)를 가져왔고 “기름을 떼어” 화제로 드렸다(레위기 3:16 참조)고 기록한다. 아벨이 제단 위에서 어린 양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의 후손,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그도 어린 양을 드렸을 가능성이 크다(창세기 8:20, 12:7, 13:4, 18, 22:8-9, 출애굽기 20:24-26, 레위기 17:11 등.)

179. 다니엘 6장, 에스터 3:8-15, 8:7-17

180. 제임스 스트롱. ‘성경의 철저한 일치’. NY:Abingdon-Cokesbury Press, 1948, 57쪽. 창세기 6:14(“칠하다”)를 레위기 5:18(“속죄”)과 비교해 보라. 이와 같은 히브리어 ‘Kaphar’(카파르, 속죄)가 이 구절들에 사용되었다.

181. 레위기 5:7

182. 성경은 50번 이상 이 제물이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예를 들어,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레위기 1:10)라고 말한다.

제20장 : 위대한 희생

183. ‘이드 알 아드하’는 가장 중요한 이슬람의 국경일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숫양을 예비하신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슬림들에게 만연된 생각은 번제로 드릴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아스마엘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쿠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성경에는 이삭이라고 분명

히 기록되어 있다. ‘이드’의 번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들에 의해 실행된다. 그것은 또한 ‘메카 성지순례’(Haji)에서 가장 마지막 의식으로 거행된다. 순례객들은 아침 ‘이드 기도회’가 끝난 뒤 동물(보통 양이나 소)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 ‘하지’(Haji)를 마무리한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 의식이 그들에게 일종의 “새로운 탄생”을 가져다주며 이를 올바르게 실행할 경우 그들의 죄가 말끔히 씻겨진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슬림들도 자신들이 ‘하지와 ‘이드’의 번제가 끝난 후 곧바로 더 많은 죄를 쌓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줄 수 없음을 인정한다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 10장과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라).

184. 처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 부분의 이야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에서 누락되었다. 창세기 17장을 참조하라.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는 창세기 11-25장을 읽어보라. 또한, 로마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및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라.

185. 신명기 7:6-7, 14:2

186.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셔서 비유대 민족을 축복하신 몇 가지 예가 있다. 요셉은 수백만 명의 이집트인의 목숨을 구했다(창세기 37-50장).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오미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룯에게 복이 되었다(구약 룯기). 선지자 엘리야는 시돈의 과부에게 복이 되었다(열왕기상 17장; 누가복음 4:26). 요나는 마지 못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요나서). 솔로몬 왕은 아라비아의 시바 여왕에게 복이 되었다(열왕기상 10장; 누가복음 11:31).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들을 축복했다(다니엘 1:6장). 에스터와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제국에 복을 안겨다 주었다(에스터서).

187. 창세기 12:2-3, 22:16-18, 히브리서 6:13-20, 요한복음 4:22, 사도행전 1-10장 등.

188.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 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히브리서 11:17-19).

제21장 : 흘려진 더 귀한 피

189. 필자는 구약성경에서 “희생의 이야기”를 세어보기 시작했지만 200번째 이야기까지 센 후 중단하게 되었다! 네 가지 단어, ‘피’, ‘희생’, ‘제사’, 및 ‘제단’은 성경에서 1,400번 이상 등장한다.

190. 창세기 15:13-14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출애굽기 1:1-12, 12:35-41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그분의 계획은 항상 성취된다.

191. 출애굽기 5-11장

192. 얼마 후, 시내 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출애굽기 3:12).

193. 출애굽기 13-17장,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 같이 흘렀으니”(시편 105:41).

194. 출애굽기 28:9-19, 후에 메시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한복음 10:9)고 말씀하셨다. 성막의 모든 요소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가리켰다.

195.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레위기 3:2, 5).

196. 성막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구세주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을 보여주었다. 이 구세주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성막의 내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아가 5:16).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막의 외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이사야 53:2-3).

197. ‘아담’(아다마)은 ‘남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으셨으므로 문자적으로 “붉은 흙”을 의미한다.

198. 민수기 3:23-39

199. 레위기 16장. 오늘날 유대인들은 속죄일을 ‘욘 키푸르’(Yom Kippur)라고 부르지만, 오늘날은 이날에 성전도 제사장직도 희생양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유대교의 상징 중 하나는 성벽(서쪽 벽, 헤롯 대왕이 성전 산 지역을 넓히기 위해 지은 지지벽)이다. 유대인들은 매일 그 앞에 서서 이미 오신 메시아가 오시도록 기도한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 민족은 영적으로 소경이다(이사야 6:10, 53:1, 예레미야 5:21, 에스겔 12:2, 고린도후서 3:12-4:6). 하지만 언젠가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예수아)이 성전, 제사장직, 및 희생제물의 상징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히브리서 8-10장, 에베소서 2장). ‘영적 소경’이라는 장벽은 무너질 것이다(에베소서 2:14, 로마서 9-11장). 이 책, 5장의 부제 ‘한 민족에 대한 예언들’의 내용을 참조한다. 또 미주도 읽어보라.

200. 역대하 3:1, 창세기 22:2과 비교해 보라. 그것은 무슬림들이 7세기에 ‘바위 돔’ 모스크를 지은 것과 같은 장소에 있었다.

201. 역대하 7:5

제22장 : 어린 양

202. 성경에서 여호와의 칭호 중 하나는 ‘임마누엘’인데,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를 의미한다(이사야 7:14, 마태복음 1:23).

203. 고린도후서 5:1-4, 고린도전서 6:19, 베드로후서 1:13-14, 에베소서 2:21.

204. 이사야 40:3-9, 말라기 3:1,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05.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아 제사장이나 왕이 될 때마다 선지자와 같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특별한 임무를 위해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성령으로 친히 기름을 부으셨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 데 사용된다. 주: 하나님의 세 위격이 ‘창조의 사역에 개입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구원의 사역’에도 개입하셨다.

206.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박국 2:4).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린 제사가 “세상의 죄를 없이하기”에 충분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이 자기들을 위한 것임을 믿은 자들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진리는 세네갈 라디오 프로그램, ‘의의 길’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www.twor.com; www.lesprophetes.com) 많은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제공한다.

메일을 보내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정말 이러한 제안이 라디오를 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유효할까? 그렇다. 그러면 ‘모든’ 청취자들이 우리에게 메일을 보내 성경을 무료로 보내 달라고 요청할까? 그건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제안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충분한 제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죄 사함과 영생을 제공하셨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불과 몇 프로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누가복음 14:15-24을 보라.

제23장 : 성경을 성취하다

207. 이사야 53장, 시편 22편.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

는, 다니엘서 9:24-27도 참조한다. 이 전체 계획 중 일부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다니엘 9:26)는 사실이다.

208. 마태복음 21-25장

209. 배신당하심. 시편 41:9, 스가랴 11:12-13, 및 마태복음 26: 14-16, 27:3-10을 참조한다.

210. 유대인들이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최종적이고 온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믿는 자들을 건져내실 계획이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린도전서 5:7).

211. 요한복음 13-17장.

212. 예수님께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내로라.”(I AM)였다. “내가 그로라”(I am He)는 문장은 영어로 번역된 방식이지만 “그”(He)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 선포하고 계셨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신 영원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I AM”)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로라”(I AM)고 대답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군병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엎드려지게 된 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213.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다니엘 7:13) 주 : 사람의 옷을 찢는 것은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내는 하나의 관습적인 방법이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자기의 형제 중…대제사장은…그의 옷을 찢지 말며”(레위기 21:10) 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런 행동으로(마태복음 27:65, 마가복음 14:63), 가야바는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새롭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이셨다. 그분은 죄악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히브리서 2:17, 3:1, 4:14-16, 7:26, 8:1, 9:11,25,10:19-22).

214. 요한복음 18:38, 19:4, 6, 요한복음 19:15, 누가복음 23:21

제24장 : 완전히 지불되다

215.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8, 9, 16, 17장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말을 신성모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필자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처녀의 뱃속에 계시는 동안과 이후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에는 누가 우주를 돌보고 계셨습니까?”라고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을 봤다. 이 질문은 성경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시각을 나타낸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태복음 22:29). 하나님은 항상 복합적인 삼위일체로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시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태양이 바깥 우주에 존재하는 동시에 그것의 빛과 열이 이 땅에 있는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에 동시에 계시지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

216. ‘갈보리’(kranion)는 ‘해골의 장소’(마태복음 27:33, 마가복음 15:22, 요한복음 19:17)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골고다’(Golgotha)의 헬라식 명칭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언덕은 옛 예루살렘 바깥에 위치하고, 해골 뼈가 지 같이 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숫양을 번제로 드린 곳과 같은 산등성이의 일부이다.

217.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무너지기 전, 로마 군병들이 “매일 500명의 유대인을 사로잡고 어떤 날은 더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이 군병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품었던 분노와 혐오로 인해 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한 명씩 차례차례로 장난스럽게 십자가에 못박았다.

군중이 너무 많을 때는, 그 공간은 십자가를 외치는 아우성으로 가득 찼고 십자가는 많은 시신을 요구했다.”라고 보고했다. 요세푸스는 또한 이 희생자들이 “우선 채찍질을 당하고 그다음에 온갖 종류의 고문을

당했으며...”(요세푸스, ‘고대의 이야기’, 11:1, 563쪽)라고 기록했다.

218. 유대인들은 아침 6시를 시작으로 시간을 계산했다. “때가 제삼시(6:00+3시=9:00)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제육시(12:00 정오)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15:00)까지 계속하더니”(마가복음 15:25,33).

219. 창세기 8:20, 22:2-8, 출애굽기 29:18. “번제”라는 문구는 구약성경에서 169번 발견된다. 예수님은 죄를 위한 최종적인 번제물이 되셨다. 마가복음 12:33, 히브리서 10:6-14.

주 :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이유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을 읽어보라. 다윗이 예언한 시편의 글과 같이, 메시아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시편 22:1)라고 외치셨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또한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외면하셨는지 우리에게 말해준다. “당신은 거룩하시니이다!”(시편 22:3).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기”(하박국 1:13)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셨다. 어둠의 시간 동안, 죄 없으신 인자는 마치 죄인인 양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실 때, 죄인들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계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서는 (죄인이 되지 않고서도)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셨다. 찬송가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를 잘 표현했다. “이 모든 비밀이여! 불멸의 주께서 죽으셨네!

누가 그분의 기묘한 설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놀라운 사랑’, 찰스 웨슬리, 1707-1788년)

220. 알프레드 에더샤임. ‘메시아, 예수님의 생애와 시대’. 1883년, 614쪽.

221. 히브리서 9-10장을 읽어보라.

주 :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22장에 서술된 바와 같이, 한 때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휘장 안에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

222. 요한복음 19:31-37, 출애굽기 12:46, 시편 34:20, 스가랴 12:10, 13:6

제25장 : 죽음을 이기다

223.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21장, 고린도전서 15장.

주 :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시작한 많은 사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선포하는 책들을 기록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프랭크 모리슨.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랜드 래피즈, MI: Zondervan, 1987년 / 조쉬 맥도웰. '판결을 요구하는 증거'. 내쉬빌, TN :Thomas Nelson Inc., 1993년/리 스토벨. '그리스도의 재판'. 그랜드 래피즈, MI:Zondervan, 1998년.

224. 예수님은 자신이 "삼일 만에 살아나실"(마태복음 16:21) 것을 말씀 하셨을 뿐 아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마태복음 12:40)고도 말씀하셨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금요일 밤에 무덤에 묻히셔서 일요일 아침까지만 무덤에 계셨다면, 그것은 3일을 온전히 채운 것이 아니라며 이해할 만한 주장을 펼친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누인 기간은 어림수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하루 중 아무리 짧은 순간도 온종일로 여기는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에 의한 것이다(예, 마태복음 27:63-64, 창세기 42:17-18, 사무엘상 30:12-13, 에스터 4:16-5:1).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렇다. 성경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기록하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이 "모순이다!"라고 즉시 공격하긴 하지만, 성경에는 이러한 명백한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설명들이 많이 있다.

225. 사도행전 11:26, 26:28, 베드로전서 4:16

226. 사도행전 5:41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사도행전 5:41).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2장도 참조).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교자로 죽을 것을 예언하셨다(요한복음 21:18-19).

227.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이방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마태복음 15:24)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지만, 예수님이 이후에 그녀의 딸을 고쳐 주신 사실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비유대인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사역과 공훈에 대한 예는 마태복음 12:41-42, 21:33-43, 누가복음 9:51-55, 10:30-36, 17:11-19, 요한복음 4장, 요한일서 2:1-2, 누가복음 24:45-48 등을 참조한다).

228. 시편 68:18, 110:1, 시편 24편

229.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히브리서 1:3).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나 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히브리서 10:11-12). 히브리서 8:1, 12:2, 요한계시록 3:21도 참조한다.

제26장 :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

230. 야고보서 2:18, 마태복음 5:13-16, 히브리서 11장

231. 하나님이 정부 기관에 국민들을 보호할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하나님의 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로서 “칼”을 사용할 책임(로마서 13:1-4, 창세기 9:6)을 부여하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본과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배치된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3-47).

이와 대조적으로 쿠란은 이렇게 말한다. “알라와 마지막 날을 믿지 않거나 알라와 그의 사도가 금한 것을 따르지 않거나 이 진리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 그들이 비록 이 책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즈야(Jizya, 비무슬림들을 위한 특별세)를 내고 스스로 굴복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그리하라! (쿠란, 수라 9:29).

232.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요한일서 3:11-12).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충동질한 두 가지 원동력은 마귀와 질투였다(마태복음 27:18과 비교).

233.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취하였는가?”라고 묻는 종교 회의론자들의 전통적인 도전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창세기 5장이 그 답을 제시한다. 아담과 하와는 다른 “아들들과 딸들”(창세기 5:4)을 낳았다. 분명 가인은 자기 여동생 중 하나와 결혼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근친혼이 아직 유전적으로 해로운 효과를 양산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후 하나님은 이러한 근친혼을 금하셨다. 그리고 아벨은 죽임을 당한 후 어떻게 되었는가? 아벨의 몸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4을 참조로 한다.

234. 모세와 다른 선지자들은 노아 시대의 우주적인 홍수와 지질학적 격변을 설명한다. 창세기 7-8장, 시편 104:6-8, 욥기 22:16, 마태복음

24:37-39, 베드로후서 2:5-6.

제27장 : 1단계 - 하나님의 과거 프로그램

235. 어떻게 해서든 성경의 모든 부분은 다음의 세 가지 주제 중 하나와 연관된다.

- I.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 II.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
- III.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이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1) 칭의 =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position)**에 있어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로마서 3-5장).
- 2) 성화 =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행실(practice)**에 있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로마서 6-8, 12-15장).
- 3) 영화 =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행실에 있어서 **완전히 의로워질** 것이다(요한계시록 21-22장).

236. 돈 리차드슨. '땅의 주인들'. 옥스나드, CA: Regal Books, 1977년, 354쪽(돈 리차드슨이 저술한 또 다른 고전적인 식인종 회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화해의 아이'. 옥스나드, CA: Regal Books, 1975년).

237. 사도행전 26:9-11, 7:58-60, 8:1-3, 9:1-2

238. 사도행전 9:1-31. 사도행전 11장, 13-14장, 16-28장도 참조한다.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준다. 갈라디아서 1:12, 23, 빌립보서 3:6, 고린도전서 15:9 등도 참조한다.

239. 성경적인 용어로 "성도"(saint)란 하나님께 '구별된'(set apart) 사람이요, 하나님의 죄 사함과 의의 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된'(declared holy) 사람이다. 어떤 고인(故人)들을 "성인으로 공표하고"(canonizing), 이를 통해 그들을 "성인"(saints)으로 추대하는 인간이 만든 전통은,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신명기 33:2-3,

시편 30:4, 잠언 2:8, 다니엘 7:21-27, 마태복음 27:52, 사도행전 26:10, 에베소서 1:1, 2:19 등을 참조한다).

제28장 : 2단계 - 하나님의 현재 프로그램

240. 사람들 대부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그들이 이러한 ‘자기 보호 방법’들을 사용할 때 스스로 원수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신명기 18:10-14, 이사야 47:13, 사도행전 19:19, 갈라디아서 5:19-21

241. 요한일서 2:1, 요한복음 14:16장

242. 1장에서 우리는 아흐메드가 보낸 이메일에서 “...당신의 성경 원문과 구약성경에는 무함마드(pbuh)의 오십에 대한 예언들이 있고, 심지어 지금도...”라고 한 말을 인용했다. 아흐메드가 말하고 있는 핵심 구절 중 하나는 요한복음 14:16장이다.

243. 오순절은 ‘50번째 날’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구약의 기념식이었다(레위기 23:16). 태초부터 하나님은 이날에 궁극적인 복인 그분의 성령님을 내려주실 계획이었다.

244. 고린도전서 12:27, 에베소서 4:21, 5:25-32, 요한계시록 19:7-9, 22:17, 요한복음 3:29.

245. 요한일서 1:8-10, 2:1-2, 로마서 6:8장

246. 당신의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신은 물로써가 아니라(이는 이후에 이루어질 일) 성령으로(로마서 6:1-5, 사도행전 1:5, 고린도전서 12:13)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로마서 6:3) 된다.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연합됨, 및 동일시 됨”을 의미한다. 당신이 믿게 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죄 없으신 아들과 “연합됨”(로마서 6:5)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 당신의 새롭고 영원한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247. 사도행전 24:15, 누가복음 14:14, 요한복음 5:28-29, 다니엘 12:2,

요한계시록 20:6, 11-15장, 요한계시록 22:12.

248. 고린도후서 5:10. 성경은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자그마치 5개나 되는 면류관(트로피/상급)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25, 베드로전서 5:4, 야고보서 1:12, 데살로니가전서 2:19-20, 디모데후서 4:8. 이러한 면류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요한계시록 4:10). 주님은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행한 모든 선행을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다(마태복음 10:41-42, 히브리서 6:10).

249. 빌퀴스 쉬이크. '나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뉴욕: Fleming H. Revell Company, 1978년, 53쪽.

250. 요한일서 2:27, 요한복음 4:14, 14:26, 16:13, 예레미야 31:33-34, 에베소서 4:21.

251.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낭독하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로마서 8:26-27, 에베소서 6:18, 요한일서 5:14-15, 요한복음 14:13-14, 15:7, 빌립보서 4:6-9.

252.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253. 고린도후서 3:18, 빌립보서 1:6, 3:20-21.

제29장 : 3단계 -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

254. 지금부터 몇 페이지에 걸쳐 우리는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지상 재림을 예언하고 그분의 재림에 수반될 사건들을 묘사한 구약성경의 여러 구절을 읽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몇몇 구절들은 스가랴 14장, 다니엘 7:13-14, 시편 72편 및 이사야 9:6-7이다.

255. 데살로니가전서 4:13-18, 고린도전서 15:51-58

256. 제28장의 소제목, '두 가지 심판의 날'을 참조한다.

257. 에베소서 5:27과 주변 구절들을 읽어보라. 이 놀라운 주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10장에서 다루고 있다. 성경은

주님을 “신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신부”로 일관성 있게 묘사하고 있다. 이상적인 형태의 결혼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영원토록 누리기로 계획하신, 친밀하고 영적인 관계를 희미하게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이사야 54:5, 62:5, 시편 45편, 아가서, 호세아 2:16,19,20, 마태복음 9:15, 25:1-13, 요한복음 3:9, 고린도후서 11:2-3, 에베소서 5:22-33, 요한계시록 21:2,9, 22:17).

258. 마태복음 24:21, 요한계시록 7:14, 대환난에 대한 가장 완벽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6-19장에서 발견된다.

259. 로마서 11:26-27. 주 : 이 사건은 창세기 37-45장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미리 보였다. 놀라운 유사점이다!

260. 고린도전서 15:45-47, 로마서 5:12-21.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 같은 용어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16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의와 흘리신 보혈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회복시킨다.

261. 데살로니가후서 1:7-10, 요한계시록 19:6-14, 유다서 14장, 스가랴 14:5.

262. 이사야 53:7, 요한복음 1:29, 요한계시록 5:5, 데살로니가후서 1:5-10, 요한복음 3:17-18, 12:47, 다니엘 9:24-27. 이사야 53장을 스가랴 14장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다음의 구절에서 “고난”과 “영광”의 대조를 생각해 보라. 누가복음 24:25-26, 베드로전서 1:10-12, 히브리서 2:9, 빌립보서 2:5-11, 시편 22편 등.

263. 시편 72편의 제목은 “솔로몬의 시편”이다. 이 시편은 비록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다.”(시편 72:20)라고 마무리되어 있지만, 솔로몬이 이 시편을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이 구문은 시편의 책에 포함된 다섯 개의 부분들 가운데 제2부가 끝났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 두 번째 부분의 주요 저자였다.

264. 누가 영원한 정죄를 받을 것인가?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들”, 즉 가족들과 친구들이 뭐라고 말할지 또는 무슨 일을 행할지 두려워하

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마태복음 10:28,34-37).

제30장 : 천국 미리보기

265. 마태복음 13:24-30. 예수님의 이 비유는 선과 악의 혼합이 제한된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고 선포한다.

266. 요한계시록 1장의 나머지 부분은 주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묘사이자, 대부분의 책과 영화와 종교에서 묘사하는 것과는 놀라운 차이를 보이는 묘사이다.

267. 마가복음 3:14-19, 요한복음 19:26-27. 요한은 성경 중에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등 5권의 책을 기록했다.

268. 벽옥은 다양한 색상으로 나온다. 홍옥수는 일반적으로 반투명 빨강이다. 그 색상은 빛에 노출될 때 더 깊어진다.

269. 누가 보좌에 앉아 계신지 보라. 이사야 6장(‘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15장에도 제시된 이사야의 비전)을 요한복음 12:36-41과 비교해 보라.

270. 창세기 12:2-3,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자세히 보려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의 20장을 다시 읽어보라.)

271. 예를 들어, 처음 중국에 전래된 고전적인 신데렐라 이야기는 유럽, 미국, 페르시아, 이라크, 이집트, 한국, 인도 등의 버전으로도

소개된다. 각국에 고유한 버전이 있지만, 그 주제는 유사하다. 구원과 영생을 향한 갈망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도서 3:11).

여행을 되돌아보며

소그룹 교제를 위한 안내 장별 복습 질문들

이 섹션의 질문들은 여러분이 성경 여행에서 최대한의 유익을 얻도록 도움을 주고자 고안되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하시나요? 당신은 그 메시지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마지막 섹션의 질문들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 보신다면, 제가 드린 이러한 질문들에 좀 더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별 복습 질문들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개인적인 묵상이나 소그룹 성경공부, 학교, 교도소, 가정 또는 통신 강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어.” - 선지자 다윗(시편 139:23-24).



진리를 사라

1. 전 세계 1만 개의 종교 중에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게 가능한가요? 당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어 보세요(5-6쪽).
2.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이고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6쪽).
3. 쿠란이 성경에 대해 말하는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8쪽).
4. 어떤 사람을 안전하게 믿을 수 있으려면 그 사람에 대해 무엇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그분에 대해 무엇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5. 내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당신의 대답은 어떠한지 설명해 보세요(13-14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잠언 23:23을 설명해 보세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514쪽).



2

장애물을 극복하라

1. “당신은 보긴 해도 관찰하진 않습니다.”라고 설록 흠즈가 왓슨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16쪽).

2.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대를 초월한 베스트셀러인 성경을 읽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세 가지 핑계를 나열해 보세요. 이러한 핑계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15-27쪽).

3.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부끄러운 삶을 사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이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17-18쪽).

4.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말해 보세요(25쪽).

5. 왜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세요(25-27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호세아 4:6을 설명해 보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15쪽).

3

변질되었나, 보존되었나?

1. 쿠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성경(토라, 시편, 복음서)을 인류에게 계시하셨을까요?(29쪽).
2. 성경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떤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30-31쪽).
3. 많은 학자는 성경을 역사상 가장 우수하게 성문화된 문서로 간주합니다. 당신은 이에 동의하시나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보세요(34-35쪽).
4. 성경 ‘필사본’과 성경 ‘번역본’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35-36쪽).
5. 많은 사람이 성경을 무시하는 두, 세 가지 실제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37-39쪽).

자신의 말로 써 보기

누가복음 16:31을 설명해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38-39쪽).



4

과학과 성경

1. 수천 년 전에 성경에서 선포된 과학적 사실들 가운데 근세기의 현대 과학으로 검증된 사실 세 가지를 나열해 보세요(41-43쪽).
2. 성경은 맹목적 믿음이나 지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나요? 자신의 생각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43-44쪽).
3. 역사와 고고학은 성경의 정확성을 어떻게 입증하나요?(44-46쪽).
4. 수라 2:23에 발표된 쿠란의 도전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설명해 보세요(47-48쪽).
5. ‘거룩한 책’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과학, 고고학 및 시가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욥기 38:4을 설명해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40쪽).



5

하나님의 서명

1. 우리는 성경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선포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49-50, 57쪽).
2.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언이 주술사, 점쟁이 및 무당이 말하는 예언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50쪽).
3. 세계의 역사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입증하는 성경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50-56쪽).
4. 성경의 예언의 목적은 무엇인가요?(57쪽).
5. 어떤 면에서 성취된 예언이 “하나님의 서명”일까요?(49-50, 57-58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복음 13:19을 설명해 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57쪽).

6

일관성 있는 증거

1. 당신의 생각에 왜 진실을 입증하는 데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60쪽).
2.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 가지 '증거'가 세계 곳곳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나요?(60쪽).
3.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자신의 메시지를 기록하는 데 사용하신 열 사람의 이름을 말해 보세요(62쪽).
4. 한 증인의 말이 믿을 만한지 어떻게 시험해볼 수 있을까요?(63쪽).
5.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64-67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마태복음 7:15-17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64쪽).



1.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나요?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또 믿음에 있어서 기초가 왜 그리 중요한가요?(68-69쪽).

2. 창세기(기원을 의미함)는 여러 위대한 생명의 신비에 대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생명에 관한 중대한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69쪽).

3.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왜 그런가요?(70쪽).

4.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가 식물과 배아에 비교될 수 있나요?(70-71쪽).

5. 레바논에 사는 필자의 친구가 스스로 성경을 공부한 뒤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72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이사야 55:9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73쪽).



8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 당신의 생각에, 왜 하나님은 자신의 책의 가장 첫 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시나요?(77-79쪽).
2. 천사들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으셨을까요?(81쪽).
3.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여러 장소에 계실 수 있을까요?(80, 82-83쪽).
4.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관해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4쪽).
5. 하나님께서 창조의 여섯째 날 보여주신 하나님의 속성 여섯 가지를 나열해 보세요(84-90쪽).

이 여섯 가지 속성 중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의 말로 써보기

시편 33:9을 설명해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86쪽).

9

그분 같은 이는 없다

1. 창세기의 첫 장에서, 하나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복수 대명사 ‘우리’ (Us) 그리고 ‘우리가’(We)로 소개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요?(91-94쪽).

2. 우리의 일상에서 발견되는 ‘셋이 하나로 연합되는 원리’가 창조주의 복합적인 속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95-96쪽).

3.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가 함축하고 있지 않는 의미는 무엇인가요?(98-99쪽).

4. 성경이 성령에 관해 계시하는 3가지 진리를 적어보세요.(99-100쪽).

5.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힘(Unknowable Force)으로 여기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가요?(102-104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시편 9:10을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102쪽).

10

특별한 피조물

1. 첫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인간의 특성 세 가지를 말해 보세요(105-106쪽).
2. 어떤 “물질”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그분은 무엇으로 첫 사람을 만드셨을까요?(106쪽).
3.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두 가지 큰 목적을 말해 보세요. (108, 113-115쪽).
4. 여성을 비하하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무엇인가요?(111쪽).
5. 창조의 일곱째 날은 왜 중요한가요?(116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복음 8:35을 설명해 보세요.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114쪽).

11

악의 유입

1.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완벽하게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사탄과 죄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117-118쪽).

2.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죄에 대해 많은 분명한 정의들을 내렸습니다. 이 정의들 중 하나를 인용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설명해 보세요(118-119쪽).

3. 지옥을 묘사하기 위해 성경에서는 어떤 그림언어(비유, 상징)가 사용되었나요?(120쪽).

4. 사탄의 목표 중 하나는 무엇인가요?(120-121쪽).

5.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121쪽). 사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말했나요?(123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야고보서 2:19을 설명해 보세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124쪽).

12

죄와 사망의 법

- 어떤 말이 죽음을 가장 잘 설명하나요? 부러진 가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나요?(127쪽).
-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세기 2: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날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 죽었을까요?
(128, 130쪽).
- 아담의 죄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128-129쪽).
- 아담의 한 가지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파급된 사망의 세 가지 종류를 말해 보세요. 어떤 종류의 죽음이 가장 무서운가요?(128-130쪽).
- 어떤 면에서 죄가 수치심을 유발할까요?(131-132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에스겔 18:20에 기록된 죄와 사망의 법을 설명해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133쪽).

13

인자와 공의

1.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134쪽).
2. 이 가상의 법정 장면에서, 재판관의 인자는 공의와 어떻게 충돌했나요?(135-136쪽).
3. 왜 하나님은 인자를 나타내시기 위해 공의를 무시하실 수 없을까요?(136-137쪽).
4.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행한 일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들에게 물으셨을까요?(139쪽).
5. 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길에 빠뜨린 것에 대한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을까요?(139-140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시편 89:14을 설명해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136쪽).



14

저주

1. ‘뱀’이 무엇을 나타내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저주했나요?(141-142쪽).
2.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 용어에 있어서 독특한 점은 무엇인가요?
3. 저주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4. 슬픔, 고난, 및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셨던 계획의 정상적인 부분일까요? 이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144-146쪽).
5. 아담과 하와는 범직한 이후 부끄러움을 느껴 무화과나무 앞으로 스스로를 가렸습니다. 그들의 자기 노력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을까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무엇인가요?(146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 창세기 3:21에 나타난 “은혜”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146-147쪽).



15

이중적 문제

1.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시야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151쪽).
2.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시야를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152-153쪽).
3. 십계명 중 몇 가지를 완벽하게 지켜 본 적이 있나요?(154-155쪽).
4. 십계명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거울’의 예를 사용해서 설명해 보세요(156-157쪽).
5. 하나님의 눈에 인간의 “이중적 문제”란 무엇인가요?(159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야고보서 2:10을 설명해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156쪽).

16

여자의 후손

1. 메시아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서 출생하는 것이 왜 중요했을까요?(160-162쪽).
2. 성경이 메시아를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163쪽).
3.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중 최소 다섯 가지의 예를 들어 보세요(164쪽, 55-56쪽도 참고해 보세요).
4.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녀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6-37을 읽어보고(165쪽), 제9장(98-99쪽)도 복습한 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5. “예수”라는 이름이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166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누가복음 2:10-11을 설명해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168-169쪽).



17

이 분이 누구시기에?

1. 메시아는 다른 모든 인간과 어떻게 전적으로 달랐나요?(170-171쪽).
2.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 했나요?(177, 182, 184쪽).
3. 예수는 “한낱 선지자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렇거나 또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83, 175쪽).
4.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입증했나요?(185쪽).
5. 귀신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큰 존경심을 표했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186-187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마태복음 22:42의 예수님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174-177쪽).

18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 당신은 어떤 면에서 선지자들보다 더 큰 특권을 받았을까요?(188쪽).
2.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속량하다”(redeem)는 말의 의미를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190-194쪽).
3. 선지자 다윗이 메시아에 관해 예언한 두 가지 주요 사건들을 말해 보세요(192쪽).
4. “계란은 바위와 싸워서 안 된다.”는 윌로프의 격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193쪽).
5.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194-195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갈라디아서 4:4-5을 설명해 보세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190쪽).

19

희생의 법

1.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난 후 그들이 발견한 유쾌하지 못한 현실은 무엇이었나요?(196-197쪽).
2.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두 가지 주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절하신 두 가지 주된 이유를 말해 보세요(199-201쪽).
3. 당신은 자신의 죄를 없이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기도와 선행으로 죄의 빚을 갚는 것이 왜 불가능한 일일까요?(201쪽).
4. 하나님은 모든 죄를 꼭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고 죄를 처벌하시는 방법이 있었나요?(202-203쪽).
5. '희생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보다 어떻게 '우위를 점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세요(202-204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레위기 17:11의 '속죄'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202-203쪽).



20

위대한 희생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어떤 요소가 이 두 약속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했나요?(206쪽).
2.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207쪽).
3.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진리와 축복을 전달하셨던 세 가지 방법을 말해 보세요(210쪽).
4.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이삭의 자손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어기셨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212쪽. 미주 188번도 참조하세요).
5. 왜 아브라함의 아들은 제단 위에서 죽지 않았을까요?(213-214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창세기 22:14을 이해하는 대로 말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214쪽).

21

흘려진 더 귀한 피

1. 유월절 이야기에서, ‘모든’ 가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집트 전역에서 죽음을 목격했나요?(217쪽).
2. 하나님은 사람들을 성막을 통해 배우도록 의도하셨던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218쪽).
3.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했나요?(219쪽).
4.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은 하늘에서 무엇을 내리셨나요?(221쪽).
5. 휘장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220쪽). 사람이 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나요?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223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히브리서 9:22을 설명해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215쪽).



22

어린 양

1. 하나님의 책, 성경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요?(225쪽).
2. 메시아가 성막의 상징들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적어도 두 가지 방법을 말해 보세요(226-228쪽).
3. 일상생활의 예를 사용해서 “회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세요 (229-230쪽).
4.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실 수 없었지만, 예수 님에 대해서는 당당히 선포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231쪽).
5.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서, 희생된 어린 양들은 어떤 면에서 그림자와 상징을 제공했나요?(233-235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복음 1:29을 설명해 보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232쪽).

23

성경을 성취하다

1. “약속은 구름이요 성취는 비이다.” 이 아랍의 속담은 구주를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236쪽).

2.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기간 중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이 특정한 시간에 죽도록 계획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238-239, 216-217쪽 참조).

3.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 떡을 떼고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떡과 잔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었나요?(239쪽).

4. 예수님은 군병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왜 자신을 방어하지 않으셨나요?(240-241쪽).

5.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소했나요?(242-243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창세기 22:8과 14의 아브라함의 두 가지 예언을 설명해 보세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여호와 의 산에서 준비되리라”(244쪽).



24

완전히 지불되다

1. 지금까지 고안된 사형 방법 중에 국가가 시행하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선택한 사형법은 무엇이었나요?(245쪽).
2. 죄로 인해 야기된 세 가지 차원의 분리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 가지 차원의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개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죽음의 삼중적 분리를 복습하시려면 127-131쪽을 참조하세요).
3.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247-251쪽).
4. 주 예수님은 어떻게 단 몇 시간 동안 죄인들이 당할 영원한 형벌을 다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249-250쪽).
5.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어떤 중대한 의미를 갖나요?(252-253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복음 19:30을 설명해 보세요. “예수께서 ...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250-251쪽).

25

죽음을 이기다

1.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갔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들은 왜 이 이야기를 지어냈을까요?(257-58쪽).
2. 예수님의 죽으심, 장사됨, 부활하심의 사건은 어떤 면에서 사탄의 패배를 의미했을까요?(259-260쪽).
3.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어떤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260-261쪽).
4. 우리는 이 성경 여행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264쪽).
5.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간 하신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에 관해 가장 스틸 넘치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265-266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고린도전서 15:3-4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259쪽).

26

하나님과 거리가 먼 종교인들

1.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기 전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나요?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나요? 죄를 ‘덮는 것’(covered)과 죄를 ‘지우는 것’(canceled)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268-270쪽, 232-235쪽도 참조해 보세요).

2.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강도’(또는 ‘정도’)보다 더 중요할까요?(269-270쪽).

3.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선행과 악행을 달아보아 그들의 선행이 악행보다 무거우면, 자신의 하늘 처소로 들여보내실 것으로 생각하나요? 이 구원의 “저울 개념”에 관한 나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세요.(270-271쪽).

4. 성경에 따르면, 죄인은 어떻게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자격을 얻을 수 있을까요?(272-273쪽).

5. 왜 선행은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일까요?(273-274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사도행전 16:31을 설명해 보세요.(282쪽).



27

1단계 : 하나님의 과거 프로그램

1. 27장은 구도의 여행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식인종, 자살 충동을 느낀 십대 소녀, 종교 열성분자, 및 독실한 무슬림 청년 등에 관한 변화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와 가장 유사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회개한 강도는 무엇으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받았나요? 또한,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신이 죽는 순간 어느 곳에 있음을 발견했을까요?(291-292쪽).

3. 어린아이들에게 공의, 인자 및 은혜 등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296쪽).

4. 인간의 “이중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이중적 해결책”은 무엇인가요?(289-299쪽).

5.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은 죽은 뒤 어디로 갈게 될지 알고 계시나요?

자신의 말로 써보기 - 고린도후서 5:21을 설명해 보세요.



28

2단계: 하나님의 현재 프로그램

1. 오늘날 사람들 대부분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요?(303쪽).
2. 성경에 따르면, 성령은 누구시며,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나요?(304-305쪽).
3.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싶어 할까요? “의무인가, 사랑인가”의 예시를 사용해서 단순히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310-311쪽).
4. 물 침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요?(312-313쪽).
5.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아들의 예를 사용해서 이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316-317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베드로전서 1:16을 설명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318쪽).



29

3단계 :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

1. 탄을 깨뜨리시고 죄를 없이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세 단계를 이야기해 보세요(321쪽, 289쪽도 참조하세요).
2. 메시아의 지상재림이 초림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두드러지게 다를지 이야기해 보세요(327-328쪽).
3. 시편 72:7-19을 읽어보고 세상 통치자들과 백성들이 메시아 왕, 예수님께 굴복할 것을 보여주는 예를 나열해 보세요(329-330쪽).
4.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중, 아담의 죄가 불러온 저주는 대부분 사라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 미치게 될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인가요?(333-334쪽).
5. 요한계시록 20:10-15에 묘사된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엄중한 사건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335-336쪽).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일서 3:2에서 자신이 깨닫는 바를 설명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338쪽).

30

천국 미리 보기

1. ‘음양의 세계관은 어떤 면에서 성경과 배치되나요?(339-340쪽).
2.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 가지는 두 가지 잘못된 시각을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하늘 처소에 대한 진정한 초점은 무엇인가요?(342쪽).
3. 창세기에서 시작된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납니다. 1-2분 가량 말할 수 있는 분량으로(또는 글로는 최대 300자 미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죄인들을 사탄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약해 보세요(340, 347-350쪽).
4. 왜 사람들은 “해피엔딩”의 이야기를 즐겨 할까요? 당신도 이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될까요? 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349-352쪽).
5. 이 여유로운 성경 여행을 통해 당신은 어떤 유익을 얻게 됐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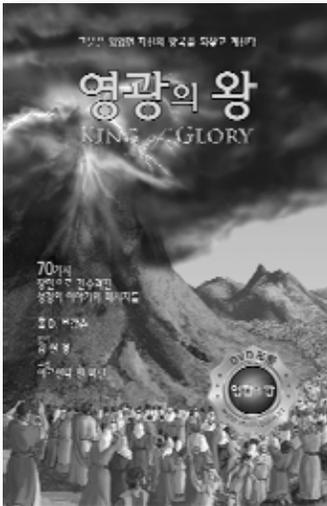
자신의 말로 써보기

요한계시록 21:27에 묘사된 그림 중 어느 부분이 나에게 해당하는지 말해보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영광의 왕

- 그림책 -



선지서를 70개의 장면으로 추출함

저자 | P. D. 브람슨

일러스트 | 아르민다 산 마틴

지금까지 들어본 중 최고의 이야기와 메시지가 70개의 밝고 선명한 그림과 함께 읽기 쉬운 70개의 이야기로 공개됩니다!

우주의 왕과 반항적인 신하들을 구출하려는 그분의 계획에 관한 연대기 순 이야기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좋아합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파악해야 할 것도 참 많고요. 저희는 매일 밤 가족들이 7~8개의 장면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12살인 제 아들은 그 책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서는 손을 떼지 않더군요. 그러고는 “엄마 아빠, 이건 제가 이제껏 본 성경공부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해요.”라고 말했어요.

- 남태평양의 작은 섬, 네 아이의 엄마인 홀리로부터



영광의 왕

THE MOVIE



미국 ROCK INTERNATIONAL 출판사 제공

영화 - 영광의 왕

책을 통한 매혹적이고 눈길을 끄는 단어 대 단어 시청각 여행

- 222분 분량
- 15개의 에피소드로 배열된 70개의 장면
- 모든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영화
- 수많은 언어로 번역됨

www.king-of-glory.com

책 명 :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메시지

발행일 : 2023년 6월 20일 1판 1쇄 발행

글쓴이 : P. D. 브람슨

그 림 : D. C. 브람슨

옮긴이 : 허 성 훈

발행인 : 이 치 일(E. W. Ritchie)

발행소 : 전도출판사(등록 98-43호)

연락처 :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7번길 16-6

전 화 : (031) 914-2732

팩 스 : (031) 917-4520

이메일 : jundo79@daum.net

정 가 : 24,000원

ISBN : 978-89-7531-973-0 03230